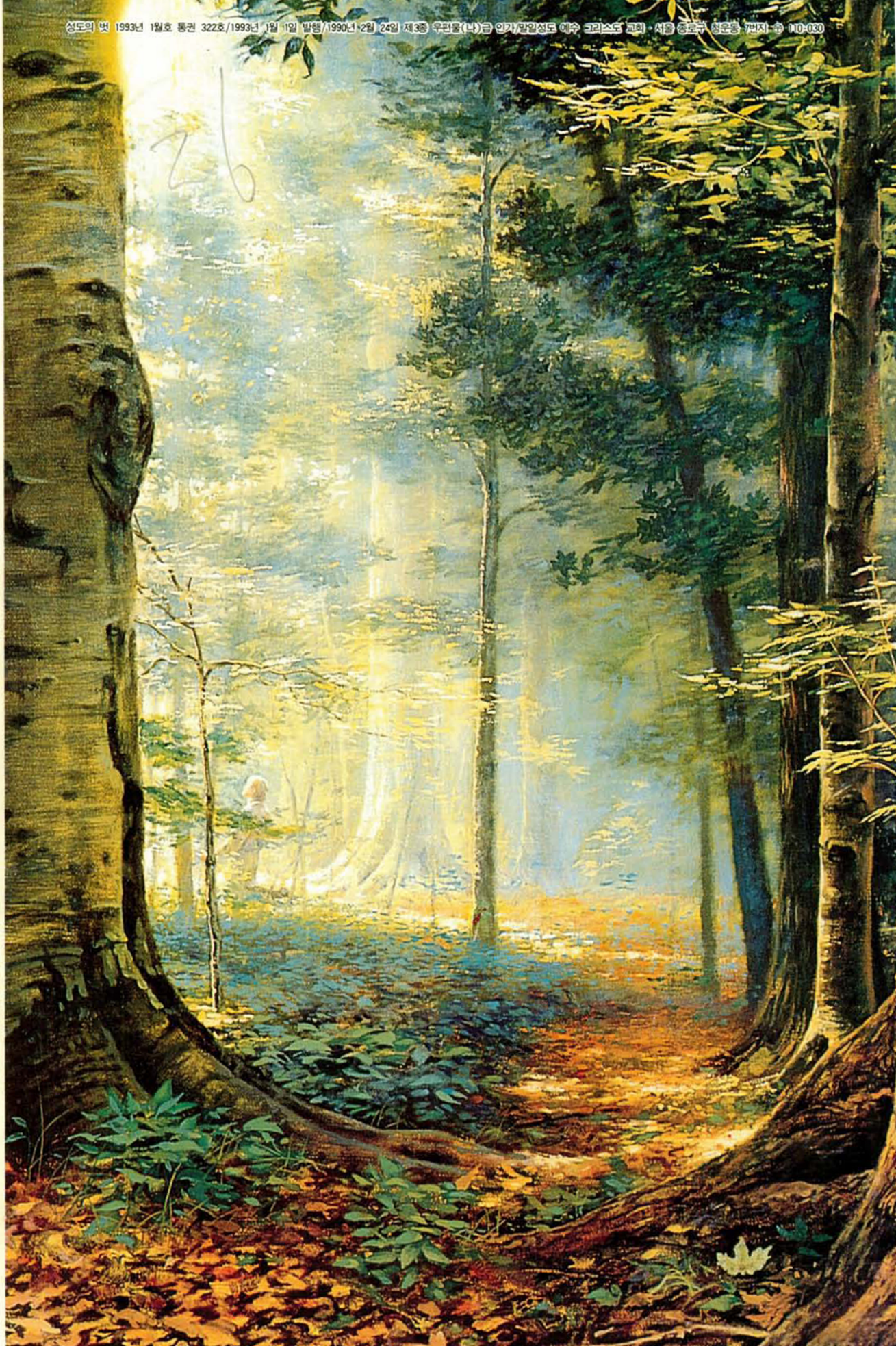


26



성도의 벗

교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62차

반연차 대회 보고

1992년 10월 3~4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캐어의 테버내클에서 행해진 말씀과 대회 진행 절차

“저는 여러분께 주님이
 그분의 왕국내에
 독특하고 놀랄만큼
 훌륭한 대체 및 보완 제도를 만드셔서
 언젠가 발생할지도 모를 긴급 사태에
 대처하고 교회가 직면하는 모든
 우발적인 상황에 잘 대처해 나갈으로써
 중단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제가 단순히 가정해서
 말씀드린다는 인상을 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게는 이것이 경이롭게 항상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관장단 제1보좌인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은 교회 제162차 반연차 대회의
 일요 오전 총회에서 말씀했다.

힝클리 부대관장은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이 “지금은 전에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수행할 수 없는
 연세에 이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예언자로서의 부름을 손상시키는
 일은 아닙니다. 단지 그분의 활동에
 제한을 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보아왔습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님도 고령인 상태에서 이 직책을
 수행하셨습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데이비드 오 맥케이, 조셀 필딩 스미스,
 그리고 좀 더 근자에 들어서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도
 그러하셨습니다.

“한편 특정 개개인의 상황과 관계없이
 교회의 사업은 질서 정연하게 전진해
 나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킴볼 대관장님께서 병환중일
 때도 그러했듯이 우리는 훌륭히 입안된
 정책을 주저함없이 수행해 왔습니다.
 확고하게 수립된 정책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에 앞서 대관장님과 상의해 허락을
 받습니다.”라고 말씀했다.

대관장단 고문 및 십이사도 정원회와
 토의하는 것에 대해서 힝클리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형제로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제반
 문제를 토의합니다. 인간은 모두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배경과 경험에 입각해 토론합니다.
 주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강화시키는
 방법을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론이 끝나기 전에 만장일치가
 이뤄지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이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주님 자신도 그와
 같은 의견의 일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상이한 종류의 통치
 제도입니까? 교회는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통치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조직에 있어
 독창적입니다. 이러한 체계하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신병이나 연로함으로 인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업이 흔들리거나 좌초하지는
 않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물론 대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자택에서
 텔레비전으로 대회를 시청하셨다. 다른
 총관리 직원들은 모두 참석하였다.

모임의 사회는 힝클리 부대관장과
 제2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맡았다.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는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의 메리온 디 행스 장로와
 로버트 엘 백맨 장로가 해임되고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명예 회원으로 지명되는
 대회 행정 조치가 있었다. 조지 알 힐
 3세 장로, 존 알 라스터 장로, 더글러스

제이 마튼 장로, 글렌 엘 러드 장로,
 더글러스 에이치 스미스 장로 및 린
 에이 소렌슨 장로가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서 해임되었다. 또한 관리
 감독단의 제1보좌 및 제2보좌였던 헨리
 비 아이어링 감독과 글린 엘 페이스
 감독이 해임되고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
 지지되었다. 이들의 후임으로 관리
 감독단 제1보좌에는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이, 제2보좌에는 리차드 시
 애즐리 감독이 지지받았다. 이들은 모두
 솔트레이크 시 출신이다. 이미
 대관장단이 발표했었던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의 찰스 디디에이 장로와 엘 알든
 포터 장로가 이 대회에서 지지받았다.
 여름에 대관장단이 칠십인
 정원회 회원으로 불렀던 네 명의 형제가
 지지받았으며, 이미 대관장단에 의해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 부름이
 발표되었던 15명의 형제도 지지받았다.
 이 조치 외에도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및 청년 회장단에 변경이 있었다.(20쪽
 참조)

또한 힝클리 부대관장은 홍콩과
 코네티컷주의 하트포드와 유타군에
 건축할 성전 부지가 매입되었다는 매우
 흥미있는 발표를 하였다.
 (21쪽 참조)

대회 모임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하이티, 서인도제도 및
 도미니카 공화국의 3천 여곳 이상
 지역에 교회 위성 방송망을 통해
 중계되었다. 15개국의 비영어권 동시
 통역이 이루어졌으며, 대회에 관한 실황
 방송이나 녹화 방송이 불가능한 교회
 단위 조직에는 대회 비디오 테이프가
 전달된다.

-편집자 □

성도의 빛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 월간 -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 격월간 - 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 계간 - 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에즈라 테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정원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페커, 마빈 제이 에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린, 리처드 지 스코트

고문: 에스 디 파넬라, 존 에이치 그로버그, 브리 델러스 메린, 로버트 이 웬즈

통 권: 제320권, 제29권, 제11호

동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3년 1월 1일(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한 상 익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영 인쇄 주식회사 이 세 용

© 1993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 소유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외 구독인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카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Annual Subscription rate \$30.00 a year. \$4.00 per single copies.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 1993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ternational Magazine 93981 320
Printed in Korea 1/93

색인

아래의 주제는 다음 연사의 말씀에 나와 있다.

- 가르침 - 델러스 엔 아치볼드, 미셸린 피 그래슬리
- 가정 - 마빈 제이 에쉬튼
- 가치관 - 데이비드 비 헤이트
- 간증 - 글렌 엘 페이스, 조셉 비 위스린, 게리 제이 콜먼
- 개심 - 게리 제이 콜먼,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 개혁자 - 제임스 이 파우스트
- 견답 - 마빈 제이 에쉬튼, 토마스 에스 몬슨 (일요일 오전 모임), 제임스 이 파우스트
- 결심 - 글렌 에이 페이스, 닐 에이 맥스웰,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 경고 - 엘 톰 페리, 엠 러셀 벨라드, 데이비드 비 헤이트
- 경전 - 엘 톰 페리, 메릴 제이 배이트먼, 존 이 파울러, 제이 이 켈슨
- 경전 공부 - 메릴 제이 배이트먼, 델린 에이치 옥스, 배티 조 켈슨
- 계명 - 리노 알바레스
- 교만 - 엘 톰 페리, 던 엘 라슨
- 교육 - 러셀 엠 넬슨, 보이드 케이 페커
- 교회 성장 - 아우구스토우 에이 림
- 교회 지도자 - 고든 비 힝클리 (일요일 오전 모임)
- 교회 학교 - 보이드 케이 페커
- 기도 - 배티 조 켈슨
- 대관장의 계승 - 고든 비 힝클리 (일요일 오전 모임)
- 두려움 -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 목표 - 존 비 덕슨
- 배움 - 러셀 엠 넬슨, 보이드 케이 페커
- 빈영 - 엘 톰 페리, 던 엘 라슨
- 병고침 - 리처드 지 스코트
- 보호 - 델린 에이치 옥스
- 봉사 - 로버트 엘 백맨, 맥스 콜드웰, 존 비 덕슨, 토마스 에스 몬슨 (신권 모임), 배티 조 켈슨, 하워드 더블류 헌터
- 부모의 역할 - 리노 알바레스, 델러스 엔 아치볼드
- 사랑 - 맥스 콜드웰, 엠 러셀 벨라드, 매리온 디 헝스, 토마스 에스 몬슨 (일요일 오전 모임), 토마스 에스 몬슨 (여성 대회)
- 선교 사업 - 로버트 엘 백맨, 존 비 덕슨, 토마스 에스 몬슨 (신권 모임), 아우구스토우 에이 림
- 성별 - 닐 에이 맥스웰
- 성탄절 - 배티 조 켈슨
- 순종 - 고든 비 힝클리 (토요일 오전 모임), 글렌 에이 페이스, 리노 알바레스, 델린 에이치 옥스, 던 엘 라슨, 닐 에이 맥스웰, 토마스 에스 몬슨 (일요일 오후 모임)
- 신권 - 토마스 에스 몬슨 (신권 모임)
- 신앙 - 러셀 엠 넬슨, 하워드 더블류 헌터,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린, 델린 에이치 옥스, 고든 비 힝클리 (신권 모임), 아우구스토우 에이 림,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토마스 에스

- 몬슨 (여성 대회)
- 신학 연구원 대학부 - 보이드 케이 페커
- 안전 - 마빈 제이 에쉬튼
- 약속 - 제이 이 켈슨
- 어린이 - 미셸린 피 그래슬리
- 에즈라 테프트 벤슨 - 고든 비 힝클리 (토요일 오전 모임), 토마스 에스 몬슨 (일요일 오후 모임)
- 여성 - 하워드 더블류 헌터 (여성 대회)
- 역경 - 글렌 에이 페이스, 매리온 디 헝스, 토마스 에스 몬슨 (일요일 오후 모임)
- 연차 대회 - 존 이 파울러
- 예수 그리스도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메릴 제이 배이트먼, 맥스 콜드웰,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린, 게리 제이 콜먼, 미셸린 피 그래슬리, 하워드 더블류 헌터 (여성 대회)
- 예언자 - 고든 비 힝클리 (토요일 오전 모임), 게리 제이 콜먼, 고든 비 힝클리 (일요일 오전 모임), 존 이 파울러, 토마스 에스 몬슨 (일요일 오후 모임)
- 용기 - 토마스 에스 몬슨 (일요일 오전 모임),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 인내 - 매리온 디 헝스, 토마스 에스 몬슨 (여성 대회)
- 자유 - 제임스 엠 페러모어
- 자유의지 - 리처드 지 스코트,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 자존심 - 델러스 엔 아치볼드,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 장직 - 제임스 엠 페러모어
- 자혜 - 러셀 엠 넬슨
- 태비내클 - 고든 비 힝클리 (신권 모임)
- 퇴직 - 로버트 엘 백맨
- 평화 - 하워드 더블류 헌터
- 회개 - 제임스 엠 페러모어, 조셉 비 위스린
- 희망 - 엠 러셀 벨라드
- 희생 - 제임스 이 파우스트
- 힘 - 고든 비 힝클리 (신권 모임)

10월 반연차 대회에서 말씀하신 연사들 (가나다 순)

게리 제이 콜먼	43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90
고든 비 힝클리	4, 20, 50, 53	배티 조 켈슨	76
글렌 엘 페이스	11	제임스 이 파우스트	81
닐 에이 맥스웰	65	시릭스 콜드웰	29
델러스 엔 아치볼드	25	아우구스토우 에이 림	82
델린 에이치 옥스	37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88
데이비드 비 헤이트	74	엘 톰 페리	15
던 엘 라슨	40	엠 러셀 벨라드	31
러셀 엠 넬슨	6	제이 이 켈슨	80
로버트 엘 백맨	13	제임스 엠 페러모어	9
리노 알바레스	21	제임스 이 파우스트	81
리처드 지 스코트	60	조셉 비 위스린	31
마빈 제이 에쉬튼	21	존 비 덕슨	45
매리온 디 헝스	63	존 이 파울러	78
메릴 제이 배이트먼	27	토마스 에스 몬슨	47, 68, 86, 97
미셸린 피 그래슬리	92	하워드 더블류 헌터	18, 65

목차

1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62차 반연차 대회 보고

토요일 오전 모임

4 죄가 득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

6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러셀 엠 넬슨 장로

9 주님의 말씀의 권세로 저들은 감옥을 깨뜨려

제임즈 엠 패터모어 장로

11 영적인 거듭남 클렌 엘 페이스 감독

13 황금의 시기 로버트 엘 백맨 장로

15 보라 주님께서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내게 보이셨으니

엘 톰 패리 장로

18 평화의 항구에서 비치는 불빛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토요일 오후 모임

20 교회 역원 지지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

21 가정을 그리워하는 마음 마빈 제이 에쉬튼 장로

24 내 부모를 공경하라 리노 알바레스 장로

25 훌륭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델러스 앤 아치볼드 장로

27 경전을 상고함으로써 그리스도께 나아옴

매릴 제이 배이트먼 장로

29 그리스도의 사랑 시 맥스 콜드웰 장로

31 소망의 기쁨을 성취함 앤 러셀 벨라드 장로

34 영적인 간증의 불꽃 조셉 비 워스런 장로

토요일 신권 모임

37 성경 이야기와 개인적인 보호

델린 에이치 우스 장로

40 주님은 의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던 엘 라슨 장로

43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회복의 중심입니다

게리 제이 콜맨 장로

45 아무도 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존 비 덕슨 장로

47 신권을 행사함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50 자신의 태바네클을 지음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

일요일 오전 모임

53 교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

60 여러분의 상처받은 삶을 치유함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63 말씀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메리온 더 행스 장로

65 너희 마음을 굳게 정하라 닐 에이 맥스웰 장로

68 과거와 현재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일요일 오후 모임

71 학식을 얻음이 유익할 것이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74 복음의 원리를 따르는 성공적인 삶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76 권유로 이르노니 배터 존 앤 집슨

78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로워짐 존 이 파울러 장로

80 약속도 잊지 말지니 제이 이 젠슨

82 필리핀에서의 선교 사업 아우구스토우 에이 림

84 값진 유산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86 헤어지면서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여성 대회

88 개심을 통한 확신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자매

90 두려움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자매

92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미셸린 피 그래스리

95 교회의 여성들에게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97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101 교회 소식

105 어린이에 관한 총관리 역원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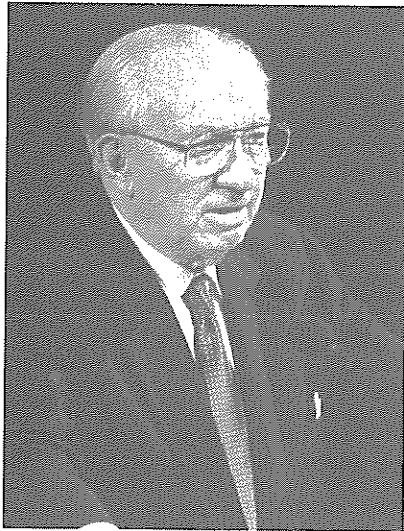
107 교회 및 지역 소식

대회 사진을 촬영한 사람들 : 제드 클라크, 웬던 앤더슨, 필
셔틀리프, 크레이그 다이어몬드, 존 루크, 멜라니 섬웨이, 매트
레이어

죄가 득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 정해진 표준을 지키며 이 안전하고 승영에 이르는 길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대회를
개회하는 모임에서
일반적으로는 벤슨
대관장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이 이곳에
안게서서 서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 벤슨 대관장님도 이곳에
참석하고 싶으실 것이며, 우리도 그분이
참석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 분은 이제 외출하시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세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공공
장소에 나오시는 것이 어렵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현재 94세이십니다. 이제는
과거에 것처럼 정열적이고 열성적으로
하시던 일들을 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복음에 관해 설명하시던
웅변적인 말씀과 이 사업에 대한 확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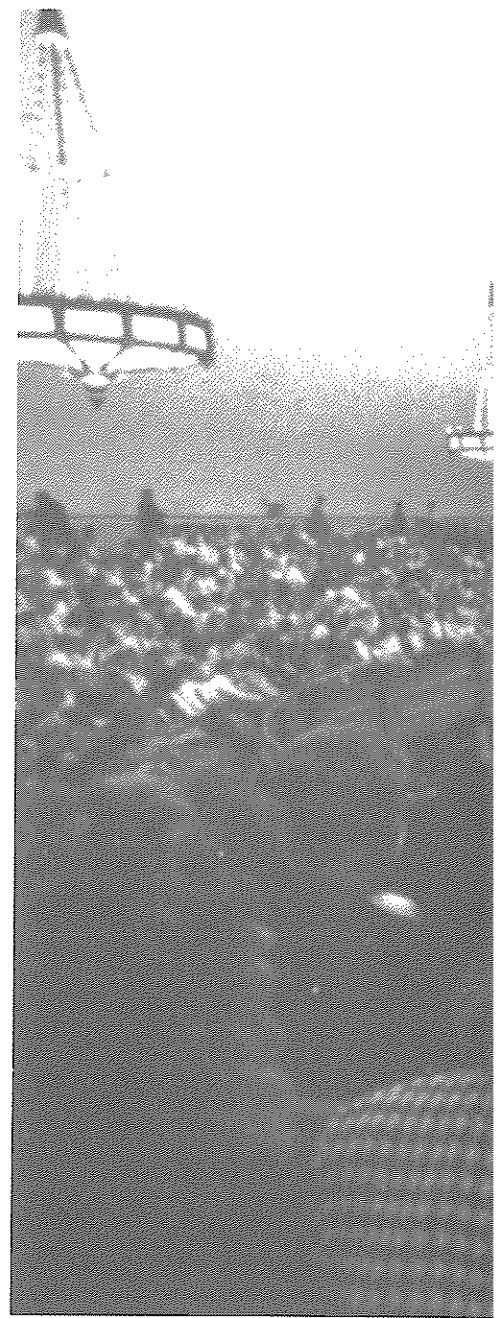
부동한 간증 및 설득력이 강한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
고취되었습니다. 우리는 벤슨 대관장님을
그리워하며 주님께서 그분을 위안하시고
축복하셔서 남은 생애 동안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기도드립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지난 8월 14일에
사랑하는 동반자 플로라 아무셀 벤슨
자매님을 여의고 난 후로 더욱 더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66년여 동안을 함께 사시면서, 온 교회에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대관장님은
자녀들의 어머니이며, 자신을 지지하고
안위하였던 재능 많고 아름다운 아내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심한 외로움을 겪고
계십니다.

벤슨 대관장님에게 사랑과 동정을
표하면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 주님께서
그분을 위로하시고 지지해 주시며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벤슨 대관장님이 이 대회를
진행하라고 당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의 격려와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로써,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셔서
여러 장소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모인
성도들 가운데 영이 차고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회를 시작합니다.

벤슨 대관장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으신지를 상기하며,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재 확인하는
뜻에서, 저는 이 대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분이 과거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성취될 마지막 위대한 경륜의 시대로,
주님께서 악이 성치 못하리라고
약속하신 유일한 경륜의 시대입니다.
교회가 이 지상으로부터 다시는
거두어지지 않고 이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으며, 여러분은 그 교회와
왕국의 일부로서, 여러분을 중심으로 이
지상에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과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합쳐질 것이며, 그 때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미래와 그 지혜로움을 보고 그 위대한 일이 일어날 때가 멀지 않았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만일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을 깨닫는다면, 그로 인해 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가르침,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레프트사, 1988년, 19쪽)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위대한 모범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길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거나 행동하건 상관치 않고 우리 모두 그 길을 따르며, 쇠막대를 굳게 잡고 신앙에 참되며, 우리를 위해 정해진 표준을 지키고, 이 안전하고 승영에 이르는 길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니파이일서 8:19 참조)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계획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 권능과 권세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가르침, 2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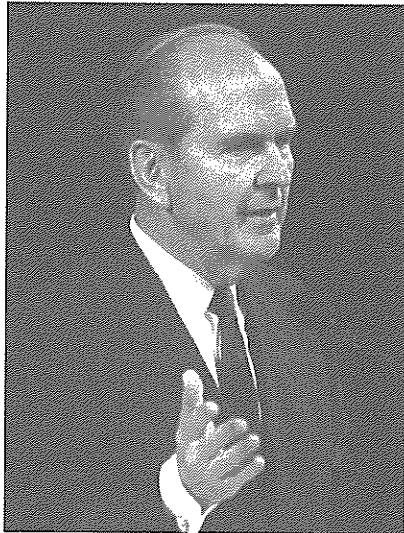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날

주님의 예언자이며 우리의 대관장으로 계신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분의 사랑과 인사와 축복을 전해 드리며, 그분께 우리의 사랑과 충성심과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분을 축복하시고 안위하시고 지지하시며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시기를 온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돌려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벤슨 대관장님은 주님께서 세월을 두고 만국의 예언자며 우리의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지지하신 예언자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러셀 엠 벨슨 장로
십이사도 정인회

“교육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보다 개인의 열망이 더 중요하며, 어떤 교수에게서 배우느냐보다 개인의 신앙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 늘 저는 오래 전에 읊이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라고 한 질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교육은 지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개척자들은 일리노이에서 성전 건립을 시작하고 얼마 안되어 나부 시립 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대관장단은 이 대학이 세워짐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모든 지식과 학식과 예술과 과학 및 전문 직업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개척자들이 박해를 피해 대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들어온 이후에도 같은 일이 되따랐습니다.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1850년 2월 28일, 그들은 데저레트 주립 대학을 세웠으며, 후에 몇 개의 학교가 더 세워졌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회원들이 전세계적으로 8백만 명이 넘어감에 따라 교회가 비 종교적인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으나, 여전히 우리는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경전은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라”(교리와 성약 93:36)라고 가르치며, 또한 개인의 예지들이 “창세 이전에 조직”(아브라함서 3:22)되었고,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예지 곧 진리의 빛은 창조되거나 지음을 받지 아니하였나니, 참으로 그러할 수는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93:29)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개인의 예지는 영원하고 신성합니다. 저는 토마스 제퍼슨이 인간의 영혼의 존엄성을 느끼고 “나는 하나님의 계단 위에서,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는 온갖 형태의 폭정에 끝까지 대적하겠다.”라고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추구함

인간 지능의 성스러운 속성으로 인해, 우리는 교육을 받는 것을 종교적인 책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기회나 능력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교육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보다 개인의 열망이 더 중요하며, 어떤 교수에게 배우느냐보다 개인의 신앙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자녀들이 어디에서건 자신들을 교육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참으로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교리와 성약 88:118)라고 명하셨으며, 이 세상에서 얻은 지식이 모두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30:18~19).

이 해의 왕국의 표준으로 판단해 볼 때, 충동적으로 학교를 그만두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무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잠재 능력을 성취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래 전 제가 사회적으로 체 훈련이 되지 않은 10대 시절 어느 크리스마스 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가졌던 것이 기억납니다. 일은 단조로웠으며, 시간은 무척 더디게 지나갔습니다. 그 때 그곳에서 저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교육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남아 마치 교육에 제 인생이 걸려 있는 것처럼 교육을 위해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에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할 때, 저는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교육을 추구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는 데에는 몇 년이 걸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는 대학 과정이 4년, 그리고 의대 과정이 4년이 걸리며, 전문의가 되려면 본인의 노력에 따라 5년이나 그 이상이 걸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 모두 합쳐 13년이나 혹은 그 이상이 걸리는데, 제게는 너무 깁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형제님이 생애 동안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경력을 쌓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육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3년 후에는 몇 살이 되겠습니까? 원하는 사람이 되든 안되든 나이는 똑같이 먹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있고, 관심이 무엇이며,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든 교육을 계속받아서 가족과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할 것을 결정하도록 권고합니다.

불균형도 경계함

무엇을 배우고 누구의 목적을 위해 봉사할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지적인 달걀을 세속적인 학문의 바구니에 넣지 마십시오. 물론경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 악마의 간교한 꾀여, 오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나약함과 헛됨이며, 저들이 학식을 얻으매 스스로 현명하다 생각하여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고 옆으로 밀어 내며, 저들이 스스로 아는 뜻이 여기나니, 저들의 지혜가 어리석도다. 저들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나니 저들은 필경 멸망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고를 따를진대, 학식을 얻음이 유익할 것이나,”
(니파이이서 9:28~29)

이 구절은 지치지 않고 일하며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얻어진 교훈을 통하여 부를 얻게 되었다고 자만하던 한 친구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부를 얻기 위해 영적인 발전을 희생하였습니다. 나중에 성공의 사다리를 그릇된 담에 걸쳐 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창조주께서 주신 다음 가르침을 알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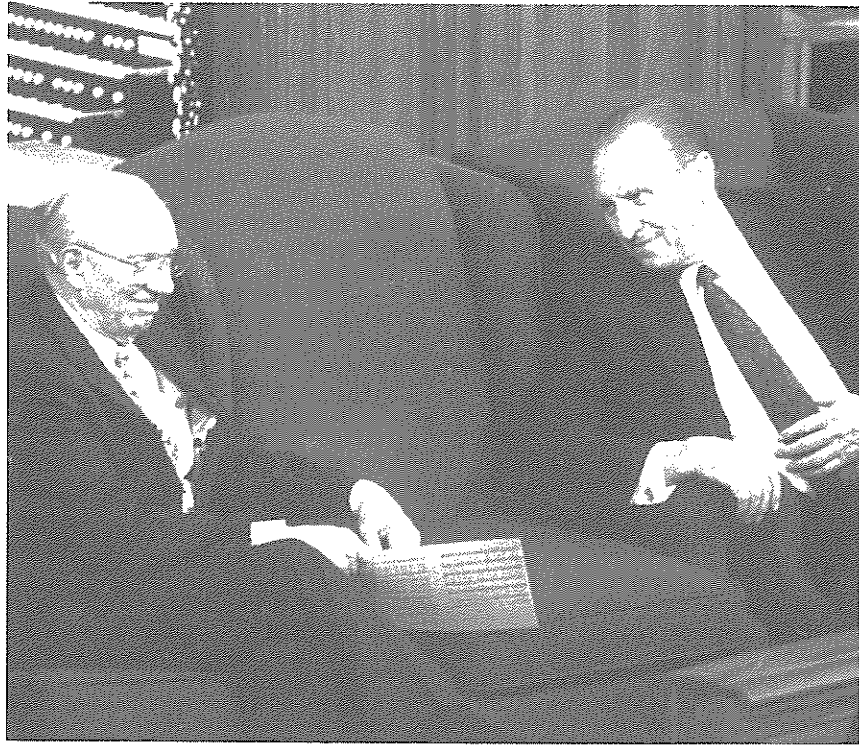
“재물을 구할 것이 아니요 다만 지혜를 구해야 하느니라. 보라,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너희에게 알려지리니, 그리하면 부한 자가 되리라. 보라, 영생을 가진 자 그가 곧 부자니라.”(교리와 성약 6:7, 11:7 참조)

지난 오랜 역사 동안 인간이 경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겪었던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같은 무지함으로 인해 심히 비극적인 고통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 한 예로 전염병에 관한 사례를 인용하겠습니다.

19세기에 의로게 종사자들과 여러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이 눈에 보이는 뽀얀 탄화 수소때문이 아니라 거의 모든 전염병의 원인으로 생각된 보이지 않는 독기 때문에 대기 오염을 염려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1867년에 리스터 경은 나쁜 공기를 병을 전염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비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1869년에 에딘버러의 심슨은 병원을 수년마다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그같은 지나친 주장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크리미아 전쟁에서의 영웅적인 노력으로 유명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조차도 수술 후 사망의 40%가 상처를 통한 감염 때문이라는 자신의 주의깊은 기록에도 불구하고 환자들 사이의 감염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역시 그러한 감염 원인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수 세기 동안 해아릴 수 없이 많은 산모와 신생아들이 출산을 도운 사람의 잘 씻지 않은 손으로 말미암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되어 태열로 목숨을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편담을 나누고 있는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일반적으로 두분 사이에 애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이 앉지만 노환으로 공식 석상에 나오지 못했다.

잃어갔습니다.

코흐와 파스퇴르와 또 다른 사람들이 병은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오염된 체액이나 감염된 분비물 중의 박테리아로 인해 전염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은 불과 몇 세기 전의 일입니다.

이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떠올리며 오래 전에 레위기 15장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레위기 15:1~5, 7)

이같은 중요한 원리를 재강조하는 구절이 몇 구절 계속된 후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읽을 수 있습니다.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13절)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3,000년보다 더 이전에 감염된 환자를 청결하게 다루는 방법에 관한 원리를 분명하게 밝혀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경전 구절은 현대 의학의 원리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지난 수 천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영문도 모르는 채 죽어갔습니까? 인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지식을 얻지 못한 때문으로 얼마나 많은 어린이가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오늘날의 도전

오늘날 우리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낯선 도전이며 어떤 것은 현대적으로 보이지만 오래된 도전입니다. 바울의 서한에는 우리 시대에 관한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들은 꼭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교활한 특성들이 계속됨]...”

“무정하게...”

“백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항상 배어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디모데후서 3:1~5, 7)

바울은 배도와 우리 시대의 다른 위협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 중 어떤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상반되며 또 도덕적이라기보다는 유능하고 지혜롭다기보다는 지성적인 사람들이 설득력있게 옹호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킵니다. 성경은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고 선포합니다(잠언 12:15). 참으로 사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흔히 정직이라는 가면을 씁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집을 똑바로고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는 굵은 판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운명을 건설하기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계시를 막는 왜곡된 가르침에 의존해서도 안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경은 다음과 같은 주의와 희망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주께 권고하려 하지 말고 주의 훈계를 따를지니, 보라 너희가 이미 스스로 알고 있으려니와 주는 지혜와 공의와 크신 자비로써 주의 모든 일을 다스리시니라.”(야곱서 4:10)

신성한 가르침을 무시한 무서운 대가를 기억하십시오, 바로 지금 이 세기가 시작될 때까지 마치 아무도 레위기 15장을 읽지 않았고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않은 것처럼 병의 전염은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증가되는 HIV 감염(인체 면역 억제 바이러스)과 이와 유사한 바이러스, 또한 이에 따르는 AIDS(후천성 면역 결핍증)를 매우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견되어 왔던 전염병은 공중의 보건보다 인권을 더 염려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증가되었으며 부도덕으로

인해 촉진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순결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면제받은 것처럼 부도덕하게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유감스럽게도 이전의 전염병처럼 많은 무고한 희생자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담배가 “사람에게 좋지”(교리와 성약 89:8) 아니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개의치 않은 결과로 피할 수도 있는 죽음과 증폭된 재정적 부담이 전세계적으로 초래되고 있습니다. 알코올과 약물 복용, 도박, 분쟁, 가족 유대의 약화와 같은 것들이 다른 많은 사회적 문제로 열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알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적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식에서 잃어버린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보에서 잃어버린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를 찾음

지혜는 모든 나라와 지역과 대륙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신성한 빛인 순수한 예지 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빛이 암흑 속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비치리니, 이 빛은 나의 충만한 복음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45:28)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들이 빛을 깨닫지 못함이요, 인간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내게서 돌이키는 연고니라...”

“그 세대에 사람들이 있어 자기들을 휩쓸어 가는 징벌을 보기까지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황폐케 하는 질병이 땅을 뒤덮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의 제자들은 거룩한 곳에서 있어 움직이지 아니하려니와 악인 중에는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는 자들도 있으리라

“각 처에 지진과 많은 황폐가 있으리라.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내게 대적하며.”(교리와 성약 45:29, 31~33; 87:6 참조)

그런 고통스러운 혼돈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은 세상의 희망으로서 밝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와 회원들은 담대히 그 빛을 선포합니다. 전세계의

현명한 학생들은 그 빛에 주의를 기울이고 교회 세미나리와 신학원 과정을 밝음으로써 더욱 풍부한 교육을 받습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도 그분의 지혜를 감추지 않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하나님께 구하라”(야고보서 1:5)

저는 욕이 제기한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욥기 28:12)라는 질문을 되풀이합니다. 답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인간을 가르치리다. 내 교훈을 귀담아 듣고 내 권고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니, 받아 들이는 자에게는 더하여주며”(니파이이서 28:30)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증가할 때 신성한 지혜와 빛이 지속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빛이라. 빛을 받아 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받은 빛이 더욱 밝아지고 점점 더 밝아져서 드디어는 대낮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50:24; 88:67 참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리와 빛을 받아 드디어 진리로 영광을 얻으며 모든 것을 알게 되느니라.”(교리와 성약 9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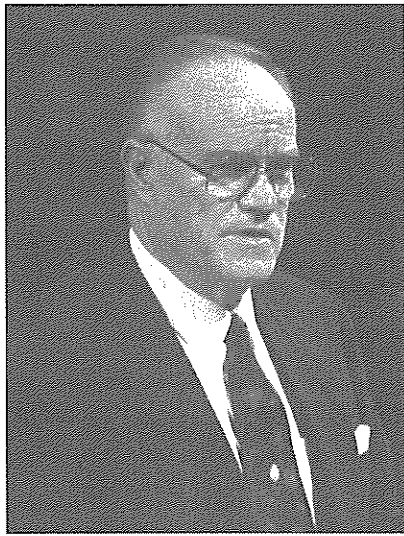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진리의 빛과 함께 고통치며 넘쳐흐릅니다! 그 빛으로 주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님의 말씀의 권세로 저들은 감옥을 깨뜨려”

제임즈 엠 페러모어 장로
칠십인 회장단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개인의 감옥 문을 열어 오셨으며 앞으로도 열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최근 2, 3년 동안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무엇이 관해
말씀드려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왔습니다. 예언자 몰몬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의 권세로 저들은 감옥을
깨뜨”(몰몬서 8:24)렸다고 말합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빅토르 위고의
소설 **불행한 사람**에 나오는 장발장에
관한 이야기와 로이드 시 더글라스의
소설 **멋진 망상**에 나오는 붐 메릭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시대와 상황 및 사는 정도는
많이 다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저는 장발장이 기아에 허덕이는
가족을 위해 빵 한조각을 훔친 조그만
죄 때문에 감옥에서 19년 동안을 지내는
호된 시련을 겪은 것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심지어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도 많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붐 메릭이 스스로에게 가하는 고통에

관해 생각할 때에도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붐 메릭은 고집스런 행위와 이기심과
자만심과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태도
때문에 한 유명한 외과 의사로서의 삶을
잃고,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훌륭한 작품들은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저는 이것을 통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새우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만들도록 하는 여러 형태의 감옥에 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형태의 굴레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가두고 있던 감옥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자유를 찾은 느낌이
어떠하셨습니까? 그것이 어떤 형태의
감옥이건 감옥에서 풀려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41년 전 유럽에서 두 명의
적군에 의해 강제로 감금되어 있던
기차에서 새벽 2시에 풀려났을 때의
느낌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옥살과
고문을 당했으며, 가족과 고국을 다시는
못보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갇혀 있던
시간이 하루도 채 안되었지만, 저에게는
마치 영원과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기차에 옮겨 타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자 하나님께 더없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유로워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승무원과 이야기를
하던 중 아직도 갇혀 있는 사람이 수백
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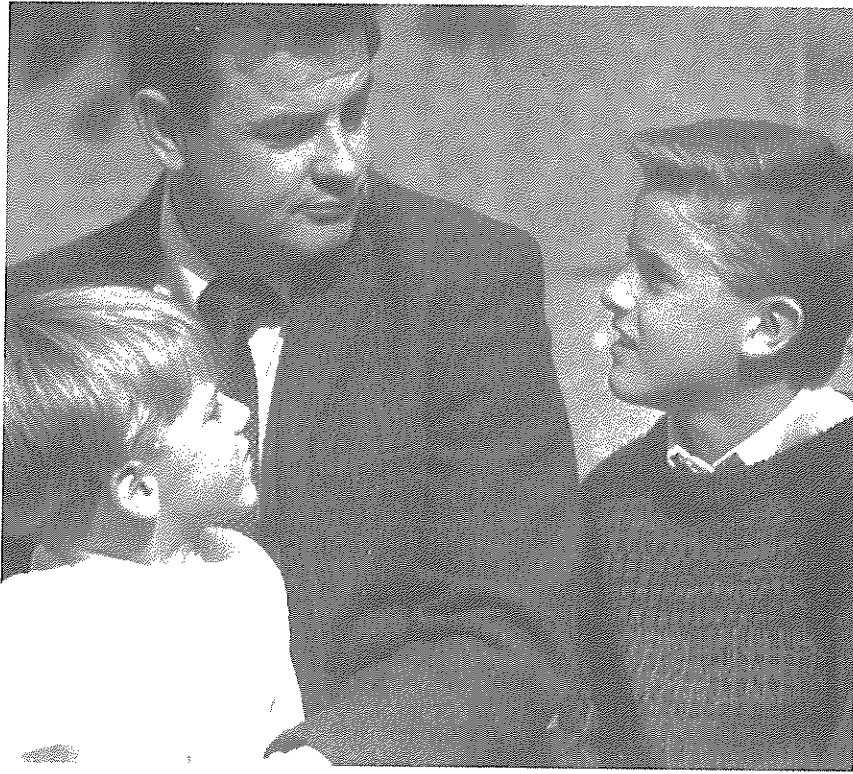
그러자 저는 여러 가지 유형의
감옥에서 우리를 구해 내시어 용서와
새로운 생활과 영과 변화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과, 또한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위안과

성취를 찾는지에 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과 또한
그분께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과정이
따르는 회생을 통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축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스스로 만든
감옥으로 들어갈 경우에도 주님은
우리를 가두고 있는 감옥 문을 열도록
열쇠를 갖고 그곳에서 계십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풀어 줄 열쇠를 나누어
주고, 장발장과 붐 메릭을 석방시켜
주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자유를 얻도록
도왔던 두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깊이 염려함으로써 때때로 다른 사람과
신뢰 관계를 재구축하며 남을 돕는
사람들에 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육체적인 속박이나 감옥도 견디기
힘들지만, 이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속박이나 감옥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교묘하며 생활 속에서 다음과 같이 여러
형태를 취합니다. (1)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 (2) 이익을 위해 거짓
증거한다. (3)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옹호하지 않는다. (4) 다른 사람의
도덕성을 파괴시킨다. (5) 어린이의
순진성을 파괴한다. (6) 술과 마약을
남용한다. (7) 다른 사람을 때릴 함정을
파서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그들의 필요
사항 등을 돌보는 능력을 파괴한다.
세상에는 우리의 죄나 “악마의 권세와
속박에 매여”(니파이서 2:27)
저지르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생겨난
감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옥에 대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언자 욥은 “벗을
매매”(욥기 6:27)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권고한다. 이 말씀은 사업상 교제하는
사람이나 이웃 또는 교회 회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수년 전에 한 훌륭한 젊은이의 사업이
변창하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사업을 일으키기 위한 기술과 명성과
지식을 쌓고 또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수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는
일을 사랑했으며, 매일 아침 창조적인
능력과 기회를 살려 새로운 계획을 세워
나갔습니다. 큰 희망과 많은 계획으로
가득 찬 훌륭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요한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많은 돈이 지불될 것이 예상되었으나, 한



교활한 사업가가 제 친구에게 그 계획에 필요한 수정을 하도록 요청해 놓고, 구두로 한 약속은 쉽게 깨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수정 요청에 관해 서면으로 된 기록은 없었습니다. 구두로 약속을 하긴 했어도 가능한 한 싸게 하는 것이 “훌륭한 사업”이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두로 한 약속은 깨지고 말았으며, 약속한 돈은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스스로 만든 두 가지 종류의 감옥이 있습니다. 교활한 사업가가 만든 속임수의 감옥과, 신용을 지킬 수 없게 된 속은 사람의 감옥이 그것입니다. 그 속은 사람은 그후 다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감옥에서 나오려고 오늘날까지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 인간에 대한 신뢰심을 잃었으며, 또한 그와 그의 가족은 기회와 사업을 잃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예언자 모세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출애굽기 22:5)

이런 유형의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며, 제 젊은 친구의 경우처럼, 당한 사람이 신앙과 희망과 심지어 자신을 돌보는 능력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고통은 매우 오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은 그 일을 정직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의와 자비에 대해 의심하게 됩니다.

구세주로부터 배운 교훈은 이러한 행동과는 크게 다릅니다. 주님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마태복음 7:12, 니파이삼서 14:12 참조) 주님은 “너희가 빛을 청산함은 나의 뜻이라.”(교리와 성약 104:78) 그렇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빛을 갠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많은 미망인과 홀로된 어머니와 노인 부부들이 그들을 이용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일종의 감옥에 가두는 일로 인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희생자들은 어린 자녀들이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 달라고 우는 가운데, 누군가 감옥 문을 열어 줄 것을 탄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과 성약을 맺을 때, 결코 다른 사람에게 감옥을 만들어 주지 않고 오히려 갇혀 있는 사람들을 풀어 주겠다고 성약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한 뒤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믿는 것과 옷을 입는 태도가 바뀌었으며, 열심히 일하고 주인을 존경하며 읽는 책과 보는 영화 내용도 바뀌었고 모든 사람과 금전 거래를 정직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자세 등도 변했다고 말한 어느 형제와 같이 됩니다. 그 형제는 자신을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세를 굳게 믿었으며, 그로 인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요한복음 8:36)

오래 전, 제가 아는 한 사람이 20년 이상 알콜에 심하게 중독되어 매일 술에 취해 살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 일을 마치면 술을 사가지고 교외로 차를 몰고 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할 지경이 될 때까지 마셨습니다. 그는 분명 악령에 사로잡혀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충실한 가정 복음 교사가 이 형제를 사랑하고 자주 만나서 그에게 기도하도록 권고하고 그를 위해 자주 기도했습니다. 어느날 그 형제는 다른 날처럼 술을 먹기 위해 픽업 트럭을 몰고 교외로 나가다가 어떤 강력한 힘에 끌려 차를 세우고 숲속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후일 그 형제는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니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갇혀 있던 감옥에서 석방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의 소망을 아시고는 그를 가두고 있던 감옥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개인의 감옥 문을 열어 오셨으며 앞으로도 열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 갇혀 있던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스런 약속입니다.

분명, 말일성도는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행함으로써 받은 자유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한 약속은 구속력이 있고 존중할 만합니다. 그는

생활을 통해 구세주와 그분의 예언자의 입에서 나온 모든 원리와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간증하게 됩니다. 이 기본 원리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우리는 진실로 자유롭게 되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장발장에게 한 아름답고도 심오한 말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님은 이제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시는 것은 형제님의 영혼입니다. 이제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빅토르 위고, *불행한 사람*, 제1권 12장) 저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더욱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으며, 끝은 길을 걸으시고 그 길을 가르치셨으며 인류를 해방시키시려고 문을 열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32) 작가인 더글라스씨는 이것에 관해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말로 표현했습니다. “일단 그 길을 찾으면, 그곳에 머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인간을 사로잡는 - 정말 훌륭한 그물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미대륙에 나타나신 지 200년이 지난 후에도 그리스도를 따랐던 성도들에게 일어난 다음 내용을 보면 그 일이 성공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저들에게로 와서 저희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성신을 받았느니라.

“...백성들 간에 다툼이나 불화가 없었으며 사람들이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더라.

“또한 저들은 저들의 온갖 소유를 공유하였던지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속박된 자나 의로운 자의 구별 없이 모두 자유로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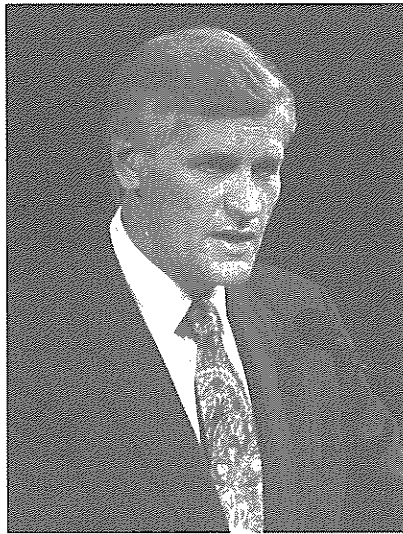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인간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없었으니.”(니파이사서 1:1~3, 16)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세로 저들은 감옥을 깨뜨”(물몬서 8:24) 렸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자유와 축복이 기다리는 곳을 향해 굳게 결심하고 살게 되기를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영적인 거듭남

클렌 엘 페이스 감독
칠십인 정원회

“이제까지 성취되어 온 모든 예언들을 고려해 볼 때, “나를 포함시키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어떤 더 큰 사건을 기다리겠습니까?”



어렸을 때 저는 지나칠 정도로 누님께 의지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식성이 까다로워서 할머니 댁에 방문하면 음식이 나올 때마다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곤란을 덜 당하기 위해 음식이 제 앞에 오면 누님을 쳐다보며, “누나, 나 이 음식 좋아해?”하고 물었습니다. 누님은 보기에 제가 좋아하지 않은 음식이면, “개는 그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음을 놓고, “누나가 맞아요, 할머니. 전 그 음식 좋아하지 않아요.”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전에 먹어 보지 못한 새로운 음식이면, 누님은 “잠깐만요”하고 맛을 본 다음 제가 좋아하는지 아닌지 말해 주었습니다. 누님이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저는 아무리 권해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의 미각에 의지하고, 누님이 그저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해서 거절할 나이는 지났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자신의 간증으로 만찬을 취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간증은 교회가 참되다고 아는 것보다는 훨씬 깊은 간증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교회에 충실하다고 믿는 데까지 발전해야 하며, 또한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간증을 받아들이는 것과, 여러분에게 허락된 계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영적인 확신을 키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주는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앞을 향해 천천히 달리고 있는 교회라는 기차를 탄 승객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차창 밖을 내다보면서, “밖은 재미 있어 보이는데, 이 기차는 규율이 너무 심해.”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뛰어 내려, 잠시 동안 숲속에서 놀니다. 그러다가 조만간에 그것이 루시퍼가 계획했던 것만큼 재미 없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또는 심하게 다쳐서 다시 길을 따라 돌아와서 기차가 저만큼 앞서 가는 것을 봅니다. 결심을 하고 기차를 따라잡기 위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숨을 헐떡거리고 달리며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기차 안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또한 밖에 있는 몇몇 회원들이 웃고 즐기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내리라고 하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철로 위에 통나무와 바위를 놓아 기차를 탈선시키려고까지 합니다. 어떤 회원들은 기차를 따라 달리느라, 숲속에서 놀지도 못하고 기차에 오르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서서 달리려고 하다가 길을 잘못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마음이 내키면 기차에



올라타고 내키지 않으면 내릴 수 있는 때는 지났다고 봅니다. 기차가 점차 속도를 내고 있고, 숲속이 너무 위험해져 가고 있으며, 안개와 어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기차를 탈선시키기보다는 “연약한 팔을 펴서... 수로를 따라 흐르는 미주리 강의 흐름을 막아 이를 되돌려”(교리와 성약 121:33)보내는 것이 쉽지만, 그래도 회원 개개인을 유혹하는 데에는 가끔씩 성공을 거둡니다. 이제까지 성취되어 온 모든 예언들을 고려해 볼 때, “나를 포함시키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어떤 더 큰 사건을 기다리겠습니까? 기차에 올라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머물기 전에 무엇을 더 보고 경험해야 하겠습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거둬낼 때입니다. 우리 마음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스스로의 빛을 다시 밝힐 때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성도들이 피해야 할 한 가지 결점은 빌어 온 빛으로 살려는 경향, 원래의 빛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 있는 빛을 반사하여 보려는 경향입니다.” (복음 교리, 87쪽)

온 세상이 동요하고 있는 듯합니다. 신문과 방송에도 큰 기근과 소요 사태 및 천재 지변에 관한 기사가 가득합니다. 장기적인 면에서 더욱 파괴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영적인 태풍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폭풍은 세상 곳곳에서 도덕적인 표준을 날려 보내며, 땅에서 도덕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태풍에 전혀 주의의 기울이지 않아 그 미풍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물론경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그 주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평화로운 날에는 나의 훈계를 가벼이 여기더니 환난의 날에는 부득이 나를 찾는도다.”(교리와 성약 101:8)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난 시대에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잡아서 깨우시기 위해 경종을 울린다고 해서 크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니파이는 할라맨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주가 이 백성들을 고난으로 [징계하지 아니하시면] 저들이 결코 주를 기억하지 아니하나니”(할라맨서 12:3) 이 경론의 시대에도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은 순종을 배우기까지 필요하면 저들이 겪는 고난으로 징계받아야만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105:6)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놀라기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놀랄 때가 아니라 단단히 준비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코앞에 닥친 일을 대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다시 기본적인 것들로 돌아가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을

하게 되면 복음의 첫째 원리를 따르게 되고, 구세주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어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뒤, 성신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전을 읽고 상고하며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울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과 복음을 나누며, 장막 저편으로 간 분들이 구원의 의식을 받도록 해줍니다.

이 대회 기간 및 다른 많은 경우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예언자요 선견자며 계시자로 기름 부으신 종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없는 왕국에 관한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총관리 역원들을 따르며,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충실한다면 이 엔다우먼트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세상의 죄를 극복하고 “거룩한 곳에서”(교리와 성약 45:32) 있도록 힘을 더해 주게 됩니다.

저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간청합니다. 나중에 회개하겠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 힘을 다해 순종한다면 더욱 안전하며 영원히 행복해질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미래에 있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련과 역경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재난과 역경은 악인을 벌하기 위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의로운 사람들의 성취욕을 위해 주어지는 수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초기 회원들이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충실하였던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분들이 영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장애물을 성공적으로 뛰어 넘었는지, 아니면 장애에 부딪혔기 때문에 영적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역경이라는 황금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 고통스런 친구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해서 구세주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확신을 얻기 위하여 밤을 새우고 다음날까지, 어떤 때는 몇 주일이나 몇 개월 동안 간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오듯이, 우리가 계속 참되고 충실하면, 이 이상한 친구인 역경은 우리를 두 팔을 활짝

피신 구세주의 품으로 곧장 인도해 갑니다.

저는 왜 우리가 주님과 이같은 관계를 맺기 이전에 역경을 겪어야만 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간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작고 조용한 음성"을 듣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숨겨진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세상 것이 아닌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 초점을 맞추는 데 역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세주께서도 고통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누가는 주님이 켓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누가복음 22:44)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종이 울리는 것을 듣지 않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일단 위를 향해 돌아선 상태에서 계속 순종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잠잠해지면 계속해서 강한 간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때로는 오랫동안 지상의 왕국을 맛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이라면 평생 동안 더없는 기쁨속에 머물 수 만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듯합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니파이이서 2:11)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점점 더 순종하는 가운데 영적인 활력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깊이를 더해 감으로써, 오늘날의 역경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넓은 시야를 얻고 내일을 위해 필요한 힘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동요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완전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회복이 있는 이후로 가장 위대하고 흥미있는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국을 건설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간청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일을 할 기회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황금의 시기

로버트 엘 백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명예 회원

"저는 노인 부부들이 계속해서 이웃에게 봉사하는 훌륭한 기회를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14년 전, 저는 이 연단에 서서 칠십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도 축복된 만족스러운 날들을 보내 왔습니다.

이 대회에서 저는 명예 총관리 역원이 됩니다. 저의 생산적인 결실을 거두는 생활이 끝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며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 모로 생각해 봅니다. 저는 늙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정신은 아직도 꽤나 맑은 상태며, 육신도 제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친은 94세에 별세하셨으며, 어머니는 95세이신데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고만 당하지 않는다면 아마 최소한 25년은 더 살 것입니다.

저는 소위 "70에 죽었으나 8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묻히는" 은퇴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세주의

생애중 12세부터 성역을 시작하실 때까지에 관한 기사는 단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에게 말씀할 때 이 구절을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머지 사람들, 특히 은퇴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누가복음 2:52)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말씀은 구세주께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으로 성장하셨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본보기입니까?

육체적으로 성장함

물론 인간의 육체는 점차 늙어갑니다. 그것은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적당한 운동과 건강식과 매일 육체를 가꾸는 것을 통해 최선을 다해 건강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100세까지 수명을 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산책을 하셨던 조셉 앤더슨 장로님이나 94세이면서도 아직도 라켓볼을 치시는 밀트 백맨 삼촌을 닮고 싶습니다.

정신적으로 성장함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신체의 근육만큼이나 가꾸어야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훌륭한 이웃이며 81세에 브리감 영 대학교를 졸업한 페리스 켄슨과, 남편이 작고한 뒤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의 부인이신 에밀리아 맥콩키 자매님의 모범을 따르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피아노 레슨을 시작했으며, 오래 살 수만 있다면 컴퓨터를 마스터 할 계획입니다.



사회적으로 성장함

우리에게는 이웃을 섬길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훌륭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을 갈구합니다. 은퇴한 사람들이 자진해서 돕지 않는다면 우리의 도시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면 로웰 비니언이 평생 동안 행했으며, 특히 은퇴한 후 더 열심히 행했던 것과 같은 선행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로웰은 “지극히 작은 자들”(마태복음 25:40)을 도움으로써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함

제가 은퇴하면서 직면하는 한 가지 위험은 세상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은퇴한 사람들은 마치 사회가 “당신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듯이 스스로 위축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우리를 계속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온갖 경험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오래 계속되는 행복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이해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가능한 모든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은퇴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진보를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끝까지 견딜 것을 요구합니다.

견디다라는 말에는 흥미로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고통과 동격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견디다라는 말이 “굳게 하다. 강화시키다, 지속시키다”를 뜻하는 라틴어 *인두라레(indurare)*에서 파생된 것을 알고 흥미로웠습니다. *랜덤 하우스 사전*에 나오는 견디다라는 말의 정의 또한 흥미롭습니다. 거기에는 견디다를 “가치 있고 유익하며 훌륭한 것으로 계속해서 인식하거나 인정하다”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경험했던 천상의 기쁨을 생각하면, 이 풍부한 영적인 모험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물론 제가 계속해서 봉사할 기회를 받아들인다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선교 사업에 깊이 관여하면서 노인 부부들이 계속해서 이웃에게 봉사하는 훌륭한 기회를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신을 잊고 중요한 선교 사업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복음에 몰두하는 데서 오는 규율과 헌신에 충실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을 나누는 가운데 성취감을 맛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한 뒤 스페인 선교부에서 훌륭하게 봉사한 로이스 플란드로와 그의 아내가 생각납니다. 귀환한 뒤, 그들은 선교사 시절에 겪었던 아름다운 경험이 그리워서 선교사 부서로 찾아와, 어디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헝가리어를 배우라는 제의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몇 개월 뒤, 그들은 헝가리로 부름받고 다시 한 번 훌륭히 봉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락한 가정*을 떠나기를 두려워해서 생의 가장 훌륭한 모험을 놓치고 맙니다.

해롤드 쉘웨이 형제 부부는 피지와 아일랜드, 남아프리카, 이스라엘, 영국, 캘리포니아 등에서 봉사했으며, 지금은 플로리다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봉사하겠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가 배운 선행과 그들이 받은 축복을 누가 감히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선교사 부서에 미주리주 인디펜던스 선교부를 관리하고 있는 토마스 알 머레이 선교부장이 로날드 스미스 장로 부부의 선교 사업에 관한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스미스 장로 부부는 네브라스카주 네브라스카 시에 있는 안락한 가정을 떠나 18명을 침례하였으며, 두 와드에서 많은 비활동 회원들을 활성화시키고,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 신문에 기사를 실기도 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눈에 띄게 봉사했으며, 소년단 프로그램을 촉진시키고, 와드 지도력을 강화시키고 우정 증진과 교우 관계를 위해 노력했으며, 지역 사회 내에서 교회 홍보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스미스 장로 부부가 어디에서 이보다 더 생산적이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겠으며, 이보다 더 훌륭하게 봉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이 늙으면 언어를 배울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전혀 모르는 가운데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와서 2개월 후에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떠나는 부부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랑을 가지고 임지에서 봉사하면서 선교 사업에 관한 기술도 향상됩니다. 설혹 새로운 언어가 어렵다고 해도, 노인 부부들은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선교부에서 특별한 봉사를 합니다. 경험이 적은 회원들을 강화시키는 데, 그분들의 경험과 모범과 신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분들은 전세계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성장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사람들입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선교부에서 동남아시아인들 사이에서 봉사하는 훌륭한 부부 선교사를 만났던 일이 생각납니다. 이 부부 선교사와 사랑스런 새로운 말일성도들 사이에 맺어진 유대감을 보고, 제가 그 자매님에게 그나라 말을 할 줄 아느냐고 묻자, 그 자매는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화하냐고 묻자, 자매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냥 사랑하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난 14년 동안 많은 경험을 했으나, 이제 앞에 놓여 있는 과제에 기대가 갑니다. 새로운 경험과 모험과 새로운 영역, 정복해야 할 새로운

세상과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으로 성장할 새로운 기회가 기대됩니다. 오늘부터 제 생활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하고 간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데 온 정력을 쏟아, 이 유용하고 생산적인 삶이 끝날 때, 바울과 함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디모데후서 4:7~8)라고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1978년에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으며, 그후로 선택받은 경험을 한 후로 제게 더 깊은 의미를 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교회의 회원이 되고(저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알며(물론 저는 알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거룩한 신권을 소유하며(저도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가족에 속하는 것(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더 영광을 받고, 누구보다도 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려온 거룩한 부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 생을 모두 바쳐 오직 주님께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 기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에 대해 간증하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들여 참여한 일에서 제가 살아오며 받은 모든 축복과, 가슴속에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간직했던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와 제 사랑하는 아내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더라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쓰이는 도구가 되어 여러분의 훌륭한 임무를 돕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며, 이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도록 도와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저는 세상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도록 준비시킬 수 있기를 기도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보라 주님께서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내게 보이셨으니”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더 많이 주어진 적은 없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경전을 다음과 같이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경전을 마치 천 년, 이천 년, 혹은 오천 년 전에 자신이 직접 쓴 것처럼 생각하며 읽고 계십니까?” 그것을 쓴 사람들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있다고 상상하며 읽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럼으로써 일상 생활과 대화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영과 그 의미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의 설교집, 존 에이 윌스 편,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54년, 128쪽)

물론경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훈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경은 참으로 큰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모두 브리감 영 대관장님의 권고대로 니파이인의 마지막 위대한 예언자였던 모로나이가 서 있던 곳에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가 부친에게 받은 과제는 그에게 맡겨진 기록을 완성시키는 것으로서,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한 기사를 적는 일은 무척이나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모두 멸망당할 때까지 레이맨인들에게 추적당하는 상황을 묘사하기가 모로나이에겐 무척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고속속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자신의 부친도 속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모로나이가 살아 있는 이유는 오직 기록을 완성시키기 위함임을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록하여 이를 땅에 감출 것이요, 내가 어디로 가게 되든지 상관치 아니하리다.”(물몬서 8:4)

모로나이가 지닌 신앙은 오직 그가 기록을 완성할 때까지는 주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며, 이 기록이 언젠가는 주님이 택하신 자에 의해 발견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모로나이는 그 기록이 장차 올 세대에게, 그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배척할 경우 그에 대한 경고의 음성이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장차 이 기록을 받게 될 사람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로나이는 자신의 기록을 읽는 사람을 불순종으로 인한 슬픔과 불행으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모로나이는 먼저 교회 회원에게 말하며, 그런 다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모로나이가 교회 회원에게 준 마지막 말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는 미래에도 그의 백성들과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보며 기록합니다. 물론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님께서 속히 있을 일에 관하여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날에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나타나 보이리라.

“보라 너희가 아직 내 앞에 있지 아니하나 나는 마치 너희가 내 앞에 있는 듯이 말하는도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내게 보이신지라 내가 너희의 행함을 아는도다.

“그러하여 나는 너희가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며 마음에 부푼 교만으로 인하여 화려한 옷을 입으며 시기하며, 다투며 남을 원망하며, 꾀박하며 온갖 간악한 것을 행하지 않는 자가 극히 적으리라는 것을 알며, 참으로 너희 교회에 속한 자가 모두 마음의 교만으로 인하여 부패함을 아는도다.

“보라 이는 너희가 금전을 사랑하며 재물을 사랑하며 화려한 의복을 사랑하며 교회의 장식을 사랑하기를, 가난하여 궁핍하며 병들고 고난받는 자들을 사랑하기 보다 더하는 때문이다.

“오 너희 부패한 자들아, 썩을 것을 위하여 너희 스스로를 판 위선자, 너희 교사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스러운 교회를 더럽혔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그치지 아니하는 비참함보다 끝없는 행복이 더 소중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세상의 명예로 인함이나?”(물론서 8:34~38)

저는 인간의 가장 큰 신비 중의 한 가지는 ‘왜 인류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의 참된 추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처럼 자주 세상의 유혹에 제물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정하신 길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 관한 아주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최근 몇몇 대중 매체와 경제 신문에는 유타주의 성공에 관한 기사가 실렸는데, 이곳은 아직 교회 회원들이 대부분인 주입니다. 그 중 한 기사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높은 표준을 지닌”(뉴욕 타임즈, 1991년 9월 15일, 1면) 성공적인 미국사의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또 한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만일 종교가 칼 막스의 주장대로 사람들에게 마약이 된다면, 유타주에서는 각성제가 된다고 하겠다. 유타주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영향력에 힘입어 근접한 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

(타임, 1991년 7월 29일, 22쪽)

비즈니스 위크지에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선두에 선 유타주, 유타주는 50개 주 가운데 문맹률이 가장 낮으며, 젊은이의 비율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도 가장 높으며, 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9위이다. 그리고 교육 기간의 평균치도 미국내에서 가장 높고 출생률도 가장 높으며, 사망률은 최저이고 평균 수명은 네번째이다. 또한 암 발병률이 가장 낮은 3개 주에 속하며, 심장 질병의 발병률과 술 소비량 및 흡연 인구의 비율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밖에 평균 입원 기간이 가장 짧으며, 건강할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가장 잘 운영되는 주 정부이다.”(비즈니스 위크, 1991년 12월 16일 118쪽)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것과 언급되고 있지 않은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앞에서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전체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일은 유타주 주민들이 함께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공동체로서, 우리는 세상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한 개인으로서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인한 분열과 억제되지 않은 개인주의와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러한 모든 특별한 관심을 편안한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의 호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많은 회원들이 지금까지 주어진 주님의 예언자들의 말씀과는 반대로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회원들이 아름다운 복장과 집의 크기와 자동차 및 자동차 장식품에 관심을 갖기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일보다 더 중요시합니다. 또한 낙태와 도박 및 외설 문학이 합법화되는 위협과, 대중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지역 사회에서 성도들을 함께 묶어

주는 가치관을 해치는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 회원들은 이 말일에 분명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가르침을 대항해 분명히 일어서서 우리의 특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 각자가 신님을 굳게 지킬 것을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거슬리는 길을 걷는 자녀들의 머리 위로 퍼부으실 회오리 바람같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로나이의 경고에 유의해서 그의 백성들과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로나이의 경고에 유의해서 그의 백성들과 같은 멸망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모로나이가 품고 있었던 것과 같은 생각이 또한 신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새로운 소망으로 승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로나이는 또한 사람들이 복음 교리에 마음을 두지 않을 때 찾아오는 불신앙으로 인해 나약해지고 멸망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경고한 후, 그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간청합니다. 물론서 9장 1절부터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또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관하여 말하노니,

“보라 너희는 주가 임하시는 날에 믿으려니와 보라, 주가 오시는 날에 곧, 땅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만물이 뜨거운 열로 녹아 내리며 너희가 하나님의 어린양 앞에 끌려 나와 서게 되는 두려운 날에 너희가 일러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 하겠느냐?

“그 때에도 너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어린양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너희는 죄를 느끼는 마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주의 율법을 헛되게 한 죄를 느껴 너희의 영육이 찢기는 듯한 때에 기록하신 이와 더불어 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느냐?

“오 너희 믿지 아니하는 자들아, 주께로 돌아서며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어, 마지막 큰 날에 어린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흠없이 정결하며 아름다우며 깨끗한 자로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라.”(물몬서 9:1~3, 6)

그처럼 큰 고통과 비극을 목격한 사람이 외치는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가 더 좋고 더 행복하며 더욱 충만한 삶의 길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상하게 들리겠습니까? 모로나이가 외치는 말씀은 경고의 음성만이 아니라 희망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그분께 귀중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며, 또한 모든 영혼이 불사불멸과 영생을 누리기를 바랬습니다. 계속해서 경전에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인간의 구속으로 인하여 인간은 주의 면전에 이르게 되었으니, 참으로 이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속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활을 가져 왔고, 부활은 끝없는 잠을 깨어 구속을 이루게 한 것이라. 나팔소리가 울릴 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권세로 끝없는 잠을 깨어나 크거나 작거나 모두 나아와 영원한 사망인 육체적 사슬에서 헤어나 구속을 얻은 몸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요,

“그 때에 거룩하신 이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하며, 더러운 자는 더러운 것으로 의로운 자는 의로움으로 남을 때가 올 것이매 행복한 자는 끝없이 행복할 것이요, 불행한 자는 끝없이 불행하리도다.”(물몬서 9:13~14)

우리는 다시 한번 구세주의 회복된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를 축복하시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을 밝힙니다. 진실로 이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의 예언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커다란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보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부과하신 일을 하기 위해 계획하는 것입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블, 지역 대표 세미나, 1976년 4월 5일, 1쪽)

이곳으로 나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인생의 진정한 성취를 찾아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커다란 낙담과 절망을 겪으며 자신감이 결여되고 희망이 상실된 상태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무슨 목적으로 이 모든 슬픔을 겪는가 하고 자문해



테비네를 내의 대의 장면.

봅니다. 잠시 동안 저와 함께 우리가 주님과 성약을 맺으면서 받았던 약속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우리의 충실함에 따라 자신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태초부터 우리 각자와 굳건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 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으나”(교리와 성약 82:10)

주님은 엄숙한 성약에 의해 주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축복을 받는 기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행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주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담과 이브가 받은 첫번째 가르침 중의 하나입니다. 순종은 신앙을 놓고, 신앙은 하늘의 축복을 가져 옵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슬픔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순종의 율법을 지킨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희생하는 일은 복음이 주는 가장 큰 시험입니다. 이 지상 생활의 목적 중 한 가지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마태복음 6:33)라고 하신 구세주의 권고를 따르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가운데 영원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더욱 많이 주어졌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모로나이의 말씀과 모든 예언자들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을 어겼던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복음이 주는 열매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평화의 항구에서 비치는 불빛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십이사도 정윤희 회장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기본적인 가르침에 대한 적극적이고 충실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최근 수년 동안 세상은 희망찬
발전을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곳이 투쟁과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매일 보도되는 국내 소식이나 해외
소식을 통해 너무도 자주 접하게 되는
분쟁과 고통과 전쟁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분명히 우리들은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사람들이 서로를
염려하며 돌보고 모든 면에서 평화와
안정감이 증가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생활을 누리며 사는 것을
갈구합니다.

그러한 평화와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에 관한 과거의 한 위대한 말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첫째되고 제일
중요한 단계는 절대로 오류가 없는

지도력을 지녔으며 또 그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결코 실패하지 않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 지도자는
어떤 성난 폭풍의 바다 가운데서도
풍파를 헤치고 평화의 항구에서 비치는
불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할
것이다.”(데이비드 오 백케이, 스스로 알
수 있음,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67년 407쪽)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이
연차 대회의 메시지는 만유에 대해
그러한 인도의 손길을 지닌 유일하신 분,
세상을 향한 확실한 참빛이자 꺼지지
않는 등대가 되는 유일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의 빛과 생명이시며
물몬경의 한 예언자가 묘사한 것처럼
“참으로 끝없는 빛이라 결코 어두워지지
아니”(모사이아서 16:9)하는
빛이십니다.

남자와 여자 개인으로서나 가족 또는
지역 사회나 국가로서든 간에 우리가
안전한 평화의 바닷가를 찾을 때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불빛입니다.
그분은 바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한복음 14:6)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이전의 모든 세대와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세대에서처럼 이 세대에도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기본적인 가르침에 대한 적극적이고
충실한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실히 따르는
자들이 복음의 진실성을 증명하며
의롭고 선한 생활에서 비롯되는 힘과

평화를 모범으로 보여 주어야 하는 더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꺾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태복음 5:44)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의 권고가 여러분의 이웃과
가족에게 또 여러분과 자녀가 속한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위대한 지구촌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가르침이 중대한 도전을
제시하지만 세상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전쟁과 가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되는 비참한 과업보다는 훨씬
받아들이기 쉬운 도전일 것임을 압니다.

우리는 거부당하거나 오해받거나
부당하고 불친절한 대접을 받을 때 또는
무고하게 죄에 대해 비난받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거나
승진을 양보당할 때나 거짓 고소를
당하거나 우리의 동기가 부당하게
비난받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상대해서 싸우겠습니까? 더 큰 군대를
보내겠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응수하여 마치 “지붕 위의
바이올린”에서 케비가 말하듯이 결국은
우리 모두가 장님이 되고 이빨이 없어질
때까지 서로 싸우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행동을 옮길 소중한 기회를 가지는데 그
모든 기회에 그 가르침대로 행하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은
모두 좀 더 많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말일의 계시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있던 나의
제자들이 서로 대적하여 기회를 노리며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더니, 이
악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심한 징계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받음이니, 큰 죄가
저에게 있음이라.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거나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노라.”(교리와 성약
64:8~10)

그리스도는 위엄있는 생애와 모범으로

가르치신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언제나 확실한 약속이 따르는 많은 권고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학자와 무지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나 병든 자 모두를 희망으로 가득 채워 주는 권능과 위엄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작가가 말한 것처럼 그분의 메시지는 “많은 청중들을 매료시킨 것처럼 홀로 경청한 사람에게도 풍족함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가르침 중 몇 가지는 통치자들이나 많은 무리에게가 아니라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난 썩박받는 자와 한밤중에 조심스럽게 간구하는 자와 한낮에 우물가에서 만나신 부정한 여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운명 그리고 사랑과 희망과 신앙으로 가득 찬 인간의 삶에 대하여 하찮은 것이나 허례적인 것은 별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성스러운 감정의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올라 듣는 자 모두에게 진율과 같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마디로 그분의 권능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은 순수하였으며 동정심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가장 엄격한 계명조차도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에이 더블류 패러, *그리스도의 생애*, 215쪽)

우리를 시험하며 우리로 하여금 노력하게 하고 두려움마저 안겨다 주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한 위대한 기사를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주 이용하던 여로의 하나인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밤이 되었으며 폭풍우는 사납고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파도는 맹렬했고 바람은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육신을 지닌 연약한 인간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님은 홀로 해변에 남으셨기 때문에 파도를 진정시키고 그들을 구해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늘 그러셨듯이 그분은 항상 그들을 지켜 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염려하셨습니다. 큰 곤경에 빠져 있던 순간에 그들은 어둠 속에서 걸음을 펼치며 그들을 향해 물위를 걸어오는 물체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물위를 걸어오는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마치 우리들이 인생의 어둠 한가운데서 엄청나게 크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오른쪽)이 십이사도 평화회의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왼쪽)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와 대화 모임에서 인사를 나누고 계신다.

보이는 대양을 조그만 돛단배로 저어나갈 때처럼 폭풍우와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근원적이고 위안을 주는 평화로운 음성으로 다음과 같은 단순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위를 오라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성난 파도 위를 걸어가는 동안은 바람에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물방울에 옷이 적셔졌을지라도 모든 것은 안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신앙으로 주님께에서 눈을 돌려 성난 파도와 자기 밑에 있는 어두운 소용돌이를 바라보자 바로 그 순간에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또다시 대부분의 우리들처럼 그는 “주여 저를 구해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손을 뻗쳐 물에 바진 제자를 건져 주시며 부드럽게 나무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다음에 그들은 안전하게 배로 돌아와 잠잠해진 바람과 파도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곧 그들의 안식처인 안전한 항구 즉 우리 모두가 언젠가 도달하기를 바라는 그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선원들과 제자들 모두는 깊이 경탄하였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오늘 제가 밝히는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에이 더블류 패러의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서 각색함, 310~313쪽)

저는 개인으로서 가족으로서 지역 사회와 국가 조직으로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불신앙의 세찬 파도를 이기고 특이반만하게 걸으며 의심의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두려움없이 남아 있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할 그분에게서 눈길을 돌린다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세상의 많은 유혹들, 즉 우리를 도와 주고 구하실 수 있는 그분을 따르기보다 격렬하고 파괴적인 힘과 광기를 따른다면 필연적으로 분쟁과 슬픔과 절망의 바다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파도에 압도당하여 물 속에 잠길 것 같고 우리 신앙의 배가 깊은 바다에 삼켜질 것 같을 때 우리 모두가 폭풍우와 어둠 가운데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마태복음 14:27)는 세상의 구세주의 부드러운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교회 역원 지지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형 제 자매 여러분, 계시를 통해
주어진 만장 일치의 원리에
따라 교회의 총관리 역원과
본부 역원의 명단을 발표하여 여러분의
지지를 묻겠습니다.

우리는 에즈라 테프트 벤슨 형제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또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고든
비 힝클리 형제를 대관장단 제1보좌로,
토마스 에스 몬슨 형제를 대관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워드 더블류 헌터 형제를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으로,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돔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런, 리처드 지
스코트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관장단 보좌와 십이사도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했던 매리온 디 행스 장로와 로버트
엘 백맨 장로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분들을 해임합니다. 이분들은 칠십인
제일 정원회 명예 회원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해 오신 조지 알 힐 3세
장로, 존 알 라스터 장로, 더글러스 제이
마튼 장로, 글렌 엘 러드 장로, 더글러스
에이치 스미스 장로, 린 에이 소렌슨
장로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분들을
해임합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감독과 글렌 엘
페이스 감독을 각각 감독단 제1보좌와
2보좌에서 해임합니다.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십인 정원회의 회장단으로 딘 엘 라슨
장로, 제임즈 엠 패러모어 장로, 제이
리처드 클라크 장로, 텍스 디 피네가
장로, 칼로스 이 에이시 장로, 찰스
디디에이 장로 및 엘 알든 포터 장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연차 대회 이후에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장로와 벤자민 비 뱅크스 장로,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 및 로버트 케이
델린바흐 장로가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형제와 글렌 엘
페이스 형제를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노 알바레스 장로, 델러스 앤
아치볼드 장로,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 시 맥스 콜드웰 장로, 게리 제이
코울먼 장로, 존 비 디슨 장로, 존 이
파울러 장로, 제이 이 켄슨 장로,
아우구스토우 에이 림 장로, 존 엠
매드슨 장로, 브이 델러스 메릴 장로,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 에프 데이비드
스탠리 장로, 타이 킵 유엔 장로 및 로웰
디 우드 장로가 4월 연차 대회 이후에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치와 이 총관리 역원들을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감독단의 로버트 디 헤일즈
감독의 제1보좌로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형제를, 제2보좌로 리처드 시 에즐리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으로 봉사하셨던
휴 더블류 피녹크 장로, 하트만 렉터



이세 장로, 클린튼 엘 커틀러 장로와
본부 청남 회장단에서 각각 제1보좌 및
2보좌로 봉사하셨던 로버트 케이
델린마흐 장로와 스티븐 디 네이들드
장로를 해임하며 이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린 알 리버트 장로와 클린튼 엘
커틀러 장로 및 로날드 이 포올맨
장로를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에, 스티븐
디 네이들드 장로와 엘 리오넬 켄드릭
장로를 본부 청남 회장단의 제1보좌와
2보좌로 각각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총관리
역원들과 본부 역원들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 일치로 모두 지지하셨습니다.

관리 감독단 보좌로 부름받으신
분들은 지금 단상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과 지지의 뜻을
보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회원 여러분에게 다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 봄에 헌납될
예정인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성전의
건축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중이라는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플로리다 올랜드 성전과 유타 바운티플
성전 작업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착공될 것으로
보이는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와
콜럼비아의 보고타, 에쿠아도르의
구아야킬의 성전 설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대한 아시아 지역 백성들의
필요 사항을 채워 드리기 위해 홍콩에
세워질 새로운 성전과 뉴욕, 보스톤,
뉴잉글랜드 지역의 교회 회원들이
이용하게 될 코네티컷주의 하트포드의
성전 및 예상 수용 능력을 훨씬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프로보 성전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 줄 유타군의 성전
부지가 결정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합니다. 추후에도 그 부지가 발표될
성전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

가정을 그리워하는 마음

마빈 제이 에쉬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가 [가정을] 그리워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영혼이 그 중심부를
추구하며 더 이상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갈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 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두번 썩은 향수병에 걸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난생처음
친구와 함께 밤을 새웠거나 저의 손자
말대로 친구 집에서 잠을 자거나 하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반면,
부모님이 그리우며 안전하고 편안한
집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대학이나 선교
사업을 위해 집을 떠나거나 결혼을 하여
집에서 멀리 떠나 있게 되면 오랜 기간
향수에 젖게 됩니다. 이 밖에도 부모가
이혼하게 되어 특히 양부모와 새로운 친척
등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에도 향수에
젖습니다. 이같이 자신을 적응시키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불안하고
외로우며 집이 몹시 그리웁니다.

최근에 한 선교부장님이 심한
향수병으로 고생하는 선교사와 대화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심해 선교 사업도 소홀히 하고 시간만
낭비하며 집중력도 흐려지고 주어진

일을 싫어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를 만나 어느 정도 향수를 느끼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그리움이란 말을 정의하면 “깊이
갈망하다,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입니다. 이 선교사는 그 마음이
너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대한 적당한 그리움은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기쁨
때나 어려움을 겪을 때면 가정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고 보호받고 인정받으며
인도되고 가르침받는 가정에 대해
향수를 느껴 봅시다. 가정은 영혼의 짐을
벗고 세상에 맞설 힘을 기르며 안락하고
기쁘고 인정받으며 가장 친한 친구가
살며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코 잃지 않아야 할 가정은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정은
땀이 되고, 폭풍을 피하는 항구요,
피난처며, 행복한 곳이요,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이 가르쳐지고
배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정과 가족은
세상을 사는 동안 신앙의 중심지며
사랑과 상호간의 책임이 잘 이룬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있었던 기쁘고
행복한 추억들이 이 지상을 사는 동안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우리를 감화시킬
수 있습니다.

벤슨 대관상님은 늘 어린 시절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시며, 고향인
아이다호주 휘트니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열한 명의 어린이가
태어나 고결한 부모에게서 양육받은
시골 집을 사랑하십니다.

세계 각국을 여행하시면서 그분은
고향 집을 자주 동경하셨으며 또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늘 캐쉬

계곡에 가 계셨습니다. 대관장님은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는 가족을 방문하고 어릴 적 친구들과 이웃과 선생님, 감독과 친척 등 그분께 선한 영향을 미쳤던 분들을 만나기를 좋아하십니다. 대관장님은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휘트니를 “꿈의 농촌”이라고 부르십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자신을 양육하고 인격을 형성시켰으며 하나님과 가족과 국가에 헌신하는 성스러운 일을 하도록 준비시킨 뿌리인 고향으로 돌아갈 때마다 생명을 되찾으십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어릴적 가정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날 가정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염려스럽습니다. 가정에 대한 향수를 달래줄 수 있는 바람직한 가정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 우리는 좋은 이웃과 친구가 되어 가정의 따스함을 나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위해 마련된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상의 가정 및 천국 가정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영원한 가정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적당히 그리워하는 마음을 통해 길을 잃게 되거나 그릇 인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 앨버타에서 삼백 명의 소녀들이 커다란 나무 아래 여기 저기 천막을 치고 여름 청녀 대회를 가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날씨는 몹시 춥고 습했으며 매일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그곳의 지도자는 구름진 하늘 아래에서 청녀들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계절에 맞지 않게 추운 날씨였지만 잠시 머물던 그들의 임시 가정에는 따스함이 감돌았습니다. 아마 날씨가 추워 서로 가까이 했기 때문에 가슴속의 따스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연사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어디로 가겠습니까?” 삼백 명의 청녀들이 함창이라도 하듯이 “집이요!”하고 외치는 소리가 소나무

사이로 퍼져갔습니다. “어디요?”라고 다시 묻자 역시 그들은 주저없이 “집이요!”라고 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알고 있었으며 그곳을 갈망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갖고싶은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가족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당한 관계를 이루고 사는 가정일 것입니다. 탕자조차도 가정을 향한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친과 가정 생활과 유산을 마다하고 주어진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돼지나 먹음 음식을 먹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자 그는 생각을 가정으로 돌렸습니다. 들판에서 곡식 껍질이라도 먹기를 기대하던 그가 과거처럼 보호받고 안전하며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깊은 향수에 젖지 않았을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하인으로도 받아주길 바라면서 그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하늘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방탕한 아들을 반가이 맞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의심치 않았했습니다.(누가복음 15: 11~32 참조)

저는 오랫동안 향수병으로 인해 선교 사업과 결혼 생활 및 가정 생활에 위협을 받는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향수를 느끼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안전함을 느끼는 곳에 있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비록 친구들이 떠나고 상황이 어떨지라도 걸음마와 말을 배우고 자신이 인정받았던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아무 곳도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태풍 앤드루가 플로리다 남부와 루이지애나 지역을 휩쓸고 간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군인들이 수재민에게 은신처라도 마련해 주기 위해 텐트촌을 세웠으나, 문제는 최소한 잠시만이라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가지고 있던 집이 얼마나 그럴겠습니까?

저는 또한 이런저런 이유도 집에 갈 수 없거나 돌아갈 집이 없는 또 다른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저도 느꼈으며 그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 저는 하늘 집으로 돌아가는 특권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영원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성약을 맺을 수 없게 만드는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들이 잠시 동안이나마 이를 수 없는 기회를 갈망하며 가슴아파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 결과는 강하고도 지속적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모두 “내가 합당하지 못하다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방법만 있다면 우리가 유산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말려들게 하고, 우리 생활에 진실로 중요한 한 가지,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정과 가족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바쁘게 하여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누구의 자녀이며 영원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리고 하는 노력할 시간이 없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첫째 지체를 지켰으며, 전세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살며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 우리는 영적, 교육적으로 완전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으며, 우리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계획에 관해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 후 시험의 기간, 즉 우리의 기억에 장막이 가리워져서 신앙과 영에 의해 견거나 영적인 유산과 권리는 던져버리거나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지상 생활을 이야기된 것만큼 만족스럽게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이곳은 시험의 기간입니다. 도전과 의무와 책임이 때때로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듯합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생활의 압력에 눌러 초점을 잃기 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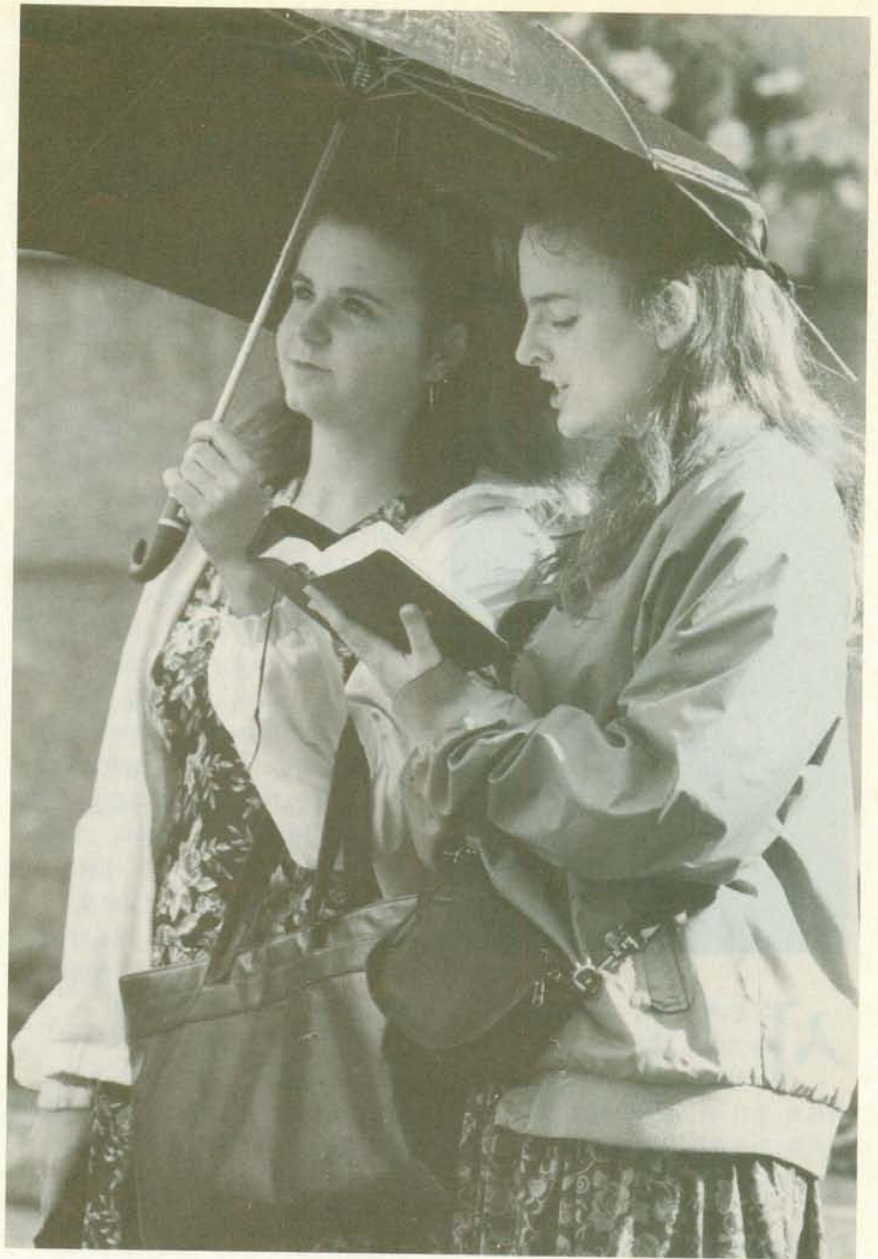
초점을 정의하면 "관심을 기울이다" 또는 "강조하다"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어느 것만큼이나 이 대중매체의 시대에 세계가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그리고 과거 수세대 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었을 만큼 세계가 하나로 모여지도록 돕는 현대의 편의 시설속에서 우리는 진실로 중요한 것에 초점과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실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며 우리가 누구이며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굳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각고의 노력을 들어 연습을 한 끝에 청중이 가득 찬 음악홀에서 데뷔를 하게 된 젊은 음악가가 연주를 하러 가다 말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청중을 잊고 최근에 나온 영화를 보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 뒤에 서겠습니까?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오랜 동안 훈련을 한 뒤 올림픽 결승에 진출해서 반쯤 달리다가 건너편에서 열리고 있는 높이 뛰기를 구경하기 위해 멈추어 설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스운 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진리에 대한 간증과 인생의 목적에 관한 지식으로 무장했다가 영생보다 이 세상에 더 빠져들기 시작했다면 얼마나 더 큰 비극입니까? 그런 사람은 영생보다는 자신의 세상적인 직위나 위치에 좀 더 관심을 두며, 초점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 있지 않아서 그분들과 영광스러운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가 앞으로 있을 경주를 준비하기 보다는 어떤 운동복이 더 잘 어울릴까에 관심을 두고 있는 세속에 물든 운동 선수처럼 행동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시.에스. 루이스는 이 모순인 상황을 잘 묘사했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기쁨이 주어졌는데도 바다에서 휴일을 즐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이 가지 않아서 진흙 집이나 짓는 순진한 아이처럼 그저 마시고 먹고 성욕과 야망을 찾아 스스로를 어리석게 만드는 열빠진 피조물이다... 인간은 너무 쉽게 만족한다."(각성, 뉴욕: 하코드 브레이스 조바노비치, 1968년, 168쪽)



예언자 몰몬은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를 두려워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그치지 아니하는 비참함보다 끝없는 행복이 더 소중한가를 생각지 아니하느냐? 세상의 영예로 인함이나?"(몰몬서 8:38)

우리가 무엇을 열망하면서도 무엇을 위해 그러는지 모를 경우,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영혼이 그 중심부를 추구하며 더 이상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갈망하며 또한 세상적인 것으로는 채워줄 수 없는 더 높고, 더 좋으며, 더욱 충만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인 요셉은 형들과 재회한 뒤 형들에게 가나안으로 돌아가 부친인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라고 부탁했습니다. 형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창세기 45:24)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그분의 면전을 떠나 지상 여행을 시작할 때 그같은 권고를 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말씀드립니다. 아멘. □

“네 부모를 공경하라”

리노 알바레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매일 매일 자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들을 공경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영원한 복음의 완전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이 단상에 서고 보니 참으로 겸손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오후 모임에 제가 저희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말씀을 드릴 때 부디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저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시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두 다 덕으로 인도되며 함께 기뻐할 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교리와 성약 50:22 참조)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참옴과 특별히 저에게 보여 주신 신뢰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저에게 구세주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그분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에 대해 대관장단과 심이사도 정원회와 칠십인 정원회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젊었을 때 저를 신뢰해 주신 선교부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자신감을 주셨으며 그리스도와 회복된 복음에 관한 간증을 키워 주셨습니다.

이 부름을 받으면서 저는 제 자신이 이 부름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기꺼이 온 마음을 바쳐 주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섬겨야겠다는 강하고 엄숙한 간증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름을 핑클리 부대관장님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저는 1972년에는 칠레 산티아고 제1스테이크의 선교부장 부름을, 그후인 1982년에는 멕시코 시 남선교부장의 부름을 바로 그 핑클리 부대관장님을 통해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 그리고 성인기를 통틀어 생각해 보니 저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 동안에 부모님을 통해 놓여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공식적인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없었지만 영원한 복음의 원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10남 2녀의 집안에서 열번째입니다. 주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십계명 가운데서 다섯번째 계명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계명은 이렇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애굽기 20:12)

저희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은 부모님이 저희 모든 자녀들에게 해주신 두 가지 것 때문입니다. 첫째 부모님은 저희에게 올바른 원리들을 가르쳐주셨으며, 저희가 주님 앞에서

올바로 생활하고 또 계명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둘째 부모님은 저희에게 일과 성실과 가족의 단합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저희 가족 모두가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저희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에 따라 생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마다 부친을 모시고 자녀와 손녀와 증손 자녀 등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저희 부친은 리하이가 숨을 거두기 전에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했던 다음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나의 영혼이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며, 너희로 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게 하여, 비통과 슬픔을 안고 무덤에 이르지 않게 하라. 티끌에서 일어서라. 나의 아들들아, 사나다워지며 한 마음 한 뜻이 되며 법사에 하나로 뭉쳐 속박당하지 않게 하라.”(니파이서 1:21)

선교 사업을 나갈 연령에 이르렀을 때 저는 역시 선교 사업을 앞둔 현재의 젊은 남녀와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과 제 여자 친구와 학교와 가족이 얽려되었습니다. 제가 선교 사업을 나가기에 충분한 나이가 되었을 때 저의 부친의 연세는 66세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연로하시다. 내가 2년 동안 선교 사업을 떠난다면 그 사이에 돌아가셔서 다시는 못볼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누가 보살펴 드리지? 아버지가 곁에 계시지 않게 되면 어머니는 완전히 혼자 계시게 될텐데.

그러나 저는 2년 동안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칠레에 있는 교회 학교에서 5년, 선교부장으로 3년, 지역 대표로 6년간을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친은 아직도 저희 가정의 가장의 위치를 지키고 계십니다. 제 부친은 벤슨 대관장님보다 1개월 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바로 지난 달에 93세를 맞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제 아내의 부모님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도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제 아내를 가르치셨습니다. 아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복음을 받아들이셨던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간증드립니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봉사하도록 성별받은 뒤에 저는 아내와 자녀 한 명을 데리고 부친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부친께 저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새로운 신권 직책을 받게 되면 언제나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저의 부친은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짧지만 위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부친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무슨 일을 하건 성령이 너와 네 아내와 자녀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하노라.” 더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둘은 현재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세째는 부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랑과 신뢰가 없었더라면 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자녀들을 몹시 사랑하며 완전히 믿습니다.

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노소에 관계없이 매일 매일 자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들을 공경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셨다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 간증드립니다.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요한복음 6 : 38, 39)

구세주는 우리의 모범이시며 삶의 본보기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이 하신 일을 하기 위해 매일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요한복음 5 : 19)기 때문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그를 통해 이 땅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 완전한 복음이 회복되었음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이 땅에 살아 있는 유일하게 참된 교회임을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훌륭하신 부모님께서 태어나”

델러스 앤 아치볼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잘못한 일을 바로잡아주거나 꾸짖어야 할 때는 자신이 소중하고 능력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복돋아 주고 강건케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겨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 어린이들을 돌보아 거룩한 길로 인도하며, 그 아이들이 인생의 질곡을 잘 헤쳐나가도록 이끌어 주고 함께 영원으로 향하는 끈고 좁은 길을 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부모라는 책임이야말로 그 얼마나 막중한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필멸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그들의 만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도록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물론경에는 부모의 의로움과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니파이가 맨 처음에 한 말은 그의 부모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나 니파이는 훌륭하신 부모님께서 태어나 부친이 아시던 학문을 거의 다 배웠고...”(니파이일서 1:1) 이노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부친께서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에 관하여 종종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에 깊이 스며들음을 느꼈고”(이노스서 3) 물론은 힐라맨의 두 아들인 니파이와 리하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는 저들의 부친 힐라맨이 저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였음이라. 그 부친이 저들에게 전한 말은 이러하였더라.”(힐라맨서 5:5) 여기서 우리는 훌륭한 조상에 대한 찬사와 힐라맨이 자녀들에게 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힐라맨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이름은 그들이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귀중한 영생의 은사를 바라도록 하기 위해 그가 지어준 것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6~7절 참조) 그런 후에

저는 최근에 초등학교가 다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예배당 뒷좌석에 앉아 활기 넘치는 어린이들 한 무리가 음악 선생님을 매우 바쁘게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휘자는 폐회 찬송으로 어린이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게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조용해졌으며, 전체 모임중에 처음으로 목소리는 잡음없이 화음이 잘 맞았습니다. 노래 가사가 천사의 음성처럼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길을 찾아가게
저를 도와 주소서
주와 함께 살도록
가르쳐 주소서
(찬송가, 187장)

이 간절한 가사가 제 마음 깊숙히



힐라멘은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오 나의 아들들아 너희는 베나민 왕이 그 백성들에게 진한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기억할지이다. 또한 너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9절)

베나민 왕의 기록을 보면 힐라멘은 부모로서 경전을 알고 있었으며, 자녀들에게 예언자의 말씀을 따르도록 가르쳤습니다. 힐라멘은 계속해서 “나의 아들들아, 너희를 세울 기초가 되실 이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반석이신 구세주임을 기억하고 다시 기억할지이다.”(12절)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예언자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한 기초를 세우도록 가르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가르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경에 나오는 예언자인 야곱은 자녀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은” 후에야 우리가 다시 자녀들에게 “혈벧은 자를 입히고 굶주린 자를 먹”이기 위해 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서 2:18~19 참조) 우리는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가장 좋은 교사는 모범입니다.

그날 예배당 뒷좌석에 앉아 저는 자문해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두 하고 있는가? 내 아내와 딸은 내가 그들을 해의 왕국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를 따라 걸을 수 있겠는가? ‘저를 도와주소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내가 그들을 해의 영광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를 따라 걸을 수 있겠는가?”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마태복음 6:33)

이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가르쳐야 하고 그 가르치는 바를 먼저 모범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열의가 크다면 강제력을 동원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결국 반항만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의 사고 방식을 남에게 강제로 주입시키려 하다 보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가르침에 마음의 문을 닫고 결국은 거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21편에서 주님은 올바르게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 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 이것들은...사람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41~42절) 저는 “사람을 크게 만드느니라.”라는 구절을 좋아합니다. 훌륭한 가르침은 곧 사람을 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를 빈 컵이라고 하고, 수년 동안 쌓아온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가득찬 물통이라 합시다. 논리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 따져보면 물통에 가득찬 물을 곧장 작은 컵에 쏟아부어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식 전달의 정확한 원리를 사용하여 그 컵을 크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원리들은 곧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없는 사랑과 친절과 순수한 지식입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그 컵 곧 어린 아이를 크게 만들어 원래 물통에 가득찬 물보다 더 많은 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행동 심리학자들은 이 주제에 관해 많은 책을 펴냈습니다. 주님은 간단히 성구 몇 구절로 그와 똑같은 지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자부심을 지닐 수 있는 방법으로 항상 가르치고 끌어 주고 인도해야 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말이나 행동으로 그들이 소중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경전에서는 “복돋아 준다”는 말은 쓰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장점을 강화시켜 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항상 개개인의 좋은 점을 보고 복돋아주고 말과 행동으로 장점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사기를 꺾는 말, 예를 들면 “바보”, “멍청이” 혹은 “넌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없어!”와

같은 말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므로 결코 써서는 안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쉽게 내뱉거나 행동으로 보이면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강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길을 찾아가게 도와주소서”라는 가사의 이면에는 “저를 복돋아 주시고 힘없는 무릎을 강하게 해주시며, 제가 소중하고 능력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소서.”라는 간구가 들어있습니다.(교리와 성약 81:5 참조)

잘못한 일을 바로잡아주거나 꾸짖어야 할 때는 자신이 소중하고 능력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복돋아 주고 강건케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주님은 교리와 성약 121편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즉시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후에는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43절)

맥스웰 정로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즉시(betimes)라는 단어는 이따금 “때때로” “또는” “가끔”이라고 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일찍”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범했을 때 바로잡아주는 일은 화가 나 있을 때가 아니라 성신의 지시가 있을 때 즉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132년 전 이 태버나클에서 행한 말씀에서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여러분이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는 절대 꾸짖지 마십시오.”(설교집 9:124~125)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주님은 “후에는...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교리와 성약 121:4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바로잡아 주는 방법은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성신의 평화를 가지고, 자존심이 결코 상처입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치유의 힘을 가지고, 또한 상대방이 자신을 언제나 소중하고 능력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되 즉시 하면되는 것입니다.

훌륭하신 부모 여러분, 다음 가사를 듣고 옹기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을 찾아가게
저를 도와 주소서
주와 함께 살도록
가르쳐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하신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경전을 상고함으로써 그리스도께 나아옴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
칠십인 정원회

“경전을 건성으로나 이따금씩만 접하게 되면 대개 영의 속삭임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주님은 아주 여러 번 제자들에게 구원의 교리를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전을 상고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구세주께서는 “성경을 상고하거나...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한복음 5:3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서반구에 나타나 계시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는 경전에서 인용하여 니파이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상고하라. 내가 너희에게 거듭 명하노니, 너희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라.”(니파이삼서 23:1) 오늘날에도 주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 여러 계명을 상고하라. 이는 참되고 신실하며...모두 성취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37)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세주께서는 에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경전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알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것이 아니요, 나의 것이니...”

“나의 음성으로 너희에게 이 말을 하노니, 이 말이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짐이라. 나의 능력으로써 너희는 그 말을 서로 읽어 줄 수 있으나...”

“그런고로 너희는 나의 음성을 들었고 나의 말을 알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18:34~36)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각자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간증을 얻어야만 합니다. 경전을 전혀 펴보지 않아서 간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 생각없이 읽기 때문에 간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알 수 있듯이 부지런히 탐구하는 것 즉 “경전을 상고하는 것”과 별 생각없이 읽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역사 이야기 하나를 통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섯 살의 조그만 소년 하나가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에 손수레 대대에서 떨어져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폭풍이 가라앉고 나서야 로버트와 앤 파커 부부는 아들이 없어진 것을 알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틀동안 수색대를 조직하여 찾아보았으나 허사였습니다. 결국 겨울이 곧 닥쳐오기 때문에 손수레 대대는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 개척자는 일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앤 파커 자매는 남편의 허약한

어깨에 밝은 색의 [빨강] 쇼울을 둘러 핀으로 고정시켜 준 뒤 다시 아들을 찾으러 오던 길을 되돌려 보냈다. 그 쇼울은 만일 아들을 찾았을 때 죽었으면 그 시신을 덮어주고 살았으면 그녀에게 신호해줄 깃발로 쓰기 위한 것이었다. 앤 자매가 자녀들과 함께 그들의 짐을 가지고 대대를 따라 악천 고투하며 나아가는 동안 로버트 형제는 수마일을 거슬러 내려가며 스스로는 어떻게 해보지도 못할 어린 아들을 부르고 찾으며 그를 위해 기도했다.”

그가 건성으로 나무 뒤를 돌아보거나 느릿느릿 한가롭게 길을 걸어갔을리가 없으며 덤불 하나 하나, 나무 한그루 한그루, 도랑이나 여울 한곳 한곳까지 사력을 다해 살폈으리라는 것은 누구든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로버트 형제는 어느 가게에 이르러서야 한 나무꾼 부부가 그의 아들을 발견하여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소년]은 추위에 지나치게 노출된 데다 공포에 질려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이다.”

“계속 전진해 나가는 동안에도 앤과 자녀들은 밤마다 어떤 신호가 오지 않는지 살피고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서산으로 지는 여린 햇빛에 밝은 빨강색의 쇼울이 [남편의 머리 위에서] 가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용감한 젊은 어머니는 사막의 모래산 위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그녀는] 실로 몇새만에 처음으로 잠을 이룰 수 있었다.”¹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과 “열심히 탐구하는 것”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경전을 건성으로나 이따금씩만 접하게 되면 대개 영의 속삭임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구세주의 생애와 성품에 대한 통찰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진실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아들을 찾아나선 로버트 형제와 인내를 가지고 지평신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가 보인 열성을 가지고 경전을 상고해야 합니다. 한 연차 대회에서 십이사도 평의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이해를 위해서는 별 생각없이 읽거나 대충 훑어보는 정도만으로는 안되며



집중적으로 상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일마다 경전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하루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하고 다음 며칠은 그냥 흘러 보내버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²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물론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언자 리하이가 가족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떠나 홍해 변방까지 여행한 뒤에 다시 사흘을 더 광야에서 여행하였을 때 주님은 리하이에게 그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았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느라 그 가족들은 경전을 가져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주님이 이전의 예언자들에게 하였던 말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리하이는 꿈에서 그의 아들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예언자들의 기록과 그의 조상들의 계보가 적힌 낯선 한벌을 가져오게 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낸 뒤에, 아들들은 낯선 땅을 가지고 아버지의 천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경에서는 그들이 아들들의 무사한 귀환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린 뒤에 “[낯선 땅]을...살펴보고 그 기록이 귀중한 것임을 알았으며, 주님의 계명은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전해져야 할 소중한 것임을 알았노라(니파이일서 5:21)”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의 기록 외에 자신들의 기록을 더하여 주님의 말씀을 자자 손손이 물려주었습니다. 각 후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밑바탕이 되었던 것은 경전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상고함으로써 얻게 되는 확실한 축복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에 순종하는 사람은 구세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며 의롭게 살고자 하는 더욱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커지며, 영적인 연약함을 극복하게 됩니다. 또한 영적인 상처를 치유받게 됩니다.

리하이는 낯선 땅의 내용을 상고한 직후에 위대한 시현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니파이일서 8장 참조) 꿈에서 리하이는 지극히 희고 맑은 달며 어는 과일보다도 더 먹음직한 과일이 열린 나무 한그루를 보았습니다. 또 그는 그 나무로 이어지는 길과 그 길을 따라 놓여진 쇠막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 길에 암흑의 심연을 보았습니다. 그 곳에 발을 들여 놓은 사람들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쇠막대를 잡고 나무에까지 이르렀으나 부끄럽게 여겨 쇠막대를 놓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시현에 따르면, 나무에 이르러 그 열매를 완전히 취하기 위해서는 “줄기차게 쇠막대를 단단히 붙잡”(니파이일서 8:30)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쇠막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니파이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곧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살아계신 예언자들의 말씀과 경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니파이는 덧붙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를 굳게 지키는 사람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니파이일서 15:24 참조)

꿈에서 본 나무는 생명의 나무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친절에서 나타나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니파이일서 11장 참조) 쇠막대를 굳게 잡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업에 대한 믿음을 쌓을 수 있습니다.

리하이가 사망한 지 5백년 후에 살았던 예언자 엘마는 생명의 나무에 대한 리하이의 시현에 강렬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엘마는 흥미로운 방법으로 그 형상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뿌려 키우는 씨앗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단지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소망만 가지고 있어도, 씨앗은 싹이 터 자랄 것이며 씨앗이 영혼을 키움에 따라 내면이 더욱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순종과 더불어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계속 가꾸면 그 씨앗은 지극히 희고 달며 온전한 열매를 맺는 생명의 나무 곧 “영생으로 뻗어 오르는 나무”가 될 것이라고 엘마는 설명했습니다.(엘마서 32:26~42) 엘마의 설명으로 보면 생명의 나무는 사람 개개인의 내면에서 자라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리하이의 꿈에서 보이는 쇠막대를 굳게 잡는다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의 내면에서 자라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나무에 관한 엘마의 설명을 통해 그가 앞서 교회 회원들에게 물었던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내 품에 지녀 보았느냐? 이 놀라운 변화를 너희가 마음으로 느껴보았느냐?”(엘마서 5:14) 마음과 영혼의 변화는 씨앗을 뿌리고 키움으로써 일어나게 됩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봉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쌓는 데 주요 원리가 됩니다.

1986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벤슨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면에서 부지런하다 해도, 특정한 축복은 경전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명의 나무에 이르는 어둠의 안개를 헤쳐 나갈 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것을 굳게 잡을 때에만 오게 되는 것입니다.”³ 형제 자매 여러분, 벤슨 대관장님이 주님의 예언자이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모두 경전을 상고함으로써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커밀리 더블류 저, 케이트 비 카터 편, *개혁자 역사의 보화*, 6권(솔트레이크시티:유타 개혁자의 딸들, 1952~1957년), 또한 5:240~241; 앨런 케이 버지스, *경전을 이해하고 즐기는 방법*(솔트레이크시티:테처렛 출판사, 1986년), 6~7쪽 참조.

2. 연차 대회, 1979년 10월

3. 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그리스도의 사랑

시 맥스 콜드웰 장로
칠십인 정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에는 세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로부터의 사랑,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



저는 물론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매우 값진 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물론경의 각 페이지마다 담겨있는 성스러운 가르침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물론경만의 독특한 교훈 한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젊어서 선교사로 봉사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을 읽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린도전서 13:13)는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왜 사랑이 제일인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랑이란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랑이란 용어가 교리나 경전상에서 사용되는 뜻과 다른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경을 탐구하던 중에 저는 새로운 견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옛날 미대륙의 예언자였던 물론은 사랑이란 말을

구세주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 영원히 참을 것이요”(모로나이서 7:47)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꼼꼼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만민에게 명하사 사랑 곧 자비의 사랑을 가지라”(니파이서 26:30)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을 가져야 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에는 세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1.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2. 그리스도로부터의 사랑
3.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임을 뜻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예수님에 대해 항상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러한 생활을 실천하기란 어렵습니다. 저는 한 연세 많은 형제님이 가르치시는 대제사 그룹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종 우리는 기도할 때 ‘저희가 누리는 모든 축복에 대해 감사드립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축복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축복에 감사드리기는 대단히 힘들 수 있습니다.” 이 훌륭한 형제님은 지난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 없이 크리스마스를 보내신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님께 감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벤슨 대관장님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의 성도들에 대한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자매님은 어린 네 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폴란드에 있는 집을 떠나 천 마일

이상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네 자녀 모두를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옷이 다 찢겨지고 발은 천으로 동여맨 채 쇠약해진 몸으로 우리들 앞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간증했습니다.”(1980년 4월 연차 대회)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들로 인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잃어버려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을 잃던지 더욱 비참하게 될 것이며, 끝내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깊이 그분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좋은 환경에 있을 때에만 사랑을 나타납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경험에 따라 약화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합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서 분명히 나타납니까? 사랑, 즉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북돋아주고 우리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사랑의 두번째 의미는 그리스도로부터의 사랑입니다. 물론경의 예언자는 영감어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로나이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었으니...”

“이제 당신께서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참으로 사랑인 것인즉.”(이더서 12:33~34)

속죄의 가혹한 요구에 순응하여 구세주께서는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한복음 15:13) 또한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그 같은 회생을 겪게 두심으로써 궁극적으로 다른 자녀인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비록 조건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통하여 정확하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 이 사랑의 선물은 받아 들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구세주의 속죄 행위는 그분의 구속의 조건에 일치하려는 의지없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을 받을 필요성에 대하여 모로나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바로 그 사랑을 갖지 아니할진대 당신의 아버지의 전당에 마련된 처소를 상속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이더서 12 : 34)

몇년 전에 저는 특별히 어렵다고 생각되는 주제에 관해 공과를 가르칠 준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과를 가르치기로 되어있는 전날 밤에 저는 주님의 도움을 간구한 뒤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래도 머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잠에서 깨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올라 저는 그날 오전 공과 시간에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공과가 끝난 후 한 청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그 공과는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후에 저는 그 청년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그 밤에 참석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후 그는 생활을 정돈하고 훌륭하게 선교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는 현재 영원한 가족의 성약을 지키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세번째 측면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대상은 곧 사람들입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나는 유대인을 사랑하노니...

“나는 또한 이방인도

사랑하노라.”(니파이서 33 : 7~9)

니파이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 대해 그런 사랑을 가졌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는 후에 구세주께서 사랑을

발전시키는 열쇠로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신 신성한 계명을, 그것이 계시되기도 전에 지켰음에 틀림없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 : 34)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고 내어 주신 그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결국 그러한 삶의 소산입니다. 우리는 구세주께서 정하신 과정을 밟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지닐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과정을 이렇게 단언하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한일서 3 : 16)

선교사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삶의 일부를 바친 뒤에 집으로 돌아와 그들이 봉사했던 사람들을 향한 큰 사랑을 증거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감독이나 신권 또는 보조 조직 지도자들이 그들이 봉사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지닌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지니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대로 사랑을 얻게 됩니다.

한때 저의 아내가 주말에 여행을 하게 되어, 저희 와드의 한 자매님에게 상호부조회 공과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도 뒤에 그 자매님은 공과 교재를 돌려주시려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자매님은 또 저의 아내에게 맛있는 빵과 감사의 편지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편지에는 “저는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자매님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어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봉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교훈이나 원리도 아니고 행동이나 태도를 묘사한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개발하거나 경험해야 할 내면의 상태입니다. 사랑이 우리 본성의 일부가 될 때 우리는 사랑의 소유자가 됩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그러한 사람은 행위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구약에는 단 한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의 예언자들도 사도 바울이나 옛 미대륙의 예언자처럼 사랑의 필요성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언자들도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경전으로부터 간절하고 진귀한 구원의 진리를 고의로 빼내버릴 것이라는 니파이의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니파이일서 13 : 20~29 참조) 또한 사랑이 신약에서는 오직 일부에서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증거인 물문경을 통해 우리는 이 영원한 교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교훈에 따라 살 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됨을 간증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의 마음에 깃들어 온 땅에 불화가 있지 아니하였”(니파이서 1 : 15)던 것과 같은 옛날의 니파이인들이 200 여년간 누렸던 평화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구세주께서 살아계심을 아는 것과 같이 이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소망의 기쁨을 성취함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관리하십니다. 주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살 때, 우리 개개인에게는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희망에 찬 기대가 요구됩니다. 저는 요즘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시대의 표적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가까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대답은 약 2천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마가복음 13:32~33)

예수님은 재림의 표적에 관한 물음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마태복음 24:6~8)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전세계적으로 재난이 더욱 빈발하고 있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라고 하신 구세주의 훈계를 잊지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바로 자연의 힘이 “처처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을 홍수처럼 쏟아 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최근에 저는 한 신문에서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빈도와 강도에 있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미국 지질 조사 보고서의 통계 자료를 인용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1920년대에는 리히터 지진계로 최소한 진도 6 이상의 강진은 단 두 차례만 발생했었습니다. 1930년대에는 횡수가 다섯 차례로 증가되었다가 1940년대에는 4회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에는 9회에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1960년대에는 15회, 1970년대에는 46회, 이어서 1980년대에는 52회가 발생하였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선 후 지금까지 발생한 강진은 이미 1980년대에 꼬박 10년 동안에 걸쳐 발생한 강진 횡수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격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만도 우리는 두 차례의 무시무시하리만큼 괴멸적인 태풍에 아직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나투보산의 화산 폭발로 인한 참화가 언제 끝날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프리카는 온통 기근이 휩쓸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인간의 처참한 고통이 만연해 있습니다. 정도는 다소

덜하다 해도 수백만명이 굶주림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생활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조차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정과 전쟁 및 경제적 혼란이 세계 도처에 만연해 있으며, 날이 갈수록 도색 영화나 잡지, 마약 남용, 풍기 문란, 에이즈 및 어린이 학대 등의 역병이 더욱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대중 매체는 대중 매체대로 살인, 폭력, 나체, 성행위 및 신성모독 행위 따위를 보기 원하는 시청자들의 만족할 줄 모르는 듯한 식욕을 채워주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모로나이가 “보라 너희가 아직 내 앞에 있지 아니하나 나는 마치 너희가 내 앞에 있는 듯이 말하는도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내게 보이신지라, 내가 너희의 행함을 아는도다.”(골몬서 8:35)라고 기록하면서 이야기한 그 날은 바로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 모로나이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세상의 상태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이 진실로 말일이든 아니든, 다시 말해 구세주께서 예언하신 “재난의 시작”이든 아니든간에, 우리 가운데에는 좌절감과 낙담과 슬픔에 괴로워하며 생활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것 같은 혼란에 대처하기에 역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치관을 약화시키고 도덕적인 표준을 깎아내리는 물살이 세고 거친 급류에 휘말려 하류로 떠내려가고 있는 가족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가 하나님의 계명과는 더더욱 멀리 떨어져 정처없이 표류하고 있음에 따라 특히 어린이들이 더욱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의 사악함과 잔인성에 스스로 두 손 들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망도 포기해버렸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마저 단념해버렸습니다. 이제 좌절감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풀지 못할 것 같은 문제에 즉각적으로 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갈 이 어두운 상황하에서도 우리는 결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을 보았던 모로나이는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신앙이 있어야 하리니, 신앙이 있으면 소망이 반드시 있을 것이요”(모로나이서 10:20)

절망감에 휩싸여 희망을 상실해버리신 모든 분께 저는 주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주신 다음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떼들아, 선을 행하라. 세상과 지옥이 연합하여 너희를 대적케 하라. 너희가 내 반석위에 세워져 있으면 저들이 이기지 못할 것임이라...”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두려워 말라.”(교리와 성약 6:34, 36),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 하리라.”(교리와 성약 6:32)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관리하십니다. 주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줄 적절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며, 언젠가는 우리도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진정한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과도한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너무 지나치게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혼돈과 재난이 극심한데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해답은 극히 간단합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정신적인 안정을 얻고자 하는 한 가지 소망은 머리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언자 몰몬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의 부활의 권세를 통하여 영생으로 세우심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이니, 이는 약속하신 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신앙을 가질진대 마땅히 소망을 가져야 하리니, 신앙이 없으면 아무 소망도 갖지 못함이라.”(모로나이서 7:41~42)

우리가 시련과 위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균형있는 관점을 유지하는

데는 하나님과 아들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결코 우리의 생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엘마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그가 세상에 나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온갖 시험을 당하시니, 그가 이렇게 하심은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엘마서 7:11)

삶을 살아가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몰라 낙담하고 허위적거리고 있다면 주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갑옷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매일 매일 부딪치는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으며 우리의 가장 큰 약점과 두려움까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에게는 거칠 것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개인적인 고통이나 번민을 피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롭다고 하여 역경이 피해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곧 온 마음을 다 바치고 흔들림이 없는 참된 신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힘입니다. 그러한 참된 신앙은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과 위안과 역경에 대처할 수 있는 용기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내적인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소망은 피어나게 됩니다. 소망은 신앙에서 자라나는 것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줍니다. 또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과 재난과 불법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평화로운 확신마저 갖게 해줍니다.

구세주께서는 세상에서의 성역을 거의 마치실 무렵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마음 든든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소망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고귀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죄와

범법으로 인해 모든 소망을 상실해 버린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방법에 너무 깊이 몰두하다보니 나중에는 출구를 찾지 못하여 결국에는 모든 소망을 상실해버리고 만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덫에 빠진 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결코 체념하지 마십시오! 일이 아무리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제 말을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언제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입니다.

최근에 저는 훌륭한 한 가족을 위해 성전 인봉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식 대부분이 늘 그렇듯이 그 의식도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의 아버지를 몇 년만 더 일찍 알았더라도 그날 주님의 집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허락을 받아 그분이 저에게 보내오신 편지를 인용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태어났으며 제 어머니의 무릎에서 복음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근면과 인내를 통하여 조그마한 간증의 불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 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험난했던 때에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10대의 청소년기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였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사탄은 저에게 맹렬한 기세로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자유롭게 마약을 복용하고 자유롭게 연애하며 자유롭게 즐기는 일에 탐닉하게 되었으며 그 밖의 다른 세상 일에는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처음 술을 입에 댄 이후로 저는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한 후에는 훨씬 쉽게 다른 마약 종류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아주 잘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필요한 온갖 짓을 모두 배우게 됩니다.

“여러 해를 이런 식으로 살다보니 저의 모든 도덕성은 완전히 부식되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세계 양심이라고는 거의 남아 있지 않았으며 오로지 깊은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마약 때문에 숨지고 또 자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와 친구들은

형사범으로 법정에서 서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의 친구들 가운데 많은 수가 아직도 교도소에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피워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작은 간증의 불꽃이 없었던들, 저는 이렇게 편지를 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당자에게서 소망을 포기해버린 부모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이 어렸을 때 배웠던 대로 길을 찾아 돌아와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리라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과 도움으로 그는 정말로 길을 찾아 돌아와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분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무리 좌절감에 빠지고 깊은 늪에 빠졌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날수록 주님과 주님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저는 비로소 회개의 힘이 얼마나 강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이지 그날 여러분 모두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다시 불타오르는 사랑과 인봉실에서 네 명의 아들과 며느리들과 다른 가족들에 둘러싸여 계시던 그분의 어머니의 마음속을 가득 메웠을 장대하기 그지없는 행복감을 여러분도 저 못지않게 느낄 수 있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삶의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기초에 두어야 할 세 가지 거룩한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고린도전서 13:13 참조) 이것들은 다리가 세 개인 걸상의 그 다리처럼 우리를 튼튼히 받쳐주는 지주가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원리 각각이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철십인 정원회의 더블류 유진 헨스 장로와 로버트 케이 델리바흐 장로 및 엘 알든 포터 장로. 헨스 장로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이며 델리바흐 장로는 유럽 지역 회장의 일원이다.

한편으로는 다른 것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이 원리들은 따로 따로 떼어놓게 되면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소망은 신앙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 주고 마찬가지로 참된 신앙은 소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상실하기 시작하면 믿음도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믿음과 소망의 원리가 함께 뭉치게 되면 모든 것 가운데 제일인 사랑이 수반되게 됩니다. 물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 영원히 참을 것이요”(모로나아서 7:47) 믿음과 소망을 완전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가 함께 작용할 때 우리는 이 원리들을 통하여 말일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시련을 비롯한 삶의 가장 험난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필요한 폭 넓고 영원한 안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키워 주며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자신이 현재 직면한 문제에 크게 염려하지 않게 해줍니다. 소망을 통해 힘을 얻게 되면 우리는 매일 매일 순종하고 그리스도인다운 봉사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개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물리적,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실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가 영원히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견디고 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승리하여”(교리와 성약 63:20)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를 칠 목적으로 만들어진 무기가 유용하지 못할 것이...이는 주의 종된 자들의 기업이요”(니파이삼서 22:17)

우리 모두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빌립보서 4:7)을 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이 땅에 그분의 교회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저는 소망과 신앙을 얻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말씀드립니다. 아멘. □

영적인 간증의 불꽃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 주위를 배회하는 악마라는 늑대에 대한 보호책으로서 개인적인 간증의 불꽃을 더욱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세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오래 전에 우크라이나의 시골 지방에는 늑대가 떼를 지어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 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 늑대들은 겁이 없었습니다. 늑대들은 사람이나 혹은 당시에 사용되던 어떠한 무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늑대들에게 겁을 줄 수 있었다면 그것은 불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서 밤을 세워야 하는 여행자들은 커다란 모닥불을 피워 놓고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는 동안에는 늑대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만, 불꽃이 약해지거나 죽는 날에는 늑대들이 공격을 해오곤 하였습니다. 여행자들은 모닥불을 피워 이를 계속 활활 타오르도록 하는 것이 단순히 편의나 위안의 수단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매리 프래트 패리쉬, “성약의 수호자, 성도의 벗, 1973년 3월호, 32쪽 참조)

오늘날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여행하면서 늑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필요는 없으나,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유혹과 죄악의 형태를 하고 있는 사탄이라는 사나운 늑대와 마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굶주린 늑대들이 신앙이 약한 사람이나 신념이 흔들리는 사람을 찾아 영적인 시골을 돌아다니고 있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번째 서한에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베드로전서 5: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원수가 어린 양의 피에 굶주린 이리 떼 같이 배회”(교리와 성약 122:6)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닥불과 같이 마음속에 충분히 새겨져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타오르는 간증이라는 보호막을 통해 자신을 무장시킬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일부 교회 회원들은 자신의 간증이 실제로는 꺼져 가고 있는 촛불에 불과한 데도 작렬하고 있는 모닥불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의 충실함은 의로움이나 하나님에 대한 헌신보다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습관과 더욱 큰 관계가 있으며, 또한 이들은 개인적인 관심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느라 개인적인 의로움을 추구하는 일은 거의 항상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이같이 약한 간증의 불빛을 보호 수단으로 가지고 인생의 고속 도로를 여행하는 사람은 늑대라는 대적의 희생물이 되기가 쉽습니다.

구세주께서는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참된 제자의 길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는 이들에게 불타는 간증을 갖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열두 명의 제자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셨는데, 이 제자들

중 대부분은 주님의 성역 기간 동안 출판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성스러운 저녁에 주님은 선임 사도이며 충실한 친구인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을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밭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누가복음 22:31~32)

잠시 동안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삼 년 전에 한 거룩한 이방인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과 가족들의 생계 수단인 고깃배와 그물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망설이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는, 삼 년 동안 계속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지지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이 지혜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분이 악령을 정복하고 성난 바다를 잠잠케 하며, 적어도 몇 분 동안이라도 물 위에서 그분을 향해 여러분을 건네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께 나타났을 때 그분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 앞에서 그분께서 변형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그분께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은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미덥지 못하다는 뜻이 여러분에게 멩하십니다.

베드로는 놀라서 주님에게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누가복음 22:33)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또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확신이 부족한 베드로를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잡혀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확신을 보여 주었으나, 구세주께서는 그의 간증이 더욱 확고해질 때 그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알고 계셨던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의 간증이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과 같지 않을 때, 자신의 간증이 현재 그러한 불이라고 생각하는 또는 그러한 불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리석게도 간증이 개인적인 반석 대신에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교회 회원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세워지곤 합니다. 여러분은 또 몇 년 동안 간증을 사용하지 않고 영적인 만족에 빠져 여러분의 간증을 점차 꺼져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약해져 가는 이유에 관계없이 구세주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분에게 나아와 그분의 품안에서 강하게 되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로나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내 앞에 이를진대 내가 저들의 언약함을 보이리라. 내가 사람을 언약하게 하였음은 저들로 겸손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은 내 앞에 겸손하게 임하는 자 모두에게는 흡족할지니, 저들이 내 앞에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질진대 내가 언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하리로다.”(이더서 12:27)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간증이 약한데도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간증이 약하다는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하고도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결정이 내려졌을 때 투덜대고 불평을 늘어 놓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고 주장하지만 일요일에 가게에서 음식을 사면서도 불편한 느낌을 전혀 갖지 않으며, 도리어 음식을 축복해 주실 것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말하지만 초등학교 유아반에서 봉사하라고 하면 거절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이사야 29:13)나간 사람들에 관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태복음 7:21~23)

여러분 중에 주님에게서 것처럼 실망스런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간증이라는 영적인 모닥불이 어둠 속에서 늑대들을 멀리 쫓아낼 수 있을 만큼 활활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욱 큰 불을 얻기 위해 마른 장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로마서 3:23) 못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계속 간증을 강화시키지 않아도 될 만큼 발전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전을 위협하며 우리 주위를 배회하는 악마라는 늑대에 대한

보호책으로서 개인적인 간증의 불꽃을 더욱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세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여러분의 간증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성도들과 우정을 나누고 교회의 영감받은 프로그램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위한 안전한 닻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경의 위대한 예언자 힐라맨이 그의 아들들을 가르칠 때에 한 말씀에 그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의 아들들아, 너희를 세울 기초가 되실 이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반석이신 구세주임을 기억하고 다시 기억할지이다.

그리할진대 악마가 그의 세찬 바람을 불어 보내며 회오리 바람을 불어 치게 하고, 그의 우박과 강한 폭풍으로 너희를 휘몰아칠지라도, 너희를 넘어뜨려 비참하고 끊임 없는 저주의 구렁으로 쓸어 넣지 못할지니, 이는 너희가 분명한 토대 위에 세워졌음이라. 이 토대 위에 세움을 입은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힐라맨서 5:12)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태버나클 합창단의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복음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어 교회 회원이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찌면 식품과 다른 필수품을 비축하라는 예언자의 권고를 따름으로써 교회 복지 프로그램으로 인한 축복을 받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돕기 위해 마련하신, 복음이 지니고 있는 놀랍고도 영감받은 일면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지도자나 교사, 또는 회원이 불쾌하게 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여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관한 이야기를 들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총관리 역원들이 자신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저는 그 사람들의 신앙과 그 신앙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에 확고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그들 자신의 생각과 교회와 그 회원들이 당연히 가져야 하는 사회적인 통념에 토대를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잠언 3:5)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감동적인 기도에서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은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3)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 및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진실한 관계를 맺고 이분들을 믿는 신앙의 토대 위에 우리의 간증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확고한 신앙의 토대 위에 서게 될 때, 이제 말씀드린 두번째 제언에 대한 준비가 갖추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간증의 모퉁이에 추가로 장작을 넣어 더욱 밝고 강한 빛을 만드는 단계로 바로 겸손하고 진지한

회개입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욱 빨리 한 개인의 마음속에서 성신의영향력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도 없습니다. 죄는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하여 확신과 안정감을 감소시키며 죄지는 사람들을 구세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채 죄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은 또 다른 죄를 짓고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합리화하면 할수록 사탄이라는 늑대에 의해 파멸될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살인이나 간음과 같이 무거운 죄를 범할 경우 영적으로 위협에 처하게 된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일을 마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이용하는 사람과 외설 영화를 몰래 보는 사람, 또는 학교에서 부정 행위를 하는 학생과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비판하는 사람, 그리고 가정의 밤은 다른 사람들에게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문제는 간단합니다. 무엇이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퇴보를 거치지 않고 죄를 조금 질 수 있는 중간 지대나 또는 희미한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회개하고 겸손한 기도로 그리스도에게 나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닌 간증의 모퉁이가 죄로 인해 꺼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제언은 구세주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본보기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조건 아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은 이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자문을 해보고 난 후에 이에 따라 진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세주께서는 어떤 가정 복음 교사가 되셨을까? 그분도 가끔 가정 방문을 잊어버리셨을까? 전할 메시지도 없이 방문을 하셨을까? 아니면 신한 목사처럼 꾸준히 돌보시고 친절로 방문 가정을 도와주셨을까? 하는 질문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이 어떠한 가정 복음 교사가 되셨을 것인가를 알고 있듯이, 그분께서 어떠한 감독과 교사, 초동협회 지도자, 서기, 또는 청소년 지도자가 되셨을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생애 동안

주님께서 지나셨던 높은 표준에 다다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한다면, 노력조차 하지 않을 때보다는 더욱 커다란 발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일을 할 때에도 이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부모가 되셨을까? 그 분은 어떤 이웃이나 고용주나 근로자나 학생이나 친구가 되셨을까? 가능한 한 구세주께서 세우신 본보기에 가깝게 생활한다면, 간증이 점차 강화되어 우리의 영적인 모퉁이는 결코 약해지거나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험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종 사탄의 영향력이 거세어져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증이라는 모퉁이를 피워 이를 활활 타오르게 하여 우리를 위협하는 늑대를 멀리 쫓는 사람들에게 주신 다음 약속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 41:10)

교회의 힘은 회원들이 지닌 개인적인 간증의 깊이와 활력에 달려 있습니다.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간증이 충실과 불충실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과 보상이 있는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반석 위에 간증을 세우고 겸손하고 진지하게 회개하며, 구세주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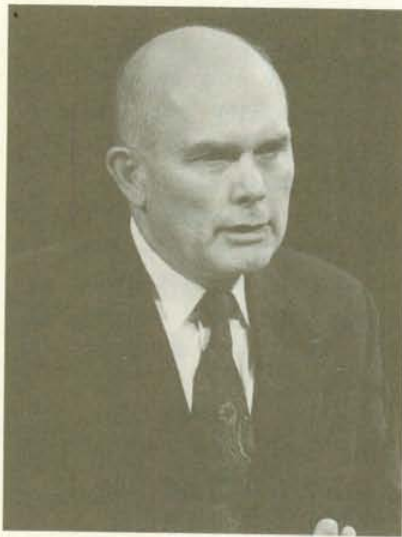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그분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우리는 모두 불사불멸하게 되었으며 죄를 회개하고 진실하게 되며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면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으며 그를 통하여 주님은 이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오늘날 우리의 예언자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성경 이야기와 개인적인 보호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충실한 말일성도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 약한 자들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세계의 신권 소유자들이 모여 가르침과 영감을 받는 중요하고도 감동적인 모임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연세드신 많은 분들처럼 저에게도 여러 곳에서 이 모임을 지켜보고 있는 아들과 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모임이 젊은 신권 소유자들에게 흥미 있고 유익한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로 그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 시절에 저는 저녁 시간을 주로 글을 읽으며 보냈는데 제가 좋아하는 책은 허버트의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신교도 목사가 젊은이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출판한 이 책은 168가지의 성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은 성경 문체로 쓰여졌으며 약간의 문장이 실려 있고 그림이 자주 나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좋아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몇몇 이야기와 가르침 및 그것이 저에게 미친 영향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년 시절에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야 이해하게 된 이야기부터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산 위에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창세기 22:2)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저는 번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변에 산과 짐승이 있는 농장에서 살았으므로 나머지 이야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이삭과 함께 떠났습니다. 저는 이삭이 그의 부친과 함께 이러한 여행을 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삼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과 이삭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처럼 이삭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불과 나무와 칼을 보았으며 아버지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창세기 22:7)하고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간단히 “아들아, 하나님은 준비하시리라”(창세기 22:8)고 대답하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느꼈는지 저는 아들을 갖기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지정된 장소에 왔을 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지어 나무를 없애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창세기 22:9)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이삭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성경에는 반대나 반항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이삭의 침묵은 그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면(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창세기 22:10)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으며 주님이 어린 이삭을 구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고(창세기 22:12)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명했습니다. 이삭 대신에 뿔이 숲에 걸려 있는 숫양이 번제가 되었습니다.

젊은이었던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주로 모험적인 내용을 즐겼으나 이삭의 순종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험이 경전에 나오는 예표, 즉 어떤 것을 상기시켜주거나 그와 비슷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몬경의 예언자인 야곱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명에 따라 희생시키려 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의 예표”(야곱서 4:5)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또한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 그가 죽지 않게 하시고 그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육신의 상태로 인해 우리 역시 이삭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마련해 주셔서 그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전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디모데후서 3:16) 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경전에 기록된 경험을 통해 의로 교육을 받습니다. 경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거나 또는 어긴 결과를 보여주는 이른바 사례 연구를 제공해 줍니다.

젊은이들에게 특히 중요한 한 예는 애굽으로 팔려간 어린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인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서 주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과 농토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창세기 39: 4~6 참조)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직책을 맡은 요셉에게 시험이 닦였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그에게 간음을 하도록 유혹하였으나 요셉은 그 제의를 거절하고 그녀에게 자신은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뿐더러 요셉 자신의 말대로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9절)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제의를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자 그녀는 요셉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경전에는 이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며.”(12절)

의로움에 대한 참으로 설득력 있는 교훈입니다. 현대의 계시에서도 이와 같은 교훈이 주어졌습니다. “악인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주의 그릇을 지닌 너희여 깨끗하라”(교리와 성약 38: 42)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요셉의 모범을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전 이야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의롭고 충실한 아들들을 보호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그 부분이 요셉의 이야기 중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야곱의 큰 아들들이 막내 동생이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기로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요셉을 붙잡아 구덩이 속에 가두어 놓고 노예로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부친에게 요셉이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가나안 들판에서 요셉을 산 장사꾼들은 그를 애굽으로 데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창세기 37장 참조).

애굽에서 요셉은 억울하게 투옥되었으나 그곳에서도 훌륭하게 생활하여 주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얼마 후 요셉은 바로 앞에 나아가 꿈을 해석하여 주고 바로에 의해 애굽의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높은 지위를 가진 요셉은 그의 가족을 기근에서 구하는 도구가 되었으며 그를 학대했던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창세기 40~45 참조).

어린 소년인 저는 요셉의 모험에 흥미를 느꼈으며 주님께서 요셉을 보호하시고 위협과 죽음과 노예 상태와

감옥으로부터 구해내신 것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몰몬경을 읽었을 때, 저는 앞부분에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주님의 손에 보호를 받아”(니파이일서 5: 14)라는 내용을 발견했으며, 그후 경전을 읽으면서 누구라도 이같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시편 31: 23). 또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잠언 30: 5)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관해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예는 양치기 소년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앙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큰 용기를 가졌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때, 골리앗이라는 용사가 나와 그에게 도전할 사람은 나오라고 소리치자 사울왕과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은 “놀라 크게 두려워”(사무엘상 17: 11 참조) 했습니다. 매일 그는 도전해 왔지만 그에게 맞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식량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가 골리앗이 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놀라서 “이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관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26절)고 물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과 싸워도 되겠느냐고 묻자 왕은 거절하며 “너는 소년이요.”(33절)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용기와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37절)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싸우러 나가자 골리앗은 그가 어린 것을 보고 놀려대며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를 죽여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42~44절 참조)

다윗의 대답은 모든 글 가운데 가장 큰 신앙과 용기를 표현한 것에 속합니다. 그 말은 제가 어렸을 때는 물론 지금까지도 저를 감동시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45~47절).

그 다음 일은 모두가 아십니다. 다윗은 몰매로 블레셋인을 기절시키고 그의 칼로 그 머리를 베었습니다. 블레셋 병사들은 대장이 넘어지자 겁이나 모두 도망쳤으며,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추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젊은이들의 의로움에 관한 이 훌륭한 교훈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조롱하고 적대하는 사람들과 대처해야 합니다. 그들 중에는 골리앗처럼 강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다윗의 용기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는 신앙을 가지고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의를 위해 나아갔기 때문에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적의 무기와 그 군대에 대항하기에는 약하고 무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저들의 방패”가(교리와 성약 35: 14)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은 전세계에서 매일 성취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충실한 사람에게 주시는 방패는 우리 자신의 해로운 충동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십니다. 현대의 성도들에게 술, 담배, 뜨거운 음료 및 기타 해로운 물질을 금하도록 명하는 계시에는 이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에게 한 것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89: 21)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언자와 그의 어린 종을 보호하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국을 도와 시리아에 반기를 들게 하자, 그들은 많은 군대를 보내 예언자를 잡으려 했습니다. 엘리사의 어린 시종이 보니 도시를 사방에서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겁이 나서 소리치는 그를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젊은이]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돌렸더라.”(열왕기하 6: 16~17)

주님은 시리아인들을 혼란시키고 어둡게 하여 이스라엘 군대에 포로로 잡히게 하였습니다.

저는 어려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를 엘리사의 시동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주님께 봉사하는 동안 악의 세력에 둘러싸이게 되면 주님께서 제 눈을 밝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와 함께 한 자가 항상 적대자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같은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어려움에서 벗어나거나 늘 죽음으로부터 구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해로 목숨을 잃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은 성경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실현됩니다.

세상 곳곳에서 충실한 말일성도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 악한 자와 그 추종자들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일부 용감한 젊은이들처럼 지상의 사명이 짧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긴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계속해서 수호 천사들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제가 해야 할 일에 있어서 인도를 받고 부상과 악으로부터 보호받은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저를 보호하셔서 제가 다른 사람들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고 또한 제 스스로의 의롭지 못한 충동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 주셨습니다. 저는 어느 무더운 여름밤 시카고 길거리에서 그런 보호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다음 이야기는 지금 처음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릴 저의 제 주제와 잘 어울려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아내 준이 와드 역원 모임에 참석했으므로 제가 차를 가지고 갔더니 우리가 집에까지 태워다 줘야 할 어떤 자매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우드론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블랙스톤 레인저스라는 강패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의 집앞 길가에 차를 세우고 문앞까지 바라다주었으며, 그동안 아내는 61번가에 세워둔 차 속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차 문을 모두 잠갔으며 저는 아내가 유사시에 차를 몰고 달아나도록 차 열쇠를 건네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시카고 남부 지역에서 살았으므로 그렇게 하는데 익숙해 있었습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내려와 길로 나서기 전에 양쪽 방향을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근처에 가로등이 있어서 젊은이 세 명이 지나가는 것 외에는 거리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빨리 차있는 데로 걸어갔습니다.

자동차로 다가가서 아내가 문을 열기를 잠시 기다리다가 저는 그 셋 중의 한 청년이 제게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오른 손에는 무엇인가 들려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청년이 다가오기 전에 문을 열고 들어가 차를 몰고 달아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문을 열려고 몸을 기울이다가 뒷 창문을 통해 그 청년이 손에 권총을 들고 이미 차 가까이 다가온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는 지혜롭게도 문을 열지 않고 한없이 길게만 느껴지던 몇분 동안 바로 눈 앞인 자동차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두려워 떨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제 배에 총을 들이대며 “돈내봐”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빈 지갑을 보였습니다. 그날 아침에 마침 시계줄이 끊어져서 시계조차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개를 주려 했지만 그는 화를 내며 거절했습니다.

“자동차 열쇠를 내봐”하고 그는 요구했습니다. 제가 “차 안에 있네”라고 말하자 그는 “문을 열라고 해”라고 명령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새로 전개될지도 모를 가능한 사건을 생각하고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무서운 기세로 제 배에 총을 들이밀며 “안 그러면 죽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22년 전에 있었지만, 마치

어제 일어났던 사건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어떤 책에서 누군가 치명적인 무기를 들고 앞에 서서 목숨을 위협할 때보다 정신 집중이 잘 되는 때는 없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그 젊은 강도는 계속 요구하며 격양된 목소리로 총을 거세게 들이댔습니다. 그가 저를 의도적으로 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조심하지 않고 배를 찌르다가 실수도 방아쇠를 당길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보니까 싸구려 총 같았으며 또한 그 청년이 총 다루는 솜씨도 염려 되었습니다.

“돈 내봐” “가진게 없네” “차 열쇠 내봐.” “그건 못하겠네.” “안그러면 죽어.” “못하겠네.”

준은 차 안에 있어 우리의 대화는 듣지 못했지만 총을 들고 하는 행동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지 경적을 울려야 할지 차를 몰고 도망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는 여러 가지로 생각했지만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만 같아 그냥 기다리며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평온해지며 일이 잘 될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초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강도 뒤로 시내 버스가 다가와 약 6미터 전방에 멈추어 섰는데 한 승객이 내리더니 휘 지나쳐 갔습니다. 운전기사가 저를 똑바로 봤지만 도움을 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젊은 강도의 등 뒤에서 일어났으므로 그는 좀 두려워 하고 당황했습니다. 총을 든 손에 짐차 힘이 빠지더니 마침내 총구가 왼쪽으로 약간 기울었습니다. 제 손은 이미 조금 들려 있었기 때문에 짐차에 움직인다면 총을 맞지 않고도 총을 잡아 청년과 겨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보다 제가 키도 크고 덩지도 컸으며 당시는 운동 꽤나 했기 때문에 총만 치울 수 있으면 그와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일을 실행하려다가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보거나 들은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총을 잡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린 다투는 과정에서 제가 청년의 가슴에 총을 발사하면 그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평생 동안 그 젊은이의 피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누그러 뜨렸습니다. 버스가 지나간 뒤, 저는 청년의 어깨에 손을 올려 놓고 가르침을 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당시 십대 자녀가 있어서 훈계의 딸이 자연스럽게 흘러 나왔습니다.

저는 “이보게, 이진 옳은 일이 아니야. 자녀가 하는 일은 옳지 않아. 다음 경찰차가 와서 자녀를 사살하거나 감옥에 보낼지도 모르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강도는 총을 다시 제베에 들이대고 세번째로 요구하며 제 훈계에 대응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무척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거절하자 청년을 잠시 머뭇거리더니 주머니에 총을 넣고는 달아났습니다. 아내는 차 문을 열었으며 우리는 차를 몰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제가 어려서 읽었던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기적같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저는 가끔 그 사건의 중요성을 그후에 제게 주어진 책임과 관련지어 생각해 봅니다. 8월의 그날 밤 이후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저는 브리검 영 대학교 총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그 일이 있는 뒤 약 14년 뒤 지금의 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육신의 힘을 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도록 통찰력과 힘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물문경에서 말일의 우리에게 “주님은 주의 권세로 의를 지키”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는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 약속이 주어진 것에 감사드립니다.(니파이일서 22:17 참조) 또한 주님과 맺은 성약을 지키고 거룩한 곳에서 약속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들에게 약속된 모든 약속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음성과 권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속죄로 인해 불사불멸이 성취되고 영생을 향한 기회와 인도가 주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님은 의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딘 엘 라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주님은 그의 백성이 겸손함과 사랑으로 이러한 부를 현명하게 사용해 보일 때 기꺼이 지상의 부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과 정원회 회원들을 대신하여 아이어링 장로님과 페이스 장로님에게 칠십인의 대열에 들어오신 것에 대해 따뜻한 환영을 표합니다. 우리는 또한 8월 중순부터 봉사해 왔으며 핑클리 부대관장님께서 앞서 호명해 주신 15명의 형제들이 정원회 회원으로 부름받은 것을 지지합니다. 또 관리 감독단에서 헤일즈 감독님과 함께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에즐리 감독님과 버튼 감독님께도 우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연차 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칠십인으로 부름받은 형제들에게 우리의 끊임없는 사랑과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1831년, 뉴욕주 페이에트에서 열린 교회 대회 동안 주님은 요셉 스미스를 통해 아주 주목할 만한 약속이 담겨 있는 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계시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또

나는 땅을 부하게 만들었나니, 보라, 땅은 나의 발판이니라. 그러므로 또다시 나는 그 위에 서리라.

“나는 속세의 부 보다 더욱 큰 부를 너희에게 제시하고 또 주려 하노라. 이는 곧 약속의 땅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땅에는 주께서 오실 때에 아무 저주도 없으리라.

“만일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구하면 나는 그 땅을 너희의 상속의 땅으로 주리라.

“이는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이 되리니, 너희는 땅이 존재하는 한 그 땅을 상속의 땅 곧 영원히 너희 자손에게 물려줄 상속의 땅으로 받게 되리라. 또 너희는 영원히 그 땅을 소유하여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38:17~20).

주님은 지상의 주인이 주를 기억하고 주의 지시에 순종할 때 영적인 축복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역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전 인류 역사를 통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경전에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이 자신들이 받는 축복의 근원을 항상 기억하면서 겸손함과 사랑으로 이러한 부를 현명하게 사용해 보인다면 기꺼이 지상의 부로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많은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리하이 백성은 에루살렘으로부터 미대륙에 도착하여 집을 짓고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주님께 크게 의지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니파이는 이러한 사실을 그의 판에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범사를 행함에 모세의 율법을 좇아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의 심판을 따랐으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지라, 우리는 크게 번성하였고, 씨를 뿌려

풍성하게 거두었으며 또한 양과 가축 등 짐승들을 치기 시작하였느니라.

“우리가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며, 생육하여 늘어가기 시작하였느니라.” (니파이이서 5:10~11, 13).

이런 물질적인 부는 항상 사라지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직면해야 하는 커다란 시험 중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인간적인 특성과 다른 요소들을 한결같이 유지한다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볼몬경의 엘마서 1장에 기록된 이야기는 이러한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의 몇 구절들을 읽어 드릴 때 그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된 요인들과 그 뒤를 이어 그들을 불행으로 이끈 요소들에 주목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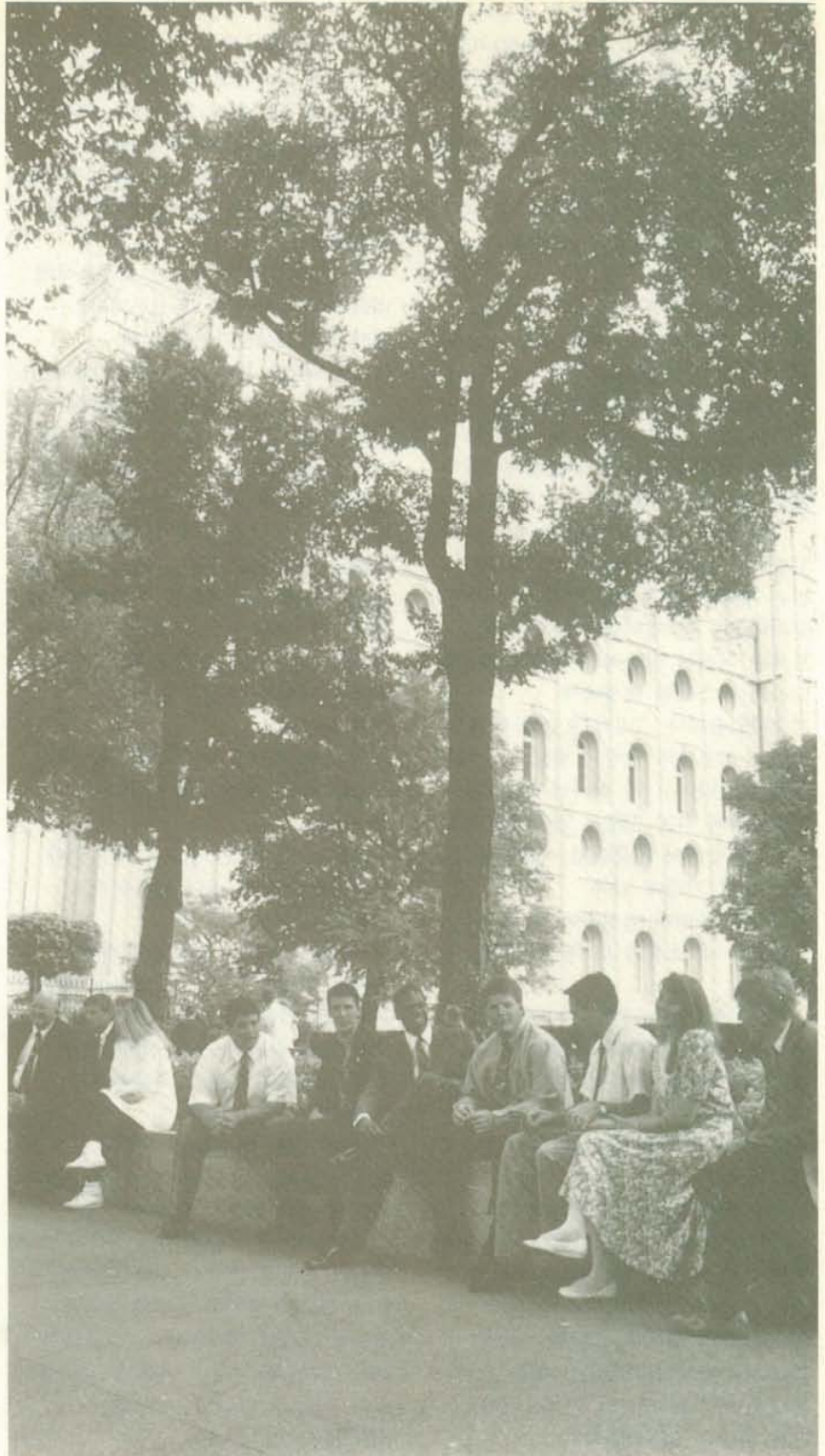
“또한 백성들은, 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던 일을 멈추면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던 일을 쉬었으며, 제사들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난 뒤에는 각기 제 자리로 돌아가 부지런히 저들의 일에 종사하였으니, 가르치는 자가 듣는 자보다 낮지 아니하며, 제사가 저의 말을 듣는 자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지 않더라 이같이 저들은 모두 동등한 가운데, 사람마다 저의 힘이 미치는 대로 힘써 일하였으며,

“각각 저들이 가진 정도에 따라, 궁핍하고 도움이 필요하며 병들어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저들이 가진 재물을 나누어 주었고 값진 의복은 아니나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저들은 교회의 질서를 이루어,또다시 계속하여 평화를 누리니라.

“교회가 굳건하여지매 저들이 심히 부유하게 되어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갖추게 되었고, 가축과 양떼와 온갖 살진 가축이 풍성하였으며, 곡식과 금은 귀중품이 풍성하였고 비단과 정교하게 짠 세마포와 온갖 훌륭한 옷감이 풍성하였느니라.

“저들이 이렇게 번영하면서 헐벗고 굶주리며 혹은 목마르고 혹은 병들고 또 잘 먹지 못한 자들은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험된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그들이 늙었거나 젊었거나, 속박된 사람이거나, 자유로운 사람이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교회에



햇빛에 반사되어 빛을 발하고 있는 슐드레이크 성전은 새로 깨끗하게 단장되어 대외 방문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올해로 백주년 이 된 이 성전은 1893년 4월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이 헌납했다.

속한 사람이거나 속하지 않은 사람이거나를 막론하고 조금도 치우침 없이 거저 나누어 주었느니라.

“이렇게 하여 저들은 더욱 번영하여...” (엘마서 1:26~31).

그것은 항상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이 주님의 뜻과 조화를 이룰 때 거기에는 주님이 그의 자녀에게 주려 하시는 축복을 이끌어 낼 모든 필수적인 요소가 마련되어 있는 듯 합니다. 사랑과 옹화의 분위기가 퍼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날씨와 기후와 다른

많은 요소들까지 그런 것에 응답하는 것 같습니다. 평화와 평온이 계속됩니다. 사람들의 생활에 근면과 발전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우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레위기 26:3~6).

아마 모든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은 후 그들이 누리는 축복의 근원을 잊어버렸을 때 일어났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에 대비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신명기 8:11~14, 17).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엘마서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된 그 번영의 시기로부터 몇 해가 지나지 않아 그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그런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엘마의 기록에서 이 슬픈 사실을 발견합니다.

“판사 치세 팔 년에 교회 회원들이 저들이 힘써 일해 얻은 엄청난 부와 값진 비단과 잘 짠 세마포와 풍성한 양떼와 가축과 온갖 금은 보화로 인하여 교만해지기 시작하였으니, 이러한 물건들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여져 저들은 참으로 값진 의복으로 치장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는 교회 회원들이 교만하여 저서

마음을 세상의 재물과 헛된 것들 위에 두고 서로 멸시하며...”(엘마서 4:6, 8)

힐라멘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힐라멘은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같은 해에 교회가 크게 번영한지라, 수천 명이 회개의 침례를 받고 교회에 가입하였고,

“교회가 크게 번영하고 백성들에게 내리진 축복이 심히 풍성한지라, 대제사와 교사들까지도 심히 놀라워하였으니”(힐라멘서 3:24~25).

똑같은 현상이 재현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번영의 시기로부터 5년 이내에 힐라멘은 교회 회원에 관해 이렇게 보고 합니다. “판사 치세 오십 일 년에도 나라안에 평화가 계속되었으나, 교만이 교회에 스며들기 시작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스며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라 스스로 말하는 자들의 마음에 스며들음이라.

“저들이 교만으로 부풀어올라 많은 형제를 핍박하였으니”(힐라멘서 3:33~34).

그들의 갑작스런 변화로 말미암아 힐라멘은 다음과 같이 비통하게 말합니다.

“이같이 우리는 인간들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또한 연약하여 변하기 쉬운 것인가를 아나니, 참으로 우리는 주가 그의 끝없이 크신 선하심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번영하게 하심을 알며,

“주가 그의 백성들을 번영하게 하실 때에는 농작물과 양과 소와 금은 등, 온갖 모양의 귀중한 물건들을 풍족하게 하시고 저들의 목숨을 보호하시어 저들의 원수의 손에서 구해 내시며, 오직 주의 백성들의 복리와 행복을 위하여 만사를 행하시나니, 그러하실 때에 백성들은 저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저희 주 하나님을 잊으며...”(힐라멘서 12:1~2).

그것은 역사상의 사건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지 관점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를 돌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만일 사람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자신의 축복의 근원으로서 기억한다면 주님이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보증을 받았습니

다. 반면에 우리는 이러한 축복이 조건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림하이 왕이 그의 백성에게 경고했던 것과 같습니다. “보라, 주가 이르셨으되, 나는 나의 백성들이 범법하는 날에 저들을 구제하지 아니하며, 번영의 길을 막으며 저들의 행하는 일들이 걸림돌이 되게 하리라 하셨고”(모사이사서 7:29).

주님께서 그의 사업을 위해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위임해 주신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자신의 생활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성도의 충실함과 순종의 수준을 정직하게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많은 척도들이 나관적이지 않습니다. 전세계 회원 중 소수의 비율만이 십일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십일조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교회의 많은 스테이크를 방문할 때마다 전체의 반도 못되는 가족들만이 금식 헌금을 바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을 받는 성인 남자의 수보다 수련 장로가 되는 숫자가 더욱 많은 상황입니다. 엔다우먼트를 받은 회원의 약 절반 정도만이 현재 성전 추천서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법을 어기는 또 다른 사항에 대한 보고들도 역시 근심거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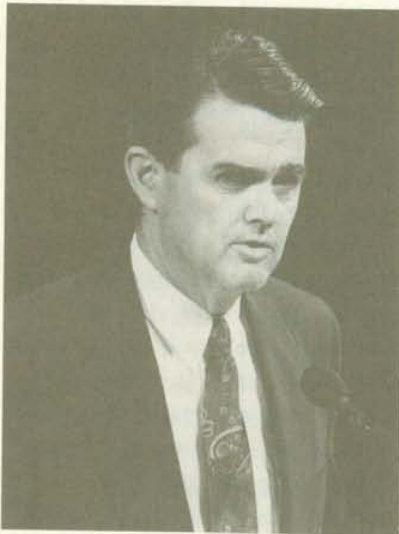
이러한 사실들이 아주 두렵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물론경에서 이노스가 외친 것처럼 때때로 “심히 명료한 말”(이노스서 1:23)로 호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계속하여 더욱 사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의 생활도 세상과 세상의 표준으로부터 더욱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은 커다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우리보다 더욱더 나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면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신앙이며 간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우리의 생활에서 그러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자격을 우리가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회복의 중심입니다

게리 제이 콜맨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복은...우리 생애의 모든 면에 영향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마다 의미있는 길을 따르는 데 초점을 맞추게 해줍니다.”



복 음 속에서 저의 형제가 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밤 여러분 앞에서 제 마음속의 느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짧은이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인생을 위한 확실한 닻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일의 맹렬한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세울 수 있는 바위처럼 굳건한 토대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본적인 원리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열심히 실천함으로써 충만한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으로 이끄는 길을 끝까지 기쁘게 따르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가르침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신성함의 형태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권세가 결여된 인간의 교리와 계명이 뒤섞인 원리에 따라 살았습니다. 종교는 그 당시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가정이 저희 가족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모자랐습니다. 인생의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것이 구름이 낀 듯 확실하지 못했습니다. 청년기에 저는 다행히도 제게 새로운 복음의 문을 열어 준 친절할 말일성도들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교리는 제 인생에서 영생을 향한 길이 되었으며 충만한 기쁨을 주었습니다. 신화의 실존에 대한 지식보다 제게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생애는 매일의 제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날마다 성신의 영향은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일의 예언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그분의 실재성을 간증해 오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이 복음이 참된지 여쭙어 봄으로써 저는 실제로 본 것보다 더 강한 증거를 받았으며 제 영혼은 말보다 더 강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성신의 권세를 통해 저는 오늘날 회복된 복음의 진리가 지상에 존재한다는 감미로운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로 개종하게 된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심없이 아는 것은 제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완전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그 위에 세움을 입어야 할 분입니다. 우리의 토대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입니다.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간증도 역시 그 위에 세워야 하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분입니다. 참으로

하늘 아래 어떤 다른 이름도 우리의 토대로서 충분치 못할 것입니다. 예언자 힐라맨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그는 가장 힘차게 이 성스러운 토대에 대해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의 아들들아, 너희를 세울 기초가 되실 이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반석이신 구세주임을 기억하고 다시 기억할지어다. 그리할진대 악마가 그의 세찬 바람을 불어 보내며 회오리 바람을 불어 치게 하고, 그의 우박과 강한 폭풍으로 너희를 휘몰아칠지라도, 너희를 넘어뜨려 비참하고 끝없는 저주의 구렁으로 쓸어넣지 못할지니, 이는 너희가 분명한 토대 위에 세워졌음이라. 이 토대 위에 세움을 입은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힐라맨서 5:12)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토대위에 세움을 입어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예언자 야곱은 그분을 안전한 기초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 반석이 최후의 유일한 큰 반석이 되리라고 말하였습니다.(야곱서 4:14~16 참조).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야곱의 간증이 참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답대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선포했을 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시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마태복음 16:16~17)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푸신 똑같은 과정으로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 모두가 세움을 입어야 할 기초이시며 또한 계시의 반석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일에 예언자를 불러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였다는 간증으로 제 마음이 충만했던 그 해, 그 달, 그 날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그 순간까지 기억합니다.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의 일을 수행했으며 다시 지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말일의 예언자를 부르십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계시가 계속된다는 원리를 기뻐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는 대관장단과 심이사도 정원회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일원인 샘 케이 시마부쿠로 장로가 동료 칠십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 오늘날 주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가 이야기한 바는 참되도다.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천지가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 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다음 간증과 같이 간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에베소서 2:19~20).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가르침을 받는 경전이 회복된 것을 진실로 기뻐합니다. 당연히 물론경은 참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관해 말해 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에 관해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관해 예언하며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죄 사함의 근원에 관해 간증해 줍니다. 또한 당연히 물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러하셨듯이 당연히 이 말일에도 인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가 이 교회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권능은 이 교회의 권능을 부여받은 신권 소유자들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영생에 관한 모든 의식이 의심의 여지없이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권의 권능으로 땅에서 맺어진 것은 하늘에서도 맺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교리와 의식이 다시금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회복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우리 생애의 모든 면에 영향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마다 의미있는 길을 따르는 데 초점을 맞추게 해줍니다. 참으로 구세주와 살아 계신 예언자들을

따름으로써 영생에 이르는 곧 좁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우리 인생의 경주를 위한 영감받은 교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언자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 너희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며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아버지께서 이르시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이 길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이름은 하늘 아래 다시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니파이이서 31:20~21).

우리가 지상에서 배우는 것 중 일부는 신앙과 회개와 매일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신의 속삭임을 받고 바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음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기에 많이 직면합니다. 모든 부류의 사람이 일반적인 견해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세상에서 결코 인기있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걷는 길에는 발목을 빼게 하거나 발가락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온갖 장애물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나아가며 각자 경주가 끝날 때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집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7~8).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르는 저의 영원한 동반자와 제 자녀들에게 깊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가 이 성스러운 복음의 회복의 충만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하며 말씀드립니다. 아멘. □

아무도 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존 비 덕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이 복음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막을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십시오.”



사랑하는 신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가진 느낌과 감사함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이러한 느낌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형이자 구세주이시고 또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권능으로 말할 수 있는 예언자가 지상에 계심을 아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칠십인으로 봉사하도록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에 깊은 경외심과 겸손함을 느낍니다. 저는 어느 곳에서 일하도록 지명받든 간에 주님의 사업이 계속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봉사의 중요성과 젊은이와 나이든 부부의 생활에서 복음 선교 사업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한 젊은이 여러분께

사적인 이야기에 빠지지 않고 저의 복음 선교사 부름에 관해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962년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으로부터 멕시코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은 얼마 후에 저는 오른팔이 뼈암에 걸려 거의 몇 주도 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그 훌륭하신 분은 제 생명에 대해 저를 축복해 주셨고 선교사 부름을 완수하게 될 것이며 가정을 갖게 될 것이고 전 생애 동안 주님께 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의사는 제가 구세주에 대한 위대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을 축하해 주었지만 제게 자신이 처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납득시키려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저는 그 병으로 인해 한쪽 팔을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팔을 절단한 십개월 후 저는 굉장한 기대를 안고 일할 준비를 해서 멕시코 선교부로 갔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일찍이 젊은 시절에 주님께 복음 선교사로 봉사할 것과 그 부름을 완수하는 것을 막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의사는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항상 제가 살아 있다는 것에 놀라워 했으며 실제로 교회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거의 30년간 한쪽 팔만 갖고 있었다는 것이 제 인생에서 받은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였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도전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좀더 인내하기를 배워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더욱 인내하고

관대하도록 저를 가르쳐 준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는 인생에서 도전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될 특성과 끈기를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도전이 신체적인 것이거나 영적인 것이거나 경제적인 것이거나 또는 정서적인 것이될지도 모르나 그것을 장애나 방해물이라기보다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회와 수단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과 성장은 놀라운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가지 도전을 받으면서도 아주 평온하지만 제가 누려 왔던 실제적인 성장은 언제나 도전과 함께 다가왔음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작가 미상의 한 짧은 시가 있습니다. “진주 조개”라는 시입니다.

옛날에 진주 조개 하나가 있었다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리다.
진주 조개는 제 몸 속에
모래가 들어간 것을 알았다오.
아주 작은 알갱이였으나
아주 고통스러웠다오.
진주 조개는 그저
보통 조개였다오,
이 불행한 처지에 어떤 성화로
그 괴로움을
던져 버렸을까?
통치자에 호소하여
선거 운동을 일으켜
이르기를, 바닷속 우리도
보호받아야 한다 했을까?
아니, 바닷속 깊은 바다에서
자신에게 일렀다오.
“모래를 뱉을 수 없으니
차라에 좋은 것이 되게 하자꾸나”
세월이 항상 그렇듯
상처받은 세월도 흘러서
진주 조개는
어느덧 요리 속으로 들어갔다오.
그러나 진주 조개를 그토록 괴롭힌
그 모래 알갱이는
눈부시게 빛나는
아름다운 진주가 되었다오.
자, 여기에 교훈이 있다오.
한날 진주 조개가 모래 알갱이로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위대하지 않소?
단지 시작만 한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개의 지부와 조직된 한 지방부에 500명의 교회 회원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9세와 20세인 소수의 충실한 선교사들과 두 분의 훌륭한 부부 선교사들이 이룩해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바쳐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이 복음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후아스테카에 도착한 지 약 3주 후에 그 중 한 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는 그때까지 아무 우편물도 받지 못했으며 높은 습도의 무더운 지역에서 모두에게 새로운 문화를 배우면서 다소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한 일 이 분 동안 얘기한 후 저는 그에게 선교 사업이 쉽지 않다는 사실에 관해 함께 얘기했던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네, 맞습니다. 선교부장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커다란 열의를 갖고 앞으로 나아갔으며 아주 성공적으로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두 달 후 그가 브리감 영 대학교에 다닐 때 그와 그의 이전 동반자들 몇 명이 함께 저와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때 멕시코시의 선교부장 집, 시계는 새벽 두 시 반이었으며 우리는 달콤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시 동안 얘기를 나눈 뒤 저는 그들과 함께 얘기하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좀 늦게 전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닙니다, 선교부장님. 하지만 부장님께서도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라고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인생은 쉽도록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웃에게 충실하게 봉사하며 모든 도전을 단호히 영의 지시에 따라 훌륭하게 처리하는 사람들에게 온 영혼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성품을 형성시켜 주는 축복이며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함을 간증드리고 또 현신적인 봉사와 노력에 따르는 축복이 주님의 거룩한 이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저의 간증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모든 것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봉사할 기회를 위협할지도 모를, 여러분 앞에 놓인 도전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 도전은 아마 휴가나 자동차, 여자 친구, 여러 가지 죄 또는 다른 많은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나이드신 형제님들에게는 그 도전이 요트나 캠핑 생활, 낚시 계획 또는 기대하고 있는 결혼식이나 생일을 빠뜨리고 싶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도전이 어떤 것이든 간에 바로 오늘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이 복음 선교사로 봉사할 훌륭한 기회를 막을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선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소망을 감동님께 알려 드리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마태복음 25:40)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면전에 거하기에 합당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봉사하고 회생하는데 있어 복음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한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신체적인 장애와 한계를 갖고 있으며 그럴 경우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보다 다른 형태의 지역 봉사를 하는 것이 더욱 실제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4월 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서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형제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 역사상 여러분의 시대입니다.(히라멘서 7: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형제 여러분, 이 시대는 바로 여러분의 시대이며 오만 명, 칠만 오천명 그리고 십만명의 선교사 대열에 끼어 평화와 의로움과 권세의 무기를 갖고 주님의 군대에서 봉사하는 시대입니다.

70년대 후반에 멕시코시 북 선교부를 관리하는 동안 우리는 후아스테카란 지역에 선교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 개의 지역 사회와 조그만 도시들이 있는 그 방대한 지역에는 단지 한 가구의 말일성도 가족만이 있었습니다. 이년 후 다섯

신권을 행사함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우리는...커다란 용기와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의지와 신앙이 있습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오늘밤 이곳 템플 스퀘어의 태버네클과 어셈블리 홀과 비와이유 메리웃 센터 및 전세계의 여러 예배당에는 주님의 충실한 군대가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신권이 주어졌고,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으며,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소년 사무엘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왔습니다. 신권 소유자들도 모두 그러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사무엘이 엘리앞에서 주님을 섬긴 것을 압니다. 어느날 저녁 소년이 잠을 자는데 주님이 “사무엘아”하고 부르시자,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줄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하고 대답하고 달려가 다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하고 반복했습니다. 사무엘은 잠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 번이나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같은 대답이 반복되자, 주님은 네번째로 소년의 이름을 두 번 반복하시어 “사무엘아, 사무엘아”하고

부르셨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년의 대답은 여러분과 저에게 고전적인 모범이 됩니다. 그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사무엘에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무엘상 3:1~11 참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언젠가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라고 대답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모든 선교사들은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가 그러길 바라며 주님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저는 한 젊은이의 선교사 추천서를 기억하는데, 거기에 감독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 예비 선교사는 제가 추천한 선교사 중 가장 훌륭합니다. 그는 자신이 속했던 집사와 교사와 제사 정원회 역원으로 봉사했으며 학교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아주 잘 했습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젊은이는 못봤습니다. 그가 제 아들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시 선교사 위원회 위원장이신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님은 깊이 생각하시더니 “그의 부모님이 그가 지명받은 선교부에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해외 왕국에서는 그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가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오래 전에 남 아프리카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성전에 가려고 계획하는 성도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 먼 곳에 있는 영국 런던이나 브라질

상파울로까지 가야 했습니다. 제가 남 아프리카를 방문하자 그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저에게 김블 대관장님께 그 나라에 성전을 세우도록 하늘로부터 영감을 구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저는 그 일은 주님과 예언자의 일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는 몬슨 형제님을 믿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솔트레이크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 아프리카에 성전을 짓도록 추천된 것이 이미 승인되어 곧 발표하게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저는 남 아프리카의 회원에게서 “감사합니다. 몬슨 장로님 우리는 장로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 추천을 승인했지만 저 혼자서 그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그분들께 설득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봉사하라는 모든 부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새로운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은 형제님들의 경우도 모두 그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분들 중에서 최근에 *처치 뉴스*(1992년 8월 8일자, 6, 14쪽)에 나왔던 제이 이 켄슨 형제의 삶에서 얻은 훌륭한 교훈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켄슨 장로는 그의 삶의 전환점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 유타주 메이플톤에서 성장하면서 영적인 깨우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가정의 밤이 교회 프로그램이 되기 오래 전부터 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는 부친이 물몬톤에 있는 가르침을 읽어 주시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책을 무척이나 좋아하셨던 것도 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진리에 대한 간증을 갖게 된 것은 요셉 스미스가 첫번째 시험에 관해 쓴 글을 읽고나서부터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젊은 제이와 그의 연인 로나는 선교사 부름을 기다리지 않고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켄슨 장로는 “저의 아버지는 그 일로 무척 상심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우신다고 어머니가 제게 말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일 후, 결혼 계획이 끝나갈 무렵에 제이와 로나는 성찬식에 참석해서 귀환 선교사가 그의 선교 사업에 관해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이는 일어나 감독실로 가서 선교사로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이는 스페인계 미국인 선교부에서 정말 훌륭하게 봉사했습니다.

로나는 직장을 따라 캘리포니아로 가서 스테이크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제이가 선교 사업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맨타이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켄슨 장로의 부친은 아들이 선교 사업을 훌륭히 마치고 성전에서 결혼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켄슨 자매는 당시 애인을 선교 사업에 보내는 것이 가장 힘들었지만 그 이상으로 가치있는 일이었다고 가끔 말합니다. “너무나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재 제이와 로나는 과테말라에서 중미 지역 회장단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이와 로나 켄슨의 삶에 있었던 이 전환점을 생각하면 “역사의 문은 작은 돌쩌기 위에서 돌아간다”는 말을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은 아들과 손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읽어 주십니까? 귀환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메시지와 생활이 다른 사람들이 일어 서서 봉사하도록 영감을 주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이 부르시면 사무엘처럼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름이 오더라도 커다란 용기와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의지와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적이 한때 남부 연방이라고 불리웠던 미국 남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에 관한 일입니다. 1860년과 1865년 사이에 이 지역은 수천, 수만의 미국 젊은 군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소위 피로 물든 지역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땅에는 여기 저기에 낡은 군복 단추와 혁띠 버클 및 총알 껍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꽃다운 청춘에 쓰러져 간 이들은 누구입니까? 많은 이들이 결혼도 못했습니다. 누가 이들의 성전 사업을 해야 합니까? 이들은 영원한 의식을 받을 축복을

계속 거절당해야 하겠습니까?

오래 전에 있었던 그 전쟁과는 어느 쪽과도 관련이 없는 윌리엄 디 테일러는 아내와 가족과 함께 그 남부 지역에 살던 중,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젊은 나이에 죽어간 이들에 대한 관심이 솟아났습니다. 테일러 형제는 남몰래 무엇인가를 서둘러 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테일러 형제는 1992년 7월 20일에 저에게 다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남부 연방군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초출 작업에 관해 새로운 자료를 마지막으로 보낸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이 일을 시작한지는 약 4년이 되었습니다) 초출 작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편지와 함께 성전 사업을 위한 십만 천 명의 명단을 보냈습니다. 이 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제 느낌을 글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새로운 명단이 작성되어 성전으로 보낼 준비가 되면 저는 한없이 기쁘고, 이 지역의 역사 자료가 불충분해서 그 군인의 성명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다음의 시는 테일러 형제의 느낌을 잘 표현해 줍니다.

저들이 한 길을 따라 행군하는 것이 보인다.

한 사람은 푸른색, 한 사람은 회색빛 옷을 입었으며

지금은 다시 손에 손을 잡고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승천한다.

자랑스런 남부군의

조용한 여행이 시작된다.

형제 여러분, 이 일과 관련된 신권 봉사에 관해 설명한 어느 신권 지도자의 편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아론 신권 청남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죽어간 군인들을 위한 침례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성전에 모였습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한 어린 형제들이 그들의 신권 지도자들에게 직접 침례를 받고 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 어린 형제들은 열 네 명 가량의 침례를 끝낼 때마다 거의 한결같이 신권 지도자를 끌어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된 신권의 사랑과 봉사의 관한 훌륭한 모범입니다. 저는 그 침례탕에서 증인이 되어 그 광경을 직접 보았으며 몇몇 경우에는 오래 전에 죽은 그 젊은 군인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아론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이 행하고 있는 침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영의 증거를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침례를 받은 군인들의 성명을 모두 적어서 그곳에 있던 청남들이 자신이 침례를 베푼 군인들에 관해 간략하게나마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그곳에 참여했던 모두가 평생 동안 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이 죽은자의 구속에 관해 하신 다음 말씀은 이와 같은 경험을 한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들을 대신할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그들에게서 속박의 사슬이 풀리고, 그들을 둘러싼 어둠이 걷혀서 저들 위에 빛이 비추어져, 영의 세계에 있는 그들이 이곳에서 자녀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사업에 관해 듣고 여러분이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을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복음 교리,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39년, 469~470쪽).

윌리엄 테일러 형제님, 형제님이 그 군인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 일에서 보여주신 지도력을 칭찬합니다. 그분들도 형제님을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형제는 언제 봉사할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문제는 봉사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월 24일에 태풍 앤드루가 마이애미 남부 플로리다 해변을 강타했습니다. 시속 200마일이 넘는 바람이 불었으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팔만 칠천 채의 가옥이 부서지고 십오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피해 액은 약 삼백 억 달러로 추산되었으며 백 칠십 팔 명의 회원의 집이 피해를 입었고 그중 사십 육채가 부서졌습니다.

교회 복지 기관에서는 폭풍이 닥치기 전에 애틀란타에 긴급 구조반을 편성했으며 폭풍은 정해진 장소로 그 세력이 약해진 채로 닥쳐왔습니다. 식량과 물과 침구와 기구 및 의료 물품이 트럭에 실려 왔습니다. 재난

지역에 긴급 구조품이 도착한 것입니다.

지역 신권 지도자들과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급히 모여 부상자와 피해액을 파악하고 청소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오천 명이 넘는 회원 자원 봉사대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재난을 당한 가정을 돕고 삼천 가구를 복구하는 것을 도왔으며 유대교 회당과 오순절 교회 및 학교 두 곳을 복구하는 일도 도왔습니다. 플로리다 로더데일 선교부에서 46명의 선교사들이 나와 이주 이상 트럭에서 식량을 내리고 통역자로 봉사하고 교통 정리도 하며 집수리도 도왔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이 일과 관련하여 신권 지도자들이 보여 준 가슴이 뭉클한 훌륭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1. 어느 날 아침 켄달에 있는 교회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여인이 자신이 알기로는 교회에서 나와 지붕과 창문을 고쳐 비가 새지 않게 할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고 그녀의 주소를 적고 나서 그녀에게 곧 자원 봉사대가 도착해서 최대한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비용을 먼저 지불해야 하면 누구에게 지불해야 하나요 물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는 울기 시작하더니 겨우 마음을 진정하고 “여러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밖에 없군요. 제겐 어떤 것도 지불할 방법이 없으니까요”라고 말했습니다.

2. 지금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열아홉 살된 젊은이인 잭은 회원들이 태풍에 희생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조지아 중부로 보내는 식량과 의복을 가득실은 트럭을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잭이 막 떠나려고 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양배추 인형과 그밖에 소중한 여기던 인형들을 주었습니다. 잭은 자신의 인형이 모두 못쓰게 된 슬픈 표정의 어린 소녀들에게 그 인형들을 나누어 주면서 특별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3. 아이다호주 세인트 안토니에 사는 한 형제와 그 지역에 사는 다른 지도자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플로리다 남부 사람들이 끔찍한 재난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곧 아이다호산 감자를 가득 실은 대형 트럭을 플로리다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럭은 감자 상자 및 자루를 싣고 대륙을 가로질러 재난이 일어난 곳으로 질주하였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감자는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은 감자를 내려서 즉시 나누어 주었습니다. 플로리다 남부 사람들은 그 감자를 얼마나 고맙게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인스턴트 식품만 먹는데 물려서 감자가 마치 후식으로 먹는 음식처럼 맛있다고 했습니다. 삼일도 안되어 감자는 회원과 비회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졌습니다. 감자를 보낸 아이다호의 회원들 덕분에 그들의 마음과 몸이 모두 따뜻해졌습니다.

4. 엘라배마주 헨즈빌에 사는 한 부부가 보내온 다음 글은 자신의 생활을 모두 제쳐두고 달려와 형제 자매들을 도운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을 통해 갖게 된 특별한 느낌을 알게 해줍니다.

“허리케인 피해 지역으로 가서 맛있는 둘째 날은 일요일이었지만, 우리는 마치 일요일에 솔트레이크 계곡에 있던 사람들이 손수레를 끌고 오다가 커다란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려고 서둘렀던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임시 본부를 설치한 어느 고등학교 축구 경기장과 체육관에서 스테이크별로 성찬식과 간증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다같이 아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신권 소유자들에 의해 성찬이 축복되고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후라이 팬에서 빵을 취하고 야외용 컵에서 물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영은 그곳에 임했습니다. 성찬식이 한 시간이었으므로 원하는 모두가 간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폐회 찬송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계속해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5. 스페인어를 쓰는 어떤 형제와 그 아내가 북미 남부 지역 회장이신 알렉산더 모리슨 장로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모은 저금과 집과 농장과 아보카도 나무들을 태풍에 모두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슨 장로님과 그분의 보좌 및 모든 신권 지도자와 선교사들과 아낌없이 훌륭하게 도와주신 수많은 분들을 축복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참으로 이분들은 사무엘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하고 대답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를 치우는 일은 계속되고 있으며, 하와이 군도의 카우아이섬을 강타한 태풍 이니키에 의한 재난을 치유하는 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재 지변에 사람들이 조용히 대처하는 데에 신권이 참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주님의 사업이므로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뒤를 도우셔서 무거운 짐을 견디게 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밤 이곳에 모인, 신권의 권능을 받고 신권 봉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신 다음 권고의 말씀이 마음의 평화를 주고 영혼을 위로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28~30)

이 성스러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자신의 태버나클을 지음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몸과 마음은 영의 태버나클입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는 우리가 힘과 미덕으로 자신의 태버나클을 짓게 하셨습니다.”



형 제 여러분, 이 위대한 신권회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영감을 느낍니다. 세상 여러 곳에서 많은 모임과 대회가 열리지만 그 어느 모임도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위성 통신의 기적으로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여러 곳에서 하나로 모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각자는 한 개인으로 구별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권과 권능으로 성임되어 모두 한 마음과 한 목적과 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밤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태버나클 안에 있는 성도들의 수보다 솔트레이크시티 외의 여러 장소에서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의 수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음성과 모습이 템플 스퀘어에 있는 이 위대한 오래된 건물에서 여러분에게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독특하고 훌륭한 장소에 다 모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태버나클이 세계에서 가장 큰 모임 장소는 아닙니다. 이곳의 수용 능력은 육천 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그 수의

열배가 앉을 수 있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즉 그 기원과 구조와 특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태버나클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이 태버나클은 125년 전에 완공되어 지금처럼 10월 연차 대회에서 성도들은 위한 모임 장소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연단은 교회의 연차 대회를 위한 고유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브리감 영 대관장님이 125년 전에 이 단상에 섰을 때 이 건물이 그렇게 오래 잘 사용되리라고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건물은 매우 특이합니다. 이와 비슷한 건물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건물에는 이 건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영이 깃들여 있습니다. 그 거대한 둥근 지붕 밑에 앉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미군 장교들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대회를 갖는 중에 태버나클 합창단의 노래를 듣고 싶어하였습니다. 그들이 참석한 일요일 아침은 무척이나 쾌청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간단한 말씀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태버나클과 그것의 건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합창단은 보병 23대 군악대와 함께 했으며 그들은 짧은 연주를 하였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합창단은 힘차게 “전승가”를 불렀습니다.

영광 중에 오실 주님 모습
나는 보았네
진노 가득한 포도즙 틀을
밟아버리고...
진리는 이기리
(찬송가 22장)

저는 관중석을 둘러보면서 전쟁을

겪은 퇴역 군인들의 뺨에 눈물이 흘러 내리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모임을 통하여 사람들이 훌륭하고 감동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영적이며 독특하고 훌륭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1847년 개척자들이 이 계곡에 도착한 나흘 후,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지팡이로 바깥 마른 땅을 두드리면서 “이곳에 우리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만 이천 평의 부지가 템플 스퀘어로 알려졌습니다. 처음 세워진 구조물은 그늘막이었습니다. 그것은 임시로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단지 피약벌을 막아주는 막사로서, 담불로 영성한 지붕을 만들었으며 그것을 몇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이곳으로부터 남쪽에 “태버나클”로 알려지게 되며 후에는 “구 태버나클”로 알려진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겨울과 여름, 모두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박공 지붕과 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위대한 황무지에서 위대한 영감을 통해 인도받았습니다. 그들은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있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에 따라 미래에 대한 꿈을 실천시키기 위한 일을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몇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집회소를 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길이, 약 76미터, 넓이, 약 46미터로 하는 면적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대들보를 만들 강철도 전혀 없었습니다. 볼트나 못 또는 나사못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가 1864년이었으며 그 지역에는 그때로부터 5년 후에 철도가 들어왔습니다.

둥근 형태의 천장을 만들기 위해 여기서 동쪽으로 연결되는 다리 발판을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붕을 이런 구조로 하는 것을 우스꽝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계속 진척되어 갔습니다.

장소는 성전 서쪽으로 정해졌으며 이어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양은 그 자체가 말해주듯이 44 사암 부벽 또는 기둥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타원형으로 튼튼한 기초위에 세워졌습니다. 덧붙인 문들과 둘러싼 이들 부벽이 그대로 건물의 벽이 되었습니다.

동쪽 산에서 가져온 사암을 다듬었으며, 산에서 가져온 석회암을 구어 회반죽과 몰타르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암으로 만든 버팀벽 위에 지붕을 얹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무 발판을 세웠습니다. 동쪽산에서 많은 나무를 날라와 목재로 썼습니다. 무게를 더욱 강하게 받쳐주기 위해 이 나무들을 삼각형의 격자 형상으로 서로 연결시켰습니다. 나무가 서로 만나는 교차점에 구멍을 뚫고 나무못을 박았습니다. 나무 못이 구멍에 꽂히어서 나무가 쪼개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나무는 녹색의 생가죽으로 감아 주었습니다. 그 건축가는 생가죽이 말라서 오그라지면 그 쪼개진 곳을 바깥 쪽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붕과 천장 사이의 27미터의 공간은 나무 교각으로 받쳤습니다. 이전에 누구도 그와 비슷한 것을 본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훌륭한 건물은 내부에서 지붕을 받쳐주는 기둥없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건물의 완성을 의심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내부의 발판을 거둬내면 그 지붕도 함께 내려 앉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판을 들어냈지만 지붕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25년이 흐른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공학자가 정기적으로 이 건물은 검사해 보는데 전혀 썩거나 약해진 곳이 없음을 보고 놀랍니다.

이 태버나클은 미시시피 강변의 개척자 마을에서 약 2,08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며 태평양 해안의 정착지로부터 1,28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이 외딴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의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설계한 사람들의 기술을 생각해 볼 때 그 기술 뒤에는 위대한 영감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짓던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면 저는 신앙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종의 음성이 세계로 전해져 나가는 이곳 광야에 진정한 태버나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태버나클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 건물에서 시작한 합창이 63년 이상 방송되어 전세계 수천만

사람에게 알려진 솔트레이크시 템플 스케이의 물론 태버나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던 시절에 비록 나무로 짓고 현대 공학과 건축상의 전문적인 지식 없이 설계하여 세웠지만 그것은 125년동안 독특하고 훌륭한 예배와 문화의 집으로 봉사해 왔습니다.

저는 브리감 영 대관장님이 여기서 나무를 짜맞추는 사람들을 보며 "강하게 만드시오. 형제님, 튼튼하게 만드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몸과 마음은 영의 태버나클입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는 우리가 힘과 미덕으로 자신의 태버나클을 짓게 하셨습니다. 오직 이러한 힘 속에만 안전과 성장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은 사람들로부터 받을 영속적이고 강한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강하게 만드시오!** 입니다.

이것은 경전에 나오는 예언자와 지도자들이 말씀한 똑같은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왕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힘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비극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으며 "죽을 날이 입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의 명을 지켜 그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열왕기상 2:1~3)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모든 남성들에게 주는 권고입니다.

강하게 되십시오.—자신을 자제하여 강하게 되십시오. 자제하지 못하여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자기의 힘과 의지를 허비하는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아하는 어떤 사람이 보내온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35세의 남성이며 개종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성년 시절의 대부분을 외설물을 탐닉하며 보냈습니다. 고백하기에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마치 술과 약물에 중독된 것처럼 그러한 것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처음 그러한 것들을 접하였습니다. 사촌형이 저를 성적으로 희롱하였으며 저는 외설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렇게 성과 외설물에 접한 것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러한 것에 빠져들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외설물 사업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전혀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자유의지를 잃은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닳이며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교회의 형제들이 자신의 생활에서 모든 외설물을 피하고 없애버리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힝클리 부대관장님, 저와 또 저와 같은 교회의 다른 회원들이 이 무서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형제 여러분, 품위를 떨어뜨리고 멸망을 초대하는 이러한 외설물을 탐닉하는 유혹에 지게 되면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텔레비전에 그러한 것들이 상영되면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우유 부단하게 그 앞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킬 수 있는 자극적인 비디오 테이프를 피하십시오. 그것들은 다 똑같은 종류입니다. 외설적인 잡지와 다른 해로운 서적을 멀리 하십시오. 그러한 파괴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여 성품과 자제력을 망치는 경험에 비해, 보고 읽어야 할 훌륭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강하게 되십시오—옳은 것을 강하게

지키십시오. 우리는 타협과 묵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직면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이 올바른지 알지만 동료들의 압력과 우리를 설득하는 기만적인 메시지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타협하고 묵인합니다. 그리고 굴복당하고 나서는 스스로 수치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신권 소유자로서 자신의 신념을 따를 힘을 길러야 합니다.

지금 전세계에는 크리스토퍼 콜럼부스의 미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제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콜롬부스의 전기작가인 사무엘 엘리엇 모리슨 제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492년] 10월 11~12일 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운명적인 날 중의 하나이며 어떤 배도 경험하지 못한 중대한 경험을 한 날이었다.” (대양의 제독: 크리스토퍼 콜럼부스의 생애, 보스턴: 리틀, 브라운 앤드 김퍼니, 1942년 223쪽)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여 물문경에 나오는 한 중요한 예언적인 구절들을 되풀이하여 읽었으며 또 크리스토퍼 콜럼부스의 긴 전기도 읽었습니다.

그 구절들은 니파이의 시현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사람이 이방인들 가운데 섰는데 큰 물로 인하여 나의 형제들의 자손에게서 떨어져 나와섰더라,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임하심에 저 큰 물을 가로질러 약속의 땅에 있는 내 형제들의 자손들에게로 나아가니라.”(니파이일서 13:12).

우리는 그 사람이 콜럼부스를 말한다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기록된 것이 흥미있습니다. 40년 전에 플리처 상을 받은, 대양의 제독이라는 그의 긴 전기를 읽은 후 저는 그가 신앙의 사람이며 게다가 불굴의 의지를 갖춘 사람이었음을 전혀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념적인 해를 맞아 다수의 비평가들이 그를 비난하고 있음을 압니다. 콜롬부스보다 먼저 이 땅에 온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찾자 신앙으로 영감을 얻어 준비되었고 그 과정에서 미대륙을 발견했던 사람은 바로 콜럼부스입니다. 당시에 그가

아무도 가보지 못한, 더 멀리 서쪽으로 미지의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해 나간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선원들로부터 불평과 폭동에 가까운 저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절대자의 인도를 간구하여 항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스페인 국왕에게 보내는 보고서에서 콜롬부스는 자신의 항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으며 또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복하여 역설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위험과 불확실한 것을 마주하는 데 불굴의 힘을 지녔던 것에 깊은 존경을 바칩니다.

형제 여러분, 자비로운 성품을 갖추어서 강하게 되십시오. 가정과 직장에서 말과 행동으로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이 병든 세상은 친절과 사랑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덕을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사람에게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사가야 다음에 말한 그런 힘을 갖추어 강하게 되십시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이사야 35:3~4).

또 주님은 현대의 계시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함으로써 너는 네 동포에게 가장 훌륭한 선을 베풀며 네 주되시는 이의 영광을 증진시키리라.

“그러므로 충실하라. 내가 네게 임명한 직분을 감당하라. 연약한 자를 북돋아 주며 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 하라.”(교리와 성약 81:4~5).

형제 여러분, 완전한 정직을 통해 얻는 힘을 갖추어 강하게 되십시오. “거짓말도 조금 하고 사람의 말을 트집 잡아 이익을 얻으며, ...이웃을 빠뜨릴 함정을 파”(니파이일서 28:8)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니파이는 그 당시의 백성을 그렇게 묘사하면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 묘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를 믿는다.”(신앙개조 제13조)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거짓말과 작은 속임수와 작은 도둑질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리려는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완전한 정직의 미덕을 통해 강하게 되십시오.

강한 신앙을 갖고 행하시고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강하게 되십시오. 이것은 능하신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사업에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써보낸 훌륭한 위대한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에베소서 6:10~12, 14~16).

저는 125년 동안 말일성도의 태버나클로 사용되어 왔으며 우리가 그 안에서 모임을 가졌던 이 거대한 건물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은사로 주신 이 필멸의 개인적인 태버나클, 즉 육신으로 거하는 동안 내적으로 힘을 길러야 함을 상기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에 강하게 되십시오. 그분은 이 위대한 사업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분의 신성함과 실재성에 대해 저는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던 흠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의 고통과 수난을 통해 저는 화해와 영생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스승이자 모범이며 또한 친구이고 제가 세상의 구속주로서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교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
대관상단 제1보좌

“주님은 언젠가 발생하지도 모를 어떤 긴급 사태에 대처하고 교회가 직면하는 모든 우발적인 상황에 잘 대처해 나감으로써 중단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몇 주 전 한 지역 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에 경험한 것으로서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기억되는 일이 있습니다. 공항에 이를 무렵, 비행기 기장이 분명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기내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위급한 상태에 있으니 주의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승무원들이 여러분께 지시 사항을 알려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원들은 즉시 행동 개시에 들어갔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그들이 받은 훈련대로 행동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임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식기를 신속히 보관소에 집어 넣고 잠겼습니다.

승객들을 이동시켜 건장한 사람들을 각 비상구에 배치시켰습니다.

우리는 안경을 벗고, 머리를 숙이며, 발목을 꼭 붙잡으라는 지시를 들었습니다.

바로 제 뒤에서 아기와 함께 앉아 있던 한 여인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훌쩍거리고 있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이것이 단순히 가상 연습이 아니라 심각한 사태를 수반한 실제 상황이란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종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 허리를 굽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비번 조종사입니다. 주요 제어 장치가 고장이 났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조종사들이 착륙 바퀴와 날개에 달린 부익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상스럽게도 두렵지가 않았습니. 오랜 세월 동안 비행기 여행을 하면서 공포를 느꼈던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마음이 대단히 편안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비행기에는 이와 같은 비상 사태에 대비해 대체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승무원들은 이에 대한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대체 장치의 효능은 몇분 후 바퀴가 활주로에 닿으면 알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순간은 즉시 다가왔습니다. 착륙 바퀴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비행기가 서서히 멈추도록 엔진이 제기능을 다함으로써 기체가 안착을 하자 모두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방차들이 근처에서 대기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출구로 인도되었으며, 승무원들에게 정중히

감사와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차원에서 상기해 보았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머리되시는 분은 우리의 예언자이십니다. 예언자는 거룩한 부름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와 같은 거룩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입니다. 그분들을 필멸의 육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예언자이신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소중한 분으로 바라봅니다. 그분은 위대하고 은사를 지닌 지도자이시며, 그 음성은 전세계에 이 사업에 대한 간증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날 이 지상의 모든 신권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에 하였던 그 많은 일들을 수행할 수 없는 연세에 이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예언자로서의 부름을 손상시키는 일은 아닙니다. 단지 그분의 활동에 제한을 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보아왔습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님도 고령인 상태에서 이 직책을 수행하셨습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데이비드 오 맥케이, 조셉 필딩 스미스, 그리고 좀더 근자에 들어서는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관장님도 그러하셨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체제를 분명히 알지 못한 채 대관장님의 연세 때문에 교회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완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이 제도의 근본적 성격에서 보면, 이에 훈련된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운영에 대해 잘 교육되어져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신권의 열쇠를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주님께서 그분의 왕국내에 독특하고 놀랄만큼 훌륭한 대체 및 보완 제도를 만드셔서 언젠가 발생할지도 모를 긴급 사태에 대처하고 교회가 직면하는 모든 우발적인 상황에 잘 대처해 나감으로써 중단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제가 단순히 가정해서 말씀드린다는 인상을

주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계는 이것이 경이롭게 항상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오후 우리는 에즈라 테프트 벤슨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했습니다.

다음으로 그의 두 보좌와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들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했습니다. 그와 같이 지칭하고 권능을 부여하여 지지된 열 다섯 분의 형제님들로 인해,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왕국은 질서의 왕국입니다. 교회의 지도 체제에는 어떤 혼란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사도직에 성임되고 십이사도 평의회 일원으로 성별될 때, 그는 하나님의 신권의 열쇠를 받습니다. 이렇듯 성임된 15명의 생존해 있는 사도들 각자가 이러한 열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대관장님만이 모든 열쇠를 온전히 사용할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형제들에게 여러 형태로 열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는 열쇠를 갖고는 있지만, 주님의 예언자가 그에게 허용한 정도까지만 이를 사용할 권능을 갖습니다.

그러한 권능은 벤슨 대관장님이 위임하신 여러 가지 책임에 따라 그분의 보좌와 십이사도들에게 부여되어 왔습니다.

주님의 계시에 의해, “멜기세덱 신권을 가진 대제사들 중에서 세 사람의 관리 대제사가 선출되어 그 직분에 임명 성임되며 교회 회원의 신임과 신앙과 기도로써 지지되어 교회의 대관장단인 정원회를 구성하느니라.”(교리와 성약 107 : 22)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신권의 대관장단은 교회 안의 일체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107 : 9)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면, “대관장이 교회의 평의회를 관장함은 그 직분의 위임으로 할 것이며 그 자신이 임명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명된 두 사람의 회장단의 보좌를 둘 특권을 가진다.”

“또 보좌로 임명을 받은 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다 부재시 일치라도 그는 보좌 없이 회의를 주관할 권능이 있다. 대관장 자신이 부재시에는 보좌인 관리자 두 사람 또는 어느 한 사람이 그를 대신하여 주관할 권능이 있다.”(교리와 성약 102 : 10~11)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좌로 봉사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권능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바램은 직책상 대단히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 우리의 지도자를 보필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현재 8백만이 넘는 회원을 갖고 크게 번창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방대하고 복잡하며 복합적인 요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책임도 많고 다양합니다.

한편 특정 개개인의 상황과 관계없이 교회의 사업은 질서 정연하게 전진해 나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킴볼 대관장님께서 병환중일 때도 그러했듯이 우리는 훌륭히 입안된 정책을 주저함없이 수행해 왔습니다. 확고하게 수립된 정책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에 앞서 대관장님과 상의해 허락을 받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직책에 부름받은 분의 뜻에 어긋나는 권능의 행사나 혹은 그에 반하는 어떤 일을 말하거나, 행하거나,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 있어선 절대 안됩니다. 우리는 충성스런 종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예를 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대관장님이 묘소 지시하신 정책에 따라 해야 할 때에 해야 할 것을 수행하고자 할 뿐입니다.

제가 지적했듯이 사도 직분의 열쇠를 부여받은 다른 열 두분이 계십니다. 계시의 말씀도 그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이 순회 평의원은 부름을 받아 십이 사도가 되나니,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이 될 자들이니라. 저들은 정원회를 구성하며 권능과 권세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세 관리 대제사와 동등하다.”(교리와 성약 107 : 23~24) 아무런 혼란없이 동등한 권능을 지닌 두 개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셨습니다.

“십이사도회는 순회 관리 고등평의회로서 교회의 대관장단의 지시 아래 주의 이름으로 직무를 집행하느니라”(교리와 성약 107 : 33)

이 점에 관해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이사도의 의무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특별한 부름이며 대관장단이 온전히 존재할 때는 항상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의 지시를 받습니다. 교회에는 동시에 두개의 머리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러한 것은 성임하시지도 않으시며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교회에는 항상 머리가 있으며 대관장단이 사망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해체되면 교회의 대관장단의 직분을 맡을 권능을 가진 세 명의 관리 대제사로 대관장단이 다시 조직될 때까지 십이사도가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복음 교리, 160쪽)

바로 여기에 주님의 지상의 왕국을 통치하기 위한 훌륭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행할 권능은 오늘날의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동안 성임하신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의 손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권능의 수행은 질서 속에서 이뤄집니다.

이제 저는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에 관해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직에 계시는 그분들 모두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0년간 이 직책에 계셨던 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가운데 교회의 높은 직책을 맡으셨던 분은 한분도 없었음을 확신합니다. 어떤 분도 그것을 얻고자 운동을 하시진 않았습니니다. 자신이 그 직책에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분은 한 명도 안계셨다고 봅니다. 이는 진실로 보기 드문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공직 관리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막대한 자금이 사용되고 있으며, 자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자의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십만 명의 운동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사업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올바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교회 회원이라면 교회 직책에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 입니다. 그보다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직원

대관장단



고든 비 헐리 부대관장



이조리 태프틴 대관장



토마스 애스 문스 부대관장

십이사도 정위원회



하워드 디볼록 친더



보이드 케이 팩커



마빈 제이 에슈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널 에이 맥스웰



로널드 웬 넬슨



머릴 에이치 옥스



엔 브렌 넬리드



조셉 비 워스리



리처드 지 스코트

칠십인 회장단



칠십인 제일 정원회



안철 이노래아



문돈 재이 브라브



문돈 재이 호부취



진 활 록



박 재이 퍼다스투운



체프리 옹 홀른드



박재이 퍼다스투운



김병조 벤 비 벵크즈



조재이 커머



로버트 키이 텔라바호



로버트 키이 텔라바호



박재이 퍼다스투운



박재이 퍼다스투운



박재이 퍼다스투운



테디 이 뉴루아틴



윌리엄 할 브라드포드



스캇 재이 콘디



헨리 비 아이어링



알렉산더 지 황영



윌리엄 할 브라드포드



로버트 이 윌스



라이언 위 벵커즈



조세이 김



로버트 키이 텔라바호



로버트 키이 텔라바호



박재이 퍼다스투운



박재이 퍼다스투운



박재이 퍼다스투운

칠십인 제이 정원회



라이언 위 벵커즈



조세이 김



로버트 키이 텔라바호



로버트 키이 텔라바호



박재이 퍼다스투운



박재이 퍼다스투운



박재이 퍼다스투운



윌리엄 할 브라드포드



스캇 재이 콘디



헨리 비 아이어링



알렉산더 지 황영



윌리엄 할 브라드포드



로버트 이 윌스



라이언 위 벵커즈



조세이 김



로버트 키이 텔라바호



로버트 키이 텔라바호



박재이 퍼다스투운



박재이 퍼다스투운



박재이 퍼다스투운



윌리엄 할 브라드포드



스캇 재이 콘디



헨리 비 아이어링



알렉산더 지 황영



윌리엄 할 브라드포드



로버트 이 윌스



라이언 위 벵커즈



조세이 김



로버트 키이 텔라바호



로버트 키이 텔라바호



박재이 퍼다스투운



박재이 퍼다스투운



박재이 퍼다스투운



라이언 위 벵커즈



조세이 김



로버트 키이 텔라바호



로버트 키이 텔라바호



박재이 퍼다스투운



박재이 퍼다스투운



박재이 퍼다스투운

관리 감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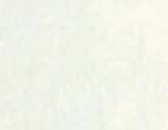
박재이 퍼다스투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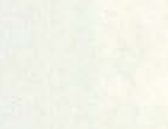
박재이 퍼다스투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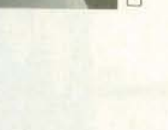
박재이 퍼다스투운



박재이 퍼다스투운



박재이 퍼다스투운



박재이 퍼다스투운



박재이 퍼다스투운



예언과 권능있는 자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는다.”(신약개조 제5조)

주님 자신도 그분이 택하신
십이사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요한복음 15 : 16)

제가 알고 있는 분들로서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아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고, 유희과
잘못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주님께 간구하며, 자신의 부름을 잘
수행하도록 힘과 지혜를 간청하지
않은 경우는 한번도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총관리 역원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벤슨 대관장님에
대해서도 압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면서 그분의
간구도 들었습니다. 또한 그분의 마음을
알고 있으며 그 선하심에 대해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의 진실성에 대해서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분이 예언자로서
주님께 간구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진실됨에 대해서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대관장단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토마스 에스 몬슨 형제님에 대해서도
압니다. 그분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소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워드 더블류 헨더
회장님으로부터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선임 순위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각 회원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저와 동참자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중 어느 분이 이
성스런 직분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부름을 받으셨고 어떤
경우에는 부름을 받는 과정에서 크나큰
희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성회를 갖습니다. 정기적으로 주님의
만찬인 성찬을 함께 취하여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과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며, 우리가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이름을 새로이 받들니다.

형제로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제반 문제를 토의합니다. 인간은 모두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배경과 경험에 입각해 토론합니다.
주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강화시키는
방법을 의논하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은
토론의 서두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이 끝나기 전에
만장일치가 이뤄지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이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주님
자신도 그와 같은 의견의 일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상이한 종류의 통치
제도입니까? 교회는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통치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조직에 있어
독창적입니다.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신병이나 연로함으로
인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업이 흔들리거나
좌초하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예로 돌아간다면, 장기간
심도있게 훈련받은 승무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체제하에서는 한
두명의 지도자가 처할 수 있는 난관에
관계없이 전세계의 교회를 운영하고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완 및 대체
장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형제님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온전함과 신앙을 증거합니다.
또한 그분들은 영감과 계시의 음성으로
부름받으셨음을 증거하는 바입니다.
모두가 시험받아 강해진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의
임무를 함당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리신 지시와 축복이 있어야
함을 인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 여러분은
이러한 지도 체제가 이 교회를 잘못
인도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는 그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그분의 기록한 뜻과 화합하지
못하는 이들을 직책으로 부터 물러나게
하는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운데 누구도 사적인
목적이나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계획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권고나 경고의 말씀을 할 때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는 일점 일획도 개인의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어떤 목적이나
이유없이 경고하지 않습니다. 여러
일들에 관해 피력된 결정 사항들은
심사 숙고와 토론과 기도 없이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지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과 가족 및 생활을 돕는 데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총관리 역원으로 30년
넘는 세월을 봉사하면서 얻은 개인적
간증에 따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기간 중 20년을 저는 십이사도의
일원으로 보냈습니다. 또한 나머지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은 대관장단
보좌로 봉사했습니다. 저는 이 체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압니다. 그 계획
및 권능 또한 신성함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 외의 다른 어떤
사항도 가르칠 의사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들 정원회 또는
그중 하나가 내리는 결의는 참으로
정의와 거룩함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신앙과 유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애와 사랑으로써
이루어져야 하나니”(교리와 성약 107 :
30) 바로 이러한 정신에서 우리는
봉사하려고 합니다.

나아가서 그분은 자신의 종들이
가르친 바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신앙으로 받아
들이며 의를 행하는 자는 영생의 관을
쓰게 되리라. 그러나 불신앙으로 자기의
마음을 강박케 하여 거절하는 자는
정죄를 자초하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20 : 14~15)

우리가 회원들에게 안식일을
준수하고 이날에는 상행위를 금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주님께서 고대에 선포하신 사실과 현대의 계시를 통하여 그분이 확인하신 점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도박에 반대하는 말을 할 때는 우리 앞에 사셨던 예언자들이 하신 말씀을 단지 반복하는 것 뿐입니다. 가정의 기초를 강화하라고 강조하는 취지는 오로지 가족의 생활을 축복하려는 데 있을 뿐입니다. 십일조의 법을 준수하라고 권고할 때는 주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 이 경륜의 시대에 새로이 확인하셨던 바를 반복하는 것 뿐입니다. 음화와 비도덕적인 것과 마약 등을 금하라는 우리의 경고는 예언자들이 늘 행하셨던 부분들에 불과합니다.

에스겔은 우리의 임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숫군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에스겔 4:16)

우리에게는 형제와 자매가 행복하게 되고, 화평과 사랑이 그들의 가정에 깃들며 그들이 여러 가지 의로운 일을 행함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로 축복받기를 간구하는 것 외에는 어떤 사사로운 욕심도 없습니다.

저는 이와같은 임무에 있어 우리들에게 손을 들어 관대한 마음으로 지지를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일은 살아 계셔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입니다. 또한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세주이자 구속주이시며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의 성스런 권능과 계시의 음성을 통해 부름받아 오랜 봉사 기간을 통해 훈련된 예언자 및 기타 지도자들과 더불어 이 지상에 세워졌습니다. 이 사업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공해 나갈 것 입니다.

주님의 사업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모든 분들과 그 원리에 따라 살고자 신앙과 기도로써 수고하는 분들은 현세에서 행복과 성취를 이루며 내세에서는 기쁨과 영생을 축복으로 받으시리란 약속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여러분의 상처받은 삶을 치유함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사탄은 우리의 행동을 선택의 권리로 합리화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따금 여름이나 가을이 되면 형들과 함께 버지니아의 외딴 시골에 있는 진 아저씨 농장에 가서 즐겁게 보내던 아주 멋진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향기 그윽한 들꽃들이 나 있는 숲속을 산책했습니다. 이곳 저곳을 날아다니듯 하는 다람쥐와 오색의 산새들이 신기하기만 했으며, 간혹 여우와 꿩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굵이쳐 흐르는 시냇물은 물고기를 잡고 싶은 욕망을 갖게 했고 맑고 시원한 샘물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핫도그를 구워 먹으면서 감자 샐러드와 상큼한 오이 피클, 그리고 집에서 만든 아이스크림과 더불어 애플 파이 등을 곁들이기도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담아둔 통의 손잡이를 돌릴 때마다 당시로선 자주 먹지 못했던 그것이 어떤 맛일지를 한껏 기대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도 가장 소중한 기억은 진

아저씨가 아름다운 시냇가 키 큰 나무에 매어 주신 그네를 타던 일입니다. 앞뒤로 넓은 반원을 그려 가면서 그네를 타느라고 우리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순수한 동심에 젖었습니다. 누가 가장 빠르게 높이 올라가는지를 보기 위해 등을 웅크리고 발을 힘껏 뻗고는 했었습니다. 그 일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순수한 기쁨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한번은 형 제랄드가 좀 더 흥미를 북돋아 주기 위해 저를 그네 위에 앉힌 뒤 그네를 돌려 줄을 꼬았습니다. 그런 다음 줄이 꼬인 반대 방향으로 저를 힘껏 돌리자 꼬였던 줄이 풀리면서 그네가 점점 더 빠르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속도가 붙기 시작하자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쾌감은 순식간에 어지러움과 구토와 공포심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 끔찍했던 일이 끝났을 때 저는 머리가 빙빙 도는 듯해 몸을 가눌 수가 없었으며, 위장이 정상 기능대로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제랄드 형은 내내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침내 그네에서 내리자 형은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무척 재미있지, 그지?"

속으로는 "정신나갔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래, 참 재미있었어. 형도 한번 타 봐. 얼마나 흥미 진진한지 보여줄테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생활하시면서 이와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님께서 주신 수없는 훌륭한 경험, 값지고 건전한 관계, 및 지상의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대신에 그분이 정하신 한계를 벗어나 세상적 즐거움을

추구하지는 않으십니까? 부정적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을 아시면서도 일시적 향락을 구하지는 않으십니까? 좀 더 많은 것을 갖겠다는 끊임없는 욕구로 인해 유혹받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와 같은 욕망 때문에 죄의 부정적 결과로 빚어지는 것들을 개선시켜 보겠다는 동기가 사장되지는 않으니까? 대단히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줄 분명히 알면서도 더한층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언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중지할 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비록 겉으로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킬지라도 조용히 자신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자신이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시인하실지도 모릅니다. 또한 겉으로는 문제를 타인의 탓으로 돌릴지도 모르나, 속으로는 약속을 어겨 신용을 잃고 진리를 부인함으로써 이제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람은 자신을 더욱 더 함정으로 몰아넣는 것 입니다. 결국은 탈출구가 없고 절망감만이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을 도우려는 생각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혹시 제 말씀이 여러분의 고정 관념과 어긋날지도 모르나 잠시 동안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무엇을 할지 지시하면서 여러분의 생활을 좌지 우지하려는 사람들에게 싫증이 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할 권리는 결국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삶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영원한 유익이 되는 자유의지와 주님의 진리와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리와 빛을 받아..."

"빛과 진리는 저 악마를 버리느니라...
"저 사악한 자는 와서 불순종으로 인간의 자녀로부터 빛과 진리를 빼앗아 가느니라."(교리와 성약 93:28, 37, 39)

주님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준 도덕적 양심에 따라 모든 사람이...교리와 원리에 알맞은 행위를 하게 하며 심판의 날에

저마다...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01:78)

이와 같은 성구는 거짓말, 절도, 도박, 알콜 혹은 마약 중독, 부도덕, 학대 행위 및 기타 그와 유사한 그릇된 선택의 결과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사람은 자유의지를 사용해 진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조언을 받을 때 여러분은 "글쎄요. 그것은 당신의 표준이자 원리겠죠. 저는 저대로의 방식이 있어요."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진리를 변경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합리화, 과도한 이기심, 모든 논쟁, 분노 혹은 자신의 뜻을 행사하려는 것 등도 진리를 바꿔 놓을 수 없습니다. 사탄도 이 사실을 알고서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할지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올바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들게 하는 상황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행동을 선택의 권리로 합리화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이 옳고 그릇된지를 규정해 주셨으며, 또한 진리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한 결과도 정해 두셨습니다. 그분은 삶의 길을 선택할 우리의 권리를 수호해 주시으로써 그 결과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며 행복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행동에 대한 결과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그러한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영감을 받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30:21)

무엇이 옳은지 선택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로 어떤 길이란 선택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후일, 만일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되었다면 이로부터 돌이킬 유일한

방법은 회개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는데, 그 중에는 원인과 결과에 관한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명이라 부릅니다. 계명은 삶을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일부 사람들을 충동해 확고한 표준없이 생활하게 하여 그저 편리해 보이거나 개인적으로 최대의 이익을 가져 주는 그때 그때의 상황에 입각해 결정을 내리게 유혹하리란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즉 이러한 방법으로 사탄은 누군가의 삶으로부터 진리의 힘을 빼앗아 그 영혼을 노예로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져서 탈출할 길이 없는 듯하시면, 로버트 프로스트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그곳을 통과할 수 밖에 없다!" 여러분은 문제에 대처해 이를 극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의한 행동으로 생긴 심령의 상처를 영원히 치유하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 황폐해진 육신을 영원한 율법의 범주 내에서 치유할 방법이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실지도 모르지만 제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방법대로 행할 때 도와 주실 것입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섬기지도 아니하며, 알지도 못하며 마음에 생각해 보지도 않은 주인을 알 수 있으리요?"(모사이아서 5:13) 주님을 알고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구세주에 관해 읽고 배우십시오.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삶을 청산하고 온전하며 진리에 충실하는 삶을 사시겠다고 결심하면서도 왜 신뢰를 받지 못하는지 의문이 가질지 모릅니다. 과거에 타인을 속여 그들을 이용하기 위해 내렸던 고의적 결정으로 인해 생겨난 악영향을 극복해 줄 명예를 되찾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일은 할 가치가 있는 사항임을 인식하십시오.

컴퓨터를 다루는 데 여러분의 목표가 아무리 훌륭하고 정확하게 여러번의 과정을 밟는다고 해도, 아주 사소한



실수라도 범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경우 여러분의 모든 수고는 허사가 되고 맙니다.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분의 계명에는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성공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참마음과 참뜻을 갖고 계신다면 이는 주님께 전달됩니다. 진리에 순종하고 자유의지를 적절히 사용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문을 활짝 열어 주십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자신과 주님만이 여러분의 진실됨을 믿어 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은 개인의 긍정적인 발전에서 오는 기쁨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계속되는 의로운 행동을 인정해 주고 지지해 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주지만 한 사람의 제언이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상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아실 수가 있었습니까?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십시오.

- 어떤 동기에서 이런 도움을 주려 하는가?
-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옳다는 확신이 드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구세주의 가르침과 일치하게 된다.
- 조언을 준 사람은 그와 일치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조언이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가?

이러한 표준에 따라 조언을 진지하게 평가해보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혹은 제삼자의 사욕을 위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을 하라고 격려하는 친구는 참된 친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변화시킬 만큼 지혜롭지 못하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저지른 불의한

행동을 비호하게 함으로써, 그릇된 삶을 바로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에 적절히 응하지 못하면 마음에 잘못된 관념이 정착되고 회개할 필요성을 못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악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한층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줘야 할 때와 여러분이 현실에 과감히 대처해 발전하도록 해주어야 할 시점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주님은 이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시인하며 약간의 실수가 있을지라도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보여주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일 때, 지지와 도움이 필요하며 이 경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기적으로 타인을 통제하고, 옳지 못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며, 사취하고,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은폐시키려 한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그릇된 원리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곧 여러분이 스스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삶을 어떻게 치유할지를 깨닫는 일과 이를 행하는 것은 서로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회개가 계속해서 개인적 유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인식할 때라야 여러분은 변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명을 어기는 일은 어떤 유익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만 야기시킬 뿐임을 알고 계십니다. 상황이 더 악화될 때까지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고통스럽고 치유 불가능한 육신의 상처를 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 수는 있지만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므로 언젠가는 여러분의 뉘우치지 않은 행동에 대해 그 대가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죄는 그 영향력이 매우 커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그것을 극복하기가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 경우에는 도움을 구하십시오.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은 의롭게 생활하기 위해 자유의지를 계속 선용하여 힘을 얻게 되고, 구세주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신뢰가 가고 자유의지와 진리를 이해하는 분을

찾으십시오, 어느 곳에서나 신뢰할 만한 친구, 사랑하는 사람, 유능한 전문가, 혹은 신앙이 확고한 교회 회원 등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서게 되면 도움의 열쇠를 갖고 있는 감독님을 찾아 보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하여 구세주의 가르침을 이해해 그에 따라 살며 그분의 치유력을 얻기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완전하게 치유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는 분의 허락을 얻어 다음에 인용한 말씀은 영감받은 도구인 신권 지도자를 통해 주님이 어떻게 치유시켜 주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혜롭고 친절하신 말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와 같은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간증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있지만 이는 제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에 제게 주신 축복은 참으로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하루가 새로운 날이길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여러분의 상처를 영원히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고대 백성들에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희 가운데...온갖 질병으로 고난을 받는 자가 있느냐? 저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저들을 고쳐 주리니 이는 너희에게 병고침을 받기에 합당한 신앙이 있음을 알았음이라...

“예수께서...날날이 고쳐 주시니.”(니파이삼서 17:7~9)

진리에 순종하고 주님의 권고에 따라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기로 할 때, 그분의 치유의 권능을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매만져 주셔서 우리가 토론한 모든 것들이 참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그분께서 여러분께 힘과 용기를 주셔서 지금 치유받는 삶을 시작하실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말씀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매리온 디 헝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명예 회원

“그리스도는 문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그를 맞이하...고자 하는 사람은...“문을 열”어야 합니다.”



봉 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개인적인 가치를 초월하여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며 그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며 우리 모든 인류의 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민수기 16:22; 히브리서 12:9 참조)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가르쳤으며 로마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라고 가르쳤습니다.(사도행전 17:28~29; 로마서 8:16~17)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분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것 때문에 인류는 태초로부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누려왔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첫 몇 구절에서

그리스도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요한복음 1:9)이었다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경전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케 하였은 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모로나아서 7:16; 교리와 성약 84:45~46 참조) 왜 모든 사람이 빛을 따라 걷지 않으며 왜 어떤 사람은 악을 버리고 선을 좇지 않는지 설명해 주는 중요한 다음 성구가 곁들여 나와 있습니다. “영은 세상에 오는 각 사람게 빛을 주시나니 영은 세상을 통하여 영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을 깨우치느니라.”(교리와 성약 84:46)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빛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시지만 그 축복은 누구에게도 강요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문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그를 맞이하여 함께 먹고 마시고자 하는 사람은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요한 계시록 3:20)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의 중심되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 즉, 사랑과 자유 의지에 대해 분명하게 배웁니다. 우리들 각자는 사랑하고 베풀고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선택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상속을 받을 자격을 얻어서 그의 소생과 후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결정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며,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 책임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대의 기록인 신명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신명기 30:15, 19, 20)

진리는 주님의 빛을 통해 얼마간 여러 장소와 여러 부류와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로 뻗어나갑니다. 저는 그토록 많은 곳에서 그렇게 훌륭한 것들을 풍부하게 발견할 수 있음을 대단히 기뻐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신회의 단합된 구성원들을 “진리의 근원”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고대의 모든 박식한 철학자들이 이 근원으로부터 영감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것에서 그들의 모든 지식을 얻었습니다. 수 세대에 걸쳐 발견되는 진리의 과편들은 바로 그 근원에서 유래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철학자, 발명가, 애국자, 개혁자, 예언자와 같은 이들에게 영감을 통해 그것을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07년 6월호, 629쪽)

초기의 교회 지도자들과 그 후의 지도자들도 이와 유사한 간증을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가지 활동에 참여하면서 귀중한 것을 함께 나누었던 훌륭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특별한 지혜로움으로 사랑받는 케이크 교사이자 작가인 루퍼스 조운즈를 생각하면서 그가 한 다음의 말을 떠올려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단지 먼 고대에만 인류와 교제하셨으며 성경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는 이론을 가진 종교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해 주셨다면 지금도 여전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과거의 위대한 자존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위대한 자존자이십니다.”(영원에 대한 설파)

이것은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한 그 원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의 자녀와 말씀하고 계시며 또 이제까지 계시해 오셨으며 현재 계시해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하늘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이집트를 탈출한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짧은 송가를 바치는 감동적인 관습에 관한 유대인의 전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바다를 돌로 가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게 하셨습니다.(출애굽기 14:22)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펴서 다시 물이 합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건넜으나 이집트 군대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의기양양하여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분은 그것을 중지시키고 “그렇게 많은 나의 자녀가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어떻게 기쁨과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후기에 축제의 일부로 그 사건을 기념하여 그것을 요약한 짧은 송가를 포함시켰습니다. 참으로 그 근원으로부터 오는 빛은 온 세상을 비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기뻐하며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계시해 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겸손하게 간증합니다.

고대 예언자와 기록자들이 기록한 성경의 풍부한 진리와 그것을 입증해 주고 보충해 주는 말일의 경전에 나오는 진리들이 결합되었을 때 그 결합된 귀중한 보물은 인류가 수세기에 걸쳐 의문을 품어 왔으며 현재도 품고 있고 또 인구가 증가하며 그 의문에 대한 해석이 점점 더 여러 가지로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의문을 품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 분명한 이해력과 지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신, 즉 신화에 관한 의문이며 인간 자신에 관한 의문이며 인생과 그 의미와 목적에 관한 의문이며 영원과 그것의 약속에 관한 의문입니다.

온 인류, 즉 개인과 단체와 국가와 문명이 당면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과제에 비추어 봄으로써 이 더욱 온전한 빛의 한 중요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수천년 전에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시편 31:9)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기묘하게도 현대인에게 낯익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지금 세상은 재난과 파괴와 공포와 기아와 분쟁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재난으로 변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와 가족간의 문제 및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 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책들은 일반적으로 왜 선한 사람이 시련을 겪는가라고 묻는 것은 적절한 질문이 아니라는 데 동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이 주어진다면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경전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가?
- 시련은 하나님의 분노의 증거인가?
- 고대의 예언자와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은 역경을 겪지 않았는가?
- 하나님은 그분을 좇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가?

경전은 이것들에 대해줍니다. 산상수훈은 애통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욕먹고 핍박받은 사람,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듣는 사람에게 대답을 줍니다.(마태복음 5:3~4, 11 참조)

그 권고는 오른쪽 빵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위법자, 원수, 무고한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며 괴롭히는 사람이 언급되었습니다. 해는 악인과 선인에게 두루 비추며 비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고루 내립니다.(마태복음 5:39~45 참조)

교회의 초기 지도자들에게는 “환난 중에 인내하라. 이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임이라”(교리와 성약 24:8)는 훈계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경험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시련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으시며 고통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고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도 겪어야 하는 많은 고통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 스스로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도움이 주어집니다. 회개한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잊어버리며 또 참되게 회개한 죄를 다시는 언급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생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에 반응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앞으로써 우리는 필요한 용기와 신앙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그의 백성을 찾아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모사이야서 24:13~14 참조)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요 마지막 날에 높이 들어 올리시리라”(엘마서 36:3)는 확신도 얻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지금도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6:2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외로운 사람과 절망적인 사람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히브리서 13: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만일 우리가 슬픔과 고난의 시기에 인내하며 계속 충실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굴하지 않는 용기를 지닌다면 주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방문하셔서 우리가 우리 짐을 지고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강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며 마지막 날에 더 훌륭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들어올리시고 마침내 우리가 승영하게 하여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게 하시며 우리의 고난을 성별해 주실 것입니다.

근래에 저를 깊이 감동시킨 한 가지 경험은 한 모임에서 어느 훌륭한 감독이 암으로 죽은 그의 아내에 관해 애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가진 많은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은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할 것입니다.

그는 20년 전에 자기 어머니가 죽기 전에 심한 고통을 겪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어머니가 그러한 고통을 겪었던 것에 대해 여러해 동안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내가 겪는 고통 때문에 그는 더욱 거칠어졌지만

실제로는 아내를 위해 또 얼마간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분노를 주님과 의 더 가까운 영적인 관계로 승화시켰고 그래서 좀더 품위있게 그녀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그에게 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아내와 함께 울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그곳에서 울고 있다는 아주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이 임박하자 그녀의 육신은 심히 쇠약해졌으며 그녀는 “더 나아지진 않을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셔서 “함께 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다칠 고난을 생각하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미대륙을 방문하셔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무릎꿇고 기도할 때도 우셨으며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차레대로 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실 때도 우셨습니다. (니파이삼서 17 : 21~22절 ; 요한복음 11 : 35 ; 누가복음 19 : 41 참조)

간밤에 저는 연차 대회 토요 모임을 마치고 귀가해서 이년 전에 사고로 남편을 잃은 어느 훌륭한 딸일성도 어머니가 보내온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제 사무실 벽의 액자에 들어 있는 다음 말씀을 통해 자신과 가족이 위안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모든 섭리가 놀라우리만치 공정함을 아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이름을 잃어간 사람들은 이제까지 해온대로 그분이 물려주신 질 즉, 사랑과 자비와 봉사의 짐을 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움이 되어주며 병든 자와 고통받은 자를 구제하는 데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겸손히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너희 마음을 굳게 정하라”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헌신은 복종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은...교만의 음침한 감옥에서 우리를 석방시켜 줍니다.”



지 금은 제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오랜 세월이 걸쳐 수없이 제 생애에 훌륭한 영향을 미치신 헵스 장로님께 감사드리기에 적합한 순간입니다. 18년 전에 저는 이 연단에서 교회 문 앞에 서서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으로 들어오도록 간청하였습니다.(앤사인, 1974년 11월호, 12~13쪽 참조) 오늘은 이미 안으로 들어왔지만 제자로서 충실치 못한 회원에게,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그들의 은사와 재능이 무척 필요한 분들에게 간청합니다!

물론, 더욱 더 헌신하라는 요청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지만 가끔 실패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교리와 성약 46 : 9 참조) 또한 이 말씀은 옛 습관과 죄에 얽매여 새로운 자극만을 추구하는 일부 사람을

포함하여,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 말씀은 제자로서 충실하기 보다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걸 돌거나, “힘써 노력”하는 대신에 대중 관여하는 본질적으로 “명예로운” 회원을 위한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76 : 75, 58 : 27) 이분들은 명목적으로는 참여하지만 의심하고 망설이는 기세가 역력합니다. 심지어 성전 의식을 모두 받았으면서도, 불행하게 성스러운 성전이 그들 마음 속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회원은 부름을 받아들이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힘써 노력하는” 이들이 행하기가 일수입니다. 어떤 회원들은 부름받고 해임되는 일만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다음 부름만큼은 그럴 수 없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파이삼서 27 : 27 ; 마태복음 5 : 48 ; 니파이삼서 12 : 48) 이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다는 것은 마음과 뜻과 특성이 좀더 주님을 닮기 위해 추구하는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76 : 79) 이러한 자세를 지닌 사람들이 바로 참된 신앙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그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누군가 신앙에 관심을 덜 갖기로 선택할 경우, 이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에게 약간의 불신앙이 있을 경우, 자녀들이 큰 불신앙이 있을 경우, 자녀들이 큰 불신앙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세대에는

헌신적이었지만 현재의 시대에는 불신앙의 기미가 보이며, 슬프게도 미래에는 신앙을 잃게 될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충실하지 못한 회원들은 실제보다 덜 헌신적인 것처럼 보임으로써 지나치게 의로워 보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좀 특이한 위선을 행합니다.

그렇지 않은 명예로운 회원 중 일부는 교회를 왕국이 아닌 한 기관으로 착각합니다. 그들은 왕국의 교리를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해하여 생활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충실하지 못한 회원들은 흔히 세상 근심과 일에 얽매어 매우 바쁩니다. 명예로운 앰블레크가 한때 그랬던 것과 같습니다. 그는 여러 번 부름을 받았지만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엘마서 10:4~6 참조)

충실하지 못한 회원들이 가진 일반적인 특성은 자신이 보기에 별 흥미가 없을 듯한 의무, 즉 매일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경전을 읽으며, 성찬식에 참석하고, 온전한 십일조를 바치며, 성전에 참여하는 일 등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같은 경향은 절대 가치가 흔들리고, 관능적인 것을 추구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입술로만 그칠 뿐, 진실로 섬기는 마음이 없는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는 특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더욱 헌신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결심을 버리거나 성스러운 가먼트를 벗어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설적인 것을 피하고 순결의 법을 지키며 십일조를 내고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고 돌봅니다. 또한 좋은 이웃이 되어 서로 "집을 나누며,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며," 용감하게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느님의 증인"(모사이야서 18:8~9)이 됩니다.

영적으로 굳게 서겠다고 결심하고 나면 처음에는 주위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하면, 우리의 영생을 방해해 왔던 친구들이 결코 참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비난하는 것은 분한 마음에서 나오거나 은연 중에 자신이 혼자 남게 되는 것을 걱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은 "극히 작은"(엘마서 26:16) 것 하나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도 계속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더 큰 관심을 갖습니다. 브리감 영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거나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임무를 받아들여려고 하지 않습니다... 싫고 좋고를 떠나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설교집, 7:65)

마찬가지로, 더욱 헌신할 것을 결심하는 분들은 곧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의로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마가복음 10:21)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면에서는 훌륭한 회원이었지만 재산을 팔아 일부를 감추었습니다.(사도행전 5:1~11)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바치지도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헌신하는 것을 재물과 돈으로만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뒤로 숨겨 놓은 방법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시간은 바치지만,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숨깁니다. 자신의 재능을 나누기는 하지만 특별한 재능을 숨길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무릎 꿇기를 거절하면서 청중에게는 큰 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부름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마음에는 두고 세상적인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기는 하지만 진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분히 복음을 실천하기 보다는 눈에 띄는 현상을 좋아하며, 헌신하기 보다는 자신의 지식으로 연구하여 지키기 힘든 교리를 자기에게 쉽게 고치려고 합니다. 더욱 나쁜 것은, 이러한 회원들이 불순종함으로서 무지해 지는 것입니다.(요한복음 7:17 참조) 무지로 인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스스로 종교 연구가가 되어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교회 전체를 보려 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런던 하이드 파크가 국회사 왕국, 심지어는 영국 전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헌신하는 길만이 우리에게 있는 의심과 무관심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언급된 대로, 더욱 헌신적인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더욱 헌신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는 것입니다.(힐라맨서 12:3 참조) 우리가 나약해지면 시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생각을 하면 두렵지만, 이것을 통해 더욱 헌신하도록 준비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만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처방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 의지를 최대한 이용해서 발전하려면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방종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지금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할 시간을 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죄를 버린다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78:18; 50:4; 엘마서 32:27, 28; 22:18 참조)

우리는 각자 예수님이 머무실 방을 정하는 여관 주인입니다. 헌신은 복종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질서하고 소란스러운 이기심의 감옥과 교만의 음침한 감옥에서 우리를 석방시켜 줍니다. 좀더 헌신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마치 "골프 차를 타고 낙원을 달리기를" 바라듯 반쯤만 순종하면서 살기는 무척 쉬울 것입니다.(헨리 페어리,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죄, 인디애나: 노트르담 대학교 출판사, 1979년, 125쪽)

그러나 자신을 바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됩니까?(모사이야서 15:7 참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 낡은 자아를 버리라고 요청하실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집으로 향한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세상의 손가락질을 더 잘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는지 알게 되면 다른 데 속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가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자리를 잃게 되어도 그리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자리잡게 되면, 세상의 사슬이 풀리게 됩니다.(엘마서 36:18)

더 많이 헌신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 요구된다기 보다는 이 사업이 누구의 사업인지 알 것이 요구됩니다. 헌신하기 위해 세상의 보물을 버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것에 지배당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전념하여 사물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만물을 사실 그대로"(야곱서 4:13)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세상의 유혹에 대해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그것에 개의치 않을 때, 우리는 마침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20:22; 요한복음 8:32)

그러므로 참된 복음대로 생활하면 안전하고 행복해집니다. 참된 것은 정확을 뜻할 뿐만 아니라 행복도 뜻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통이라는 말 자체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 빨리 변화는 과정에서 정통적인 것들을 위협하려고 분주하게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난 바로의 군사들의 맹추격을 받으면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의 지시대로 일렬로 섰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펼치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벽을 이룬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서대로 재빨리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당시 정통에 관해 경고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언자의 인도에 따라 협착하고 좁은 길을 갈 때에도 그같은 순종이 요구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자유로워지고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이며, 정통에 반하는 행위와 지식은 그 반대입니다. 작은 외설책 한 권이 아이나 어른을 탐닉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자존심마저 천천히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농담을 좋아하는 경향이 조금만 있어도 그것이 점점 커져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블류 맥 로렌스 장로와 찰스 디디에이 장로가 9월 26일 솔트레이크 태버나클에서 열린 여성 대회에 앞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엘레인 엘 잭 자매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불행하게도 남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악의 있는 말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시.에스. 루이스, 루이스 인용집, 오펜 바필드와 제리 루트 편, 일리노이주 휘튼: 틴데일 출판사, 1989년, 425쪽) 총관리 역원이 아주 작은 비판이라도 한다면 그것이 무해한 것 같아도 회원들에게 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그릇된 "세상의 빛"(니파이서서 26:29)의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잘못된 길을 걷다가 되돌아 오는 사람도 있으나 대개 이끌고 나갔던 사람은 놔두고 혼자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굳게 정하고 내가 가르치고 명하는 것들을 행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영감역 누가복음 14:28) 헌신하기에 앞서 마음을 굳게 정해야 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복음 지식이 어떻게 어두움과 불확신과 의심을 내쫓으며 불확신에서 오는 큰 고통을 없애 주는지에 관해 말씀했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88쪽) 마음을 굳게 정하고 나면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는 불평과 반대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마태복음 11:7)같이 동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회원들에게는 마음을 굳게 정해서 올 수 있는 화평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굳게 정하지 못한 사람은 "안정치 못하고...요동하는 바다"(이사야서 57:20) 같을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이 동요할"(교리와 성약 88:91; 45:26) 시기에 살게 될 것입니다. 불안과 동요와 혼란이 일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은 심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우리가 깊이 헌신하기를 주저한다면, 속죄가 이뤄지는 동안 우리를 위해 고통에서 벗어나길 거절하신 그분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교리와 성약 19:18) 예수님은 굽히지 않으시고 자신을 온전히 바쳐 "인간의 자녀를 위한 준비"(교리와 성약 19:19)를 훌륭하게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야로서의 성역이 훌륭한 가르침으로만 이루어졌거나, 나아가 병고침이나 기적을 행하는 선에서 그치고, 고통스럽지만 자신을 헌신하셨던 갯세마네 동산과 갈보리 언덕의 속죄가 없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이 예수님의 성역을 어떻게 생각하겠으며 인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사업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신봉한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몰몬서 6:17 참조)

우리가 그러한 영광된 순간을 위해 마음을 굳게 정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과거와 현재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우리는 혼자서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가까이 있습니다.”



40여년 전 저는 탁월한 정치인이자 국제적으로 명망있는 학자로서 대관장단 보좌로 계시던 제이 루벤 클라크 형제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인쇄 및 출판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저를 사무실로 반갑게 맞아들이신 다음 서터식 덮개가 달린 책상에서 손으로 쓴 커다란 서류철을 꺼내셨습니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그분이 오래전 법대 학생이셨을 때 작성하신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그분은 공관 복음을 내놓겠다는 자신의 목표를 제게 간략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그의 기념비적 작품인 복음의 *우리 주님*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서재 책꽂이에서 그분의 친필 서명이 적혀있는 가족 표지로 된 나사렛 예수의 생애를 다룬 이 고전적 책을 꺼냈습니다. 여러 장을 읽어 내려가다가 “예수의 기적”이라는 장에 이르러 잠시 읽기를 멈췄습니다. 클라크 부대관장님께서 큰 의자에 앉으셔서 제게 이 장의 몇 구절을 읽어달라고 하시며 이를 듣던 때가 바로 엇그제

같았음을 상기해보았습니다. 이날은 제 생애에서 결코 잊지 못할 날이었습니다.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전신에 문둥병 들린 사람에 관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계속해 읽어갔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게실 때에 온 몸이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디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누가복음 5:12~13)

부대관장님은 제게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 중풍병자와 그가 주님의 주목을 받게 된 참신한 방법에 관한 기사를 읽어달라고 하셨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누가복음 5:18~20)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누가 죄를 용서할 권리를 갖는가 하고 경멸적인 말들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언쟁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 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누가복음 5:23~25)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더니,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많아지나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마디 명상과 눈물 가운데 홀로 남겨둔 채 그분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 경험을 돌이킬 때마다 병자를 치유해 주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거룩한 행적에 대해 드리는 감사로 가득차게 됩니다. 그런 한편 이와 비슷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찾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며 주님의 권능을 받는자가 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슬픔입니다. 클라크 부대관장님도 자신의 사위이자 전함 웨스트 버지니아호의 함장이었던 머빈 에스 베니온 형제가 진주만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을 아주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날 그곳에는 수풀에 걸린 양도 없었고 포탄을 막아낼 쇠도 없었으며 전쟁의 상처를 치유할 기적 또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대관장님의 신앙을 결코 흔들리지 않았으며 응답된 기도가 삶을 지속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에게 병마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사고로 잔인한 추억의 상흔을 육신에 남겨놓고, 한 때 즐겁게 뛰어놀던 어린이의 다리가 휠체어에 갇혀지게 됩니다.

귀중한 자식이 태어나기를 걱정스레 기다리는 부모는 때때로 이 유아에게 모든 것이 잘 되어가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지 중 하나가 없든지, 눈이 안보인다든가, 혹은 몽고병이란 용어로 불리는 뇌의 손상 등의 질병이 찾아와 그들을 좌절시키며 슬픔으로 가득차 희망을 찾아나서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에 대한 불가피한 책망과 부주의했던 행동에 대한 비난 및 다음과 같은 질문이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 가족에게 왜 그러한 비극이 일어났을까?” “왜 그녀의 가정을 지켜주지 못했지?” “그가 그 파티에 가지만 않았어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던거지?” “수호의 천사는 어디에 있었지?” 만약에, 왜, 어디에, 어떻게라고 자꾸 반복되는 질문이 잃어버린 아들과

완전한 육체와 부모의 계획이나
젊은이의 꿈을 다시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 사람을
회피하거나 깊은 절망에 묻히는 것이
필요로 하는 평화와 확신과 도움을
안겨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위를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계속
전진해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에 대처해
나갔으며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가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읍처럼 고통을 당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욥기 1:1)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느모로 보나
변창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문자
그대로 자신의 전부, 즉 부와 가족과
건강을 잃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한번은 “하나님을 욱하고 죽으라”(욥기
2:9)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쉽게 볼 수
없을 만큼 큰 시련을 겪고난 뒤 욱이
선언한 신앙은 진리에 대한 간증이자
용기의 선포이며 신뢰의 천명이라
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씩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욥기 19:23~27)

여러분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생애를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절망의 날의
눈물과 슬픔의 밤이 지나간 뒤의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시편 30:
5)는 사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년전 리즈포트 오레곤 와드의
제일 맥다니엘과 그녀의 부모 및
감독님 그리고 제리 리 맥다니엘
자매님이 제 사무실에 찾아와 교회
역사과에 이브 자신이 손수 적어 세
개의 커다란 바인더에 철한 물문경을
기증한 적이 있습니다. 당년 28세였던

이브는 1962년 9월 18일에
출생했습니다. 어린 아기 때 걸린
뇌막염으로 그녀는 뇌에 손상을 입어서
글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이브는
물문경 전체를 한 글자 한 글자씩 약
18개월 동안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명”과 “그림에도 불구하고”와 같은
단어와 구절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또한
이러하니”였는데, 이 구절을
반복하면서 얼굴이 기쁨으로
상기되었습니다. 이브는 성취의 기쁨과
나아가서는 성공의 미소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브의 부모는 딸이
마음으로 기뻐하고 행복해 하자 흐뭇해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로 성탄절이 가까워 올
무렵 저는 교회 본부 건물에서 장애인
어린이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약
60여명과 만나면서 마음이 몽클해
졌습니다. 저를 위해 그들은 “난
하나님의 자녀,” “루돌프 사슴코”와 “나
너 사랑하듯”(찬송가 193장)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어린
천사같은 표정과 말 가운데 표현되는
순수한 신뢰 때문에 저는 마치 성지에
서 있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어린이들은
제가 아름다운 책 한권을 선사했는데,
매 장마다 어린이 자신이 성탄절 때
가장 감사하는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훌륭한 어린이들
뒤에서 그들에게 화평과 목표와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 교사님들과 가족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이들은 제 하루를 온전히
밝혀주었습니다.

수년 전 브리감 영 대학교는 당대의
뛰어난 여성인 사라 베그리 섬웨이에게
총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가정 안이나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에는 소중하면서도
종종 예고하지 못한 일상 생활의
드라마가 전개됩니다.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장소에서 사람들은 현재 생활에
안정을 찾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옵니다. 연극, 영화, 혹은 뉴스
방송의 주제에 잘 부합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할 때면 그들의 삶은
갈등과 강렬한 감정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둔 승리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향후 세대의
역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경계선을

다져줍니다.”

사라는 1948년 9년간 친구이자
연인으로 지내던 에이치 스미스
섬웨이와 결혼했습니다. 이들의 연애
기간은 이차 세계대전 당시 보병
장교였던 스미스가 프랑스 파리로 진격
중 지뢰가 터지는 통에 실명되고 심한
부상을 입은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보다
길어졌던 것입니다. 스미스가 장기간
투병하는 동안 사라는 짐자를 배워
개인적으로 그와 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자신이 사랑하는 스미스에게
큰 소리로 자신의 편지를 읽어준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젊은 부부는 어떤 소중한 내면의
세계가 스미스 섬웨이의 결혼
프로포즈에 솔직담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전후 와이오밍으로 귀향한
그가 사라에게 “당신이 차를 운전하고,
양말을 정리하고, 편지를 대신 읽어만
준다면 나머지는 내가 하겠소.”라고
구혼하자 사라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수년간의 공부로 성공적인
직업과 재능있는 8명의 자녀 및 여러
손주를 갖게 되었고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역정을
걸어오면서 섬웨이 부부는 귀가 잘
안들리는 자녀와 선교사로 나갔다 암에
걸린 아들 및 출생시 상처를 입은
쌍둥이 손녀의 문제에 부딪쳐야
했습니다.

가족과 저는 연전에 에스펜 그로브
캠핑에서 섬웨이 부부의 온 가족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가족
모두는 이름과 함께 가족 구성원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가 새겨진 고유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섬웨이
형제님은 아주 당당하게 입고 있는
티셔츠에서 소중한 자녀들의 위치를
가리키고는 기쁨의 미소를
지어보였습니다. 그래서야 비로소 그가
자신의 자녀들이나 손자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눈으로는 그들을 못보았지만
마음으로는 그들을 알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오락 시간에 섬웨이 가족은
에스펜 그로브 캠핑의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자녀들에게 “앞을 못보는
아버지가 계신 가정에서 자라나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자 그중 한 딸이 웃으면서 “어렸을 때 이따금 저희는 아빠가 저녁 식사 중 후식을 너무 많이 드셔서선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 아빠께 말하지 않고 아빠의 접시와 우리의 작은 접시를 바꿔치곤 했습니다. 알고 계셨을텐데도 전혀 불평하시지 않으셨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한 자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다섯 살쯤 되었을 때 아빠가 제 손을 잡고 동네 주변을 다니시던 일이 기억납니다. 아빠가 새와 기타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전 아빠가 장님이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늘 아빠가 다른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절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 손을 잡고다니셨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현재 섬웨이 형제님은 축복사이십니다. 여러분은 누가 그분이 주시는 많은 축복문을 타자치기 위해 타자술을 익혔다고 추측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내인 사라였습니다.

스미스와 사라와 그들의 가족은 전쟁이 안겨준 상처를 극복하고 인생의 역경과 슬픔을 딛고 일어선 표상입니다. 여류 시인 엘라 휠러 윌콕스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인생이 노래와 같이 흘러갈 때는
생이 마냥 즐겁기 쉬우나,
만사가 심히 왜곡돼 나갈 때는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이만이
가치있는 사람이라네
마음의 시금석은 곤경,
이는 늘 여러해를 두고 오나니
세인의 칭찬을 들을 가치있는
미소는 눈물 속에 핀 미소라네.
(“가치 있는 것”)

저는 이제 유타주 웨스트 벨리의 사는 멜리사 앵글의 가슴 몽클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멜리사에 관한 이야기는 1992년 8월호 뉴 이리에 실려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태어나면서 저는 텃줄이 손가락을 싸고 있어서 손가락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 손에 엄지손가락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아빠는 제손을 튼튼하게 해 무언가에 쓰일 수 있게 하기 위해 제가 할만한 일을

찾아내고자 하셨습니다. 바이올린을 켜는 일이 제게 맞는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올린은 풀릇을 볼 때처럼 양손이 손가락이 없어도 됐거든요.

“지금껏 8년간을 켜왔습니다. 개인 교습을 받고 있는데, 교습비를 내려면 신문 배달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바이올린 교습은 버스를 타고 다른 지역에 가 받죠.

“제 인생에 최고 중요한 일이 미시간주 한 호수에 위치한 인터로켄에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청소년 음악 캠프 중 하나입니다. 8주간의 강도높은 음악 훈련을 받기 위해 지원서를 냈었는데, 제가 받아들여졌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걱정은 돈이었습니다. 수천불의 비용이 드는데 마감 전까지 그와 같은 고액을 마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거듭했죠. 연수비를 보내기 일주일 전쯤에, 어느 분이 사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분은 신체 장애가 있는 예술 학도들을 위한 학비 보조금을 갖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게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릴 뿐이죠.”

멜리사는 보조금을 받았을 때, 딸이 실망하는 것을 보고싶지 않아 딸에게 흥분과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려던 그녀의 어머니에게 돌아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보세요, 그분께서 제게도 응답해 주셨어요.”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주목하시는 주님께서 한 어린이의 소망을 성취시켜 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질병으로 묵묵히 고통을 겪어온 모든 분들과, 육체나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분들 그리고, 날마다 아니 매년 무거운 짐을 져온 여러분들과 송고한 어머니와 아버지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늘 보살피시길 간구드립니다. 어린이들, 특별히 달리고 뛰어놀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확신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언제나 주 지키며 너를 축복하여 주리.”(찬송가 40장)
물론경에 나오는 귀중한 약속도 성취되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영혼은 육체로 돌아가겠고 육체는

영혼으로 돌아 가겠음이라. 육신의 사지와 관절이 원래의 모양대로 회복되고 머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이요, 신체의 모든 부분이 본래의 완전한 모양으로 회복되리라... 이후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 왕국에서 빛을 발하리라.”(엘마서 40:23, 25)

시편에는 이러한 확신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너를 지키시는 자가 줄지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시편 121:2~4)

여러 해를 두고 말일성도들은 유년기부터 기억하여 즐겨 불려왔던 찬송가로부터 위안을 받아왔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잃은 것을 생각해 낙심할 때
내가 받은 복을 모두 세이라
주의 크신 복에 내가 놀라리

세상 근심 걱정으로 시달려
심자가 무겁게 생각될 때
내가 받은 복을 모두 세이라
너의 모든 의심 사라지리라

세상 권위 네 앞 길을 막으나
낙심말라 주는 능히 이기리
천사들이 내게 도움 위안을
너의 여행 끝날까지 주리라(찬송가 142장 1~2절, 4절)

마음의 고뇌와 영혼의 슬픔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곳에 계십니까?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까?”(어린이 노래책 12장)라고 묵묵히 물어온 분들에게, 저는 그분이 거기에 계시다는 간증을 드립니다. 그분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이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는 지상에 있는 죽음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학식을 얻음이 유익할 것이나...”

보이드 케이 페커 장로
십이사도 성원회

“교육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됩니다. 세상의 학문에는 끝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배움에는 분명히 끝이 없습니다.”



저는 경건과 예배의 영을 가져다 주는 음악의 힘을 가지고 있는 합창단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참으로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교리와 성약 88:118)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연구”와 “신앙”이라는 두 단어는 모두 교육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가 이해하면 유익한 이론과 원리와 교리와 복음의 율법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더욱 온전히 배우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88:77~78)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역사의 지식과

여러 국가와 왕국의 지식과 하나님과 인간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시온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93:53, 또한 88:79 참조) 교회는 도덕적이며 영적인 교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교육을 장려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집합의 영

경전에는 성도들의 집합에 관하여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개종자들은 온 세상으로부터 시온으로 모이라는 명을 받고 함께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수가 모였으나 얼마 후에는 점점 더 많은 수가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시온은 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많은 회원들로 인해 더욱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곳에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학교를 개설하였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학교가 전혀 없는 곳에 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집합의 영이 우리의 학교에 작용하였습니다. 세미나리 책임자로서 교회 학교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총관리 역원과 함께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1972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지역 대회에서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된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백성들은 모든 국가와 온갖 언어와 온 백성들 가운데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멕시코 성도들이 모일 장소는 멕시코이고 과테말라 성도들이 모일 곳은 과테말라이며 브라질 성도들이 모일 장소는 브라질입니다. 온 세상에서 그렇게 모일 것입니다. 모든 국가는 그 국가의 백성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 지역 대회, 1972년 8월 26일, 45쪽)

그 다음 해인 4월에 해롤드 비리 대관장은 연차 대회에서 그러한 말을 반복하였으며 사실상 새로운 땅에 정착하여야 했던 집합의 첫 단계가 이제 끝났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집합은 모든 나라에서 시작하고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대회 보고, 1973년 4월 6일, 7쪽 참조)

공립 학교가 세워지면서 대부분의 교회 학교는 폐쇄되었습니다. 동시에 신학 연구원이 많은 나라에서 설립되었습니다.

개척 시대로부터 남아있는 학교가 다소 있는데 그 학교들 중에 브리감 영 대학교와 릭스 대학이 있습니다.

이제 브리감 영 대학교는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브리감 영 대학교가 제공하는 학생 한 사람 당 비용은 계속 늘어가면서 우리의 대학 연령에 있는 젊은이들의 백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년 점점 더 많은 자격이 있는 학생들이 그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과 회원들은 다른 곳에도 이와 똑같은 학교를 세울 것을 우리에게 간청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세계의 회원들에게 세상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렇게 할 수는 없으며,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다른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대관장단은 교회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은 신학 연구원에 다니도록 권고했습니다. 신학 연구원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유익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비교적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도 있고 학교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읽고 쓰기를 배우는 것조차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학습 능력이 없거나 듣거나 보거나 또는 움직이는 데 제한을 받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이 요구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돈입니다. 가정이 나라의 경제 사정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꿈조차 가질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쉽게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사도행전 10:34~35 ; 또한 모로나이사 8:12 ; 교리와 성약 1:35 ; 38:16 참조)

주님을 실용적인 분야의 직업 훈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전문직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교회 또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수백만에 달하는 성도들과 교회의 성장 추세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총관리 직원들이 교회 학교에 관하여 내린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전통의 종결

올 여름 가족 재회 모임에서 패커 자매와 저는 우리 가족이 간직하고 있던 전통을 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열 자녀는 모두 브리감 영 대학교를 다녔으며, 손자녀 중에도 브리감 영 대학교 출신 아이들이 몇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손자녀들이 그 전통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손자녀들에게 총관리 직원들의 권고를 따르도록 권고했습니다. 앞으로 제 손자녀들은 교회 학교에 다닐 수 없다면,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입학할 수 있는 신학 연구원이 있는 일반 학교에서 회원들과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세상적인 학문을 공부하면서 경전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언약과 교회의 신조” (교리와 성약 42:13)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으며 또는 세상 교육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받았는가에 대하여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얼마나 잘 교육 받았는가에 대하여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일반 직업 훈련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직에 대하여 느끼는 것 만큼 상당히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직업 학교를 선택하여 생계를 꾸려간다고 해도 변함없이 기뻐할 것입니다.

결국, 교육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됩니다. 세상의 학문에는 끝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배움에는 분명히 끝이 없습니다.

이 주님의 사업은 도제나 장인, 노동자, 사무원, 식당 종업원, 주부 등 일상 생활을 영위해 가는 사람들의 힘에 의해 전진해 갑니다.

경고

우리는 물문경에 있는 다음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각각 저들이 지닌 부와 학식의 정도에 따라 계급이 생기더라. 어떤 백성은 가난하여 배울 기회가 없어 무지하였고, 부유한 자들은 재물로 인하여 많은 학문을 닦았더라. “교만으로 부푼 자도 있고 지극히 겸손한 자도 있으며...

“이토록 계급 차별이 극심하여져...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니,”(니파이삼서 6:12~14) 니파이는 “학식을 얻으매 스스로 현명하다 생각하여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고 옆으로 밀어 내며, 저들이 스스로 아는 듯이 여기나니, 저들의 지혜가 어리석도다. 저들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니 저들은 필경 멸망하리로다.”라고 경고했으며, “그러나 하나님의 권고를 따를진대 학식을 얻음이 유익할 것이나,”(니파이삼서 9:28~29)라고 덧붙였습니다.

두번째 소식

교회 학교에 다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돈 이외에 우리가 요구해야 하는 수업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품행과 실행입니다. 교회 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은 그들의 감독과 접견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스테이크 부장과 접견한 후부터 학교에서 요구하는 표준을

지켜야 합니다. 학생들은 교회 회원으로서 모순되지 않는 행동 표준을 지켜야 합니다.

때때로 감독은 학문적으로는 우수하나 교회의 표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접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감독은 “교회 학교의 분위기가 이 학생을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안됩니다. 그것은 매우 충실하지만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입학이 허락되지 못하는 수 천 명의 다른 학생들에게 공정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만약 학교에 다니는 동안 범법을 하고 있거나 등록할 당시에 서약한 표준을 위반한 것이 발견되면 감독과 학생과 부모에게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교회 학교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을 재고해야 합니다.

현신적인 교직원

우리의 교직원들은 최고의 학위를 가진 훌륭한 분들로 뛰어난 업적으로 갈채를 받아왔으며 동시에 겸손과 신앙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높은 학문을 쌓도록 과제를 주는 동시에 학생들이 간증을 해치거나 교회와 하나님 왕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도록 돕는 선생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러한 우수한 선생님들 때문에, 비록 많은 자격있는 학생들이 등록할 수 없다 할지라도 교회 학교들은 그 사명이 좀 독특하기는 하지만 학교를 인가한 사람들이 정한 표준을 따르는 데 있어서 능가할 학교가 없으며 또한 교회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교직원의 봉급이 교회의 십일조로부터 지불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역시 표준이 있습니다. 교회 대학은 교직원에게 직장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며, 또한 대학에 재정을 대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것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김볼 대관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모든 학교 위에 우뚝 솟은 교육의 에베레스트산은 단지 교수들의 탁월한 업적만 가지고는 완전히 성취될 수 없습니다.(처치 뉴스, 1980년 11월 22일, 4쪽) 그것은 학생들의 성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룩될 수 있는 최상의 세상적인 학문과 주님이 계시하신 교리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것들이 참되다는 간증이 잘 조화를 이룬 학생들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러한 환경에 속박되어 있는 학생이나 교사를 위한 학교라면 현재 미국에만도 3500개가 넘는 대학과 대학교가 있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종류의 자유를 찾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의 십일조로 봉급을 받는 그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일부 교수들이 고의로 신앙을 약화시키고 여러분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고의로 해치려고 한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심지어는 교회 학교에서조차 그러한 도전에 응해서 하나님을 믿는 권리를 지키며, 침례식 때에 맺은 성약을 지키고 성찬을 통해서 그 성약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추구할 가치가 있는 꿈

우리는 모든 나라에 있는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받도록 권고합니다. 때때로 희망이 없어보일지라도 결의와 신앙이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성공으로 축복할 것입니다. 그것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꿈입니다.

언젠가 저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군에 입대한 한 젊은이와 함께 몇 분간 시간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인생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졸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저는 그 젊은이에게 돈을 주지도 않았으며, 교회에는 그를 위한 학교나 심지어는 장학금마저도 없었습니다. 그 몇 분 동안에 저는 그에게 단지 우리의 생활 방법인 자립을 가르쳤습니다. 나이가 지나간 했지만 그는 고등학교로 돌아가 졸업했으며 지금은 가족을 부양하며 자녀들에게 진리를 추구하도록 권고합니다.



지도자를 따르라

제가 성도들의 집합에 대한 주제에 관하여 다루었기 때문에 교리와 성약으로부터 한 절을 읽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권위를 가진 자로부터 성임되고 또 저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교회의 머리되는 자들로 말미암아 정식으로 성임되었음이 교회에 알려지지 아니하면 어떠한 자에게도 나의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거나 나의 교회를 세울 권능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교리와 성약 42:11)

지금 우리들 가운데는 교회의 지도자에 의해 정식으로 성임되지 않은 채로 절박한 정치·경제적 혼란과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화에서 비를 보고 하늘이 무너진다고 소리치는 겁에 질린 병아리와 같습니다. 그들은 회원들을 그릇되게 인도하여 집단이나 이 교도의 무리로 모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이는 자들은 총관리 직원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거나 총관리 직원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승인했지만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총관리 직원들은 지상의 모든 곳을 끊임없이 여행하는

덕택으로 세상 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 예언적인 이해력을 통해서 말일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는 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만약 그와 같은 모임이 있다면 정식으로 성임된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교회에 알려져 있는 사람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 발표될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벗어나서 합당하게 성임되었고 공개적으로 지지받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나쁜 길로 인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바꾸어 말하면 빛과 진리니라.

“빛과 진리는 저 악마를 버리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명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93:36-40)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빛과 진리 안에서 기를 수 있으며, 우리의 구속주이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간증을 그들이 받을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복음 원리를 따르는 성공적인 삶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의 표준과 우리의 믿음에 관해, 우리가 누구인가에 관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축복을 영원히 감사드릴 것이며 지금도 그 축복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는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스가랴 14:16 참조)하고 신앙을 쌓으며 의를 갈구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주님에 대해 간증하며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교회의 대회는 개인의 견해를 밝히거나 투표로 정책을 채택하는 일반적인 모임과는 달리 주님의 종들에 의해 주님의 생각과 뜻이 밝혀지는 모임입니다. 교회는 민주 국가가 아닌 하나의 왕국입니다.

세상의 많은 지역과 국가에서 생각이 깊은 사람들과 말일성도들은 사회적, 종교적인 가치관과 도덕 표준 및 사회 규범을 해치는 해로운 문화 흐름의

압력과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갈수록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상과 가치관이 약해지거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인 마이클 허슬리는 최근에 미국 종교의 미래를 예견하는 것은 모험적인 일이라고 하면서 “이 나라에는 반 그리스도적인 편견이 만연되어 있다”(빌링즈 가제트, 1992년 5월 16일자)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말일의 정조들은 두렵기조차 합니다. 저는 그것들이 어떻게 계속 전개될지 걱정이 됩니다.

과거에는 도덕이 쇠퇴하면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경고의 음성을 높였습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에스겔 3:17).

오늘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목격하면서 저는 오늘 인류에게 회개하여 주의 크신 날을(교리와 성약 1:11~12 참조) 준비하라고 경고의 음성을 높이고 싶습니다.

델린 옥스 장로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꼬리 긴 다람쥐와 나무와 개에 관한 다음의 현대 우화는 제 염려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두 남자가 대학 교정을 거닐고 있다가 사람들이 무리지어 큰 단풍나무를 둘러싸고서 있는 것에 관심이 끌렸습니다. 그곳으로 다가가서 보니 그 사람들은 여우 꼬리 다람쥐가 나무 위로 오르락 내리락 거리며 재주부리는 광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아일랜드산 붉은 새터 개가 다람쥐를 노려보고 있다가 다람쥐가 나무 위로

올라가 보지 않을 때마다 나무 쪽으로 조금씩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개는 기회를 노리며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데도 다람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는 듯 했으나 이 드라마같은 장면을 즐기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다람쥐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개가 번개같이 달려들어 날카로운 이빨로 다람쥐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놀라서 달려가 개의 입을 강제로 벌려 다람쥐를 구하려고 했지만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다람쥐는 죽고 말았습니다. 다람쥐에게 경고하거나 개를 저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간적으로 즐기면서 악이 선을 향해 살금살금 다가오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태를 막으려고 했을 때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변에서 이 우화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성을 모독하고 저속하고 천박한 행위와 의로운 이상과 원리를 조롱하는 것들이 우리의 가정과 생활 속에서 여러 형태의 대중 매체를 통해 밀려 들어와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가치관과 도덕적인 타락을 가르치는 것을 구경하듯 지켜보다가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사회적인 행동 기준도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야 당황하게 됩니다.

제가 읽은 어느 신문 머리 기사 제목은 “전쟁 직전에 이른 미국 문화의 양 진영”이라는 글이었는데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뒤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다스리는 생활 규범을 누가 결정하는가? 누가 옳고 그르며 도덕적이고 부도덕하며 아름답고 추하며 건강하고 병든 것을 결정하는가? 누구의 신조가 법의 기준이 되는가?... “우리의 [문화적인 과제]는...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것이다.”(패트릭 제이 부케넌, 숄트레이크 트리뷴, 1992년 9월 13일, A15면)

로스엔젤레스 타임즈의 칼 토마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인간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격이거나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신은 우리에게 관여하지 않으며 우리가 원할 때 가끔 축복을 주지만 그 신이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하도록

명할 경우 그 명령을 무시해 버려도 된다.

“사실, 우리의 법은 대중의 이익, 즉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의의 표준에서 생겨났다... 그러나 정부가 번치않는 영원한 진리에 반대하는 부분적인 이유로 경전에 대한 무지가 만연되면서 그 표준이 버려져 왔다.

“윌리엄 펜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폭군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그분이 우리 개인의 생활에 요구하시는 것이 사회 생활에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결정하게 된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모르시게 땅에 떨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도움없이 왕국이 설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했다.

“종교 철학자인 고 프란시스 셰퍼는 ‘하나님은 정부에 권능을 위임하시어 성임하셨다. 정부는 스스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의를 집행하는 기관이 되어 잘못된 사람을 처벌하여 악을 억제하고 사회의 선을 보호해야 한다. 만일 정부가 그 반대로 행한다면 정부에게는 합당한 권리가 없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불법적인 폭군이 된다.’...

“문화 전쟁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것은 우주의 질서에 관해 말씀하시고 정부의 목적과 개인의 삶을 위한 계획에 관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그러한 가르침은 모호하거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거나 또는 신에 관해 토론하는 것은 소용없고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자유롭다고 하는 사람 사이의 갈등이다...

“[30년 전만 해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으며 낙태가 불법이었고 ‘동성 연애의 권리’는 행복해질 권리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저마다 각기 신이 되려는 것입니다.” (칼 토마스, *솔트레이크 트리뷴*, 1992년 9월 18일자, A18면)

이사야가 영감을 받아 “여호와와 말씀에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이사야 55:8)라고 한 말이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미합중국의 헌법을 만든 선조들이

채택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불변하는 원리와 이상은 자유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자유를 지탱시켜 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불변하는 원리와 우리가 원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표준과 우리의 믿음에 관해, 우리가 누구인가에 관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과 스코틀랜드, 영국 또는 스웨덴에서 가족과 물질적인 축복을 버리고 가정을 떠난 개종자들이 요셉이 먼 서부에서 이야기한 “시온”을 세우기 위해 브리검 영과 수백 명의 개척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과 용기에 관해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의 예언자요 교사이자 친구인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을 보았으며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창조된 인간 중에 그같은 시현을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세, 아브라함, 그리고 아담, 이렇게 몇 명 정도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시험받고 신뢰받고 진리를 발견한 엘리트 그룹에 속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고귀하고 위대한 자들”(아브라함서 3:22)이라고 말한 사람들 중에 속해서 지상에서 주님의 선택된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용기있고 충실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에 관한 새로운 희망의 영광스런 소식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새로 발견된 무지개 끝에서 무귀 영화를 찾기를 기대했을까요? 편하고 쉬운 삶을 기대했을까요? 그 반대입니다. 거기에는 슬픔과 추위와 고통과 기아와 모욕 및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같은 역경과 맞서 싸우며 신앙을 키워 나갔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느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과 영이 모두 강한 사람들은 황야를 정복하고 이사야가 주전 7백년 전에 보고 다음과 같이 기록한 것을 이루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와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과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와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이사야 2:2~3).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그들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캘리포니아의 금이 아니라 양심의 소리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요셉 스미스에게 밝혀진 영원한 원리를 지키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역경을 기꺼이 참으려 했습니다. 이 개척에서 기록된 초기 역사가 가장 훌륭한 문명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처럼 인내할 만한 매력적인 면도 없었으며 사실 아무것도 그 땅에서 자라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만 받았습시다. 이제 농장과 도시와 마을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괴자가 아니라 건설자로서 가정과 정원과 성전, 집회소, 학교 및 대학을 세우는 큰 꿈과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했으며 모두가 최선을 다해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경험이 많은 개척자로서 국가와 인류에 혜택을 베푸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영감받은 개척자들에 의해 혜택을 누리며, 더욱 나은 삶을 위한 소망과 신앙이 결합된 노력의 가치에 대한 가르침과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깊은 신앙과 충성심 및 순종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쌓아 놓은 의의 기초가 오늘날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 동안 열심히 추구해야 하는 과정인 완전을 향해 길을 출발했다고 믿었습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그러나] 각 사람에게는 고통을 통해 순종하고 순종을 통해 완전해지는 규범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의 가르침*, 에드워드 엘 김볼 편,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82년, 168쪽).

그들의 길은 곧았으며 굽어지거나 휘어지지 않았습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참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고 있으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압니다.

우리는 주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자녀들이 스스로의 기준으로 인격과 가족의 가치를 배우거나 삶의 방법에 관한 지식과 이해력을 얻기 위해 마음대로 음악을 듣고 텔레비전과 영화를 보도록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주님은 부모들에게 자녀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고(앨마서 39:12 참조) 다음과 같이 하도록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68:25).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68:28).

“너희는 너희 자녀를 험뵈고 굶주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다만 저들에게 진리를 지켜 신중하게 살기를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기를 [가르치라]”(모사이아서 4:14~15).

자상하신 하나님은 손수 손가락으로 돌판 위에 십계명을 쓰셨으며, 그것들은 전능하신 분의 기본적인 율법을 나타내며 그 이후로 국가와 종교법의 근간을 이루어 왔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주신 산상수훈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자세한 원리와 교훈입니다.

물론경과 성경에서 더 깊이 있게 가르쳐지고 있는 이 거룩한 가르침에 순종하는 부모와 아들 딸들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모두가 경전을 공부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힘과 이해력을 얻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을 세상적인 가르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결심하고 교회 모임에 참석해서 가르침을 받고 간증을 키우며 성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 성찬을 취하고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준비하여 그곳에서 세상으로부터의 피난처를 찾고 세상의 악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새롭게 하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권유로 이르노니”

베티 존 앤 잭슨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1보좌

“주님의 참된 교회의 회원으로서 아마도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하기 보다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의 한 친구가 일요일 모임에 늦지 않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차에 타도록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서둘러라, 매튜!” 어머니가 말하자, 집안 어느 구석에선가, “지금 가려고 하는 중이에요!”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성탄절도 그렇게 오고 있단다!”라고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세 살난 매튜가 문 앞에 나타나서 “야호! 신난다, 전 성탄절을 정말 좋아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한 것에 관한 참으로 훌륭한 일의 한 가지는 우리가 성탄절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의 일상 생활의 한 일부로 적용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세주의 탄생 이야기를 읽을 때, 저는 한 별에 의해 인도된 동방 박사들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거나 천사들의 합창에 의해 베들레헴으로 인도되면서 행한 일을 경험하기를 갈망합니다. 저는 지상의 어머니 품에 안긴 그 어린 아기를 보면서 스스로 이

기적을 증거하기 위하여 깨끗한 지푸라기 냄새를 맡으며 구유에 무릎을 꿇고 싶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자”하는 본능적 욕망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인간의 영적인 부분에 그같은 결심을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봅니다.

주님의 참된 교회의 회원으로서 아마도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하기 보다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구세주의 탄생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마음에 상기시키게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일에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스스로 증거하도록 초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 또한 “교회로 돌아오라”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권유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마태복음 4:19 참조)고 말씀하신 이래로 그 권유는 충실히 지켜져 왔습니다. 모든 경륜의 시대를 통해서 예언자들은 귀 기울이는 모든 이에게 똑같은 권유를 하셨습니다.

예언자, 엘마의 아들 엘마는 그것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었던 제이라헤들라 성도들에게 다음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자비의 손길을 펴서 모든 인간들을 부르시며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내가 너희를 맞으리라...”

“내게로 와 너희가 행한 의로운 일을 내게 보이라”(앨마서 5:33, 35) 침례받은 교회의 회원으로서 저는 그 권유를 듣고 “어떻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을까”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권유를 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으로서는 제 친구의 아들 매투가 한 것처럼 “지금 가려고 하는 중이에요”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엘마는 제이라헤틀라 백성들에게 “그들의 임무”를 상기시켜 주면서 마지막으로 “내게로 와 너희가 행한 의로운 일을 내게 보이라”(엘마서 5:35; 또한 4:3 참조)라고 말했습니다. 엘마의 권고를 길잡이 삼아서 주님의 권유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상기시켜 주는 것에 대하여 저와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습니다.

경전과 말일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공부하고 깊이 생각해 봄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행하여야 할 바를 알려 주게 될 것입니다.(니파이서서 32:3 참조) 그런 다음 우리는 그 말씀을 가꾸어 뿌리가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엘마서 32:41~43 참조) 우리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를 굳게 지킬 때, 유혹이나 원수의 불길같은 창도 우리를 사로잡지 못할 것입니다.(니파이서서 15:24 참조) 목자와 동방박사들이 구세주의 탄생에 대해 듣고 그 사실을 알았던 것과 같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경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와 세상에 빛이 되며 우리는 경전의 말씀을 마치 우리를 안내하는 별인 것 같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부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을 생각할 때, 희망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허가하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모로나이서 7:48)십시오. 우리는 매 시간, 매 분 필요한 것을 간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유 옆에 무릎을 꿇고 그곳에서 구세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이러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취함으로써 침례 성약을 기억합니다. 성찬 기도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생활하여 성전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필멸의 인간이 이 지상에서 하늘 나라의 지식에 따라 살기를 결심할 필요성을 채워 주는 개심의 궁극적인 행위입니다. 목자들이 그 미천한 구유로 가는 것을 마치 성지로 가는 여행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전을 방문하는 것을 성지로 가는 개인적인 여행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재능은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우리는 재능을 발전시키고 증진시킬 수 있으며 그런 다음 그분에게 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훈련시키고 증진시키고 바칠 수 있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규칙적으로 이 재능을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이미도 친절함이나 감사하는 마음을 재능으로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명랑하고 도움을 주고 비이기적이 되는 것이 재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미소를 짓는 것이 재능이 아닐까요?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들의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은 “주님에게 나아오라”는 권유에 응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의 표시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봉사를 평가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자문해 봅시다. “병으로 집에 갇혀 있는 친구를 방문할 것인가?” “입을 열어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에 대하여 간증할 것인가?” “나의 세상적인 재물을 나누어 줄 것인가?”

“나의 자녀들과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들을 위하여 많은 것을 해 줄 수 있는가?” “교회 부름에서 기쁘게 봉사하는가?”

저는 가끔 저에게 주어진 부름으로 인해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지만, 주님이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친숙하고 안락한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며 조용히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경험에 대한 위험성이나 수고를 들여 봉사할 것이 요구되는 부름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으며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사업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만큼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생활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탄생하셨던 것과 같은 장면을 자신의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동방박사가 행한 바로 그대로 우리에게는 따라야 할 한 별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시편:119:105)됩니다. 경전은 우리의 길을 밝힐 수 있으며, 우리의 간증은 마음속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와 그의 종들의 음성은 천사들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증을 전함으로써 천사들의 합창처럼 “호산나”를 외치며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우리를 감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43:8 참조) 우리는 의를 행함으로써 마치 지팡이를 짚고 예물을 들고 울퉁불퉁한 자갈 길을 걷는 것처럼 매일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가꾸고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곧은 길”(엘마서 37:44)을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중이에요”라고 대답하길 기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른다”(엘마서 5:41)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부르셨고 아직도 부르고 계시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로워짐

존 이 파울러 장로
칠십인 정원회

“경전과 현대의 예언자 및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즉 빛과 진리의 샘의 근원으로 나아오도록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 직분을 맡은 즈음에 저는 여러분이 지지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저의 영원한 동반자와 자녀들과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1875년 10월 9일 이 태버나클이 헌납되었을 때 존 테일러 대관장님은 브리감 영 대관장님의 영감어린 기도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원 및 헌납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우리는 대관장님과 주님의 종들이 모여 있는 이 집에 거룩하고 신성하게 되어, 주의 종들이 나아가 영원도록 아들의 이름으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성역을 베풀 수 있도록 헌납하옵니다....

“주님의 거룩한 천사들과 성역을 베푸는 영들이 이곳에 임재하도록 하여 주셔서 주의 종들이 이 거룩한 장소에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역을 베풀도록 부름을 받을 때는,

그들에게 시현이 열리고 성신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종들의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생명수의 샘에서 생명수를 값없이 마심으로써 구원을 얻는 일에 현명해질 수 있도록 하여주시옵소서.”(밀레니얼스타, 1875년 11월 15일, 724쪽).

이 말의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기 위하여 이 연단에 서신 분들은 상당한 숙고와 명상과 금식과 기도를 하신 후에라야만 서셨습니다. 진실로 모든 연사는 “시현”을 추구했으며 그리하여 “성신의 영과 영감과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로 가득찼을 것입니다.” 오늘 제 마음속에 있는 바람과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람은 그것을 말씀으로 듣고 “구원을 얻는 일에 현명”하게 될 사람들의 생활에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교회의 회원들은 연차 대회 모임과 태버나클에서 열린 그의 다른 특별한 모임에서 이 연단으로부터 전해진 메시지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종의 음성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그들의 책임을 이해하고 있습니까?(교리와 성약 1:14) 확실히, “주님의 음성이거나 주님의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교리와 성약 1:38)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받는 영감을 받은 권고와 지시가 “땅의 주민에게 임할” 모든 재앙을 알고 계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경고의 음성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교리와 성약 1:17) “주께서 진노하시고 주의 검이 하늘에 셋기웠은

즉 땅의 주민 위에 떨어”(교리와 성약 1:13)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은 땅끝까지 미치리니, 듣고자 하는 자는 모두 들을 수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1:11)

많은 사람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교리와 성약 123:12)하기 때문에 주님의 종들에 의해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해지며 주님의 제자들의 순종의 영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굽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주시는 지침 없이 오늘날의 사회를 살아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영적으로 죽어있는 개인이나 가족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연단으로부터 전해진 말씀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악과 고통과 비탄과 슬픔이 사라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예언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영적인 암흑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자의 말씀은 기꺼이 듣고 그리고 계시된 진리에 따라 살려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발에 등이요 길에 빛”(시편 119:105)이 됩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의롭게 성취하는 성공, 속임수를 피하고 유혹에 저항하는 권세, 일상 생활에서 받는 인도 영혼의 치유—이러한 것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들 가운데 단지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연차 대회, 1986년 4월, 82쪽).

그러므로 우리는 경전과 현대의 예언자들과 사도와 그의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즉 빛과 진리의 샘의 근원으로 나아오도록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것에 관해 벤슨 대관장님께서 주신 다음 가르침은 영원히 적용될 것입니다. “앞으로 육 개월 동안 대회 말씀이 실린 성도의 벗을 여러분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늘 곁에 두고 자주 참고하셔야 합니다. 저의 사랑하는 친구인 해롤드 비리 대관장은 ‘우리는 이 대회 말씀이 앞으로 육 개월 동안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데 지침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이 말씀들은 주님이 이 시대에 이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중요한 말씀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연차 대회, 1988년 4월)

그리고 메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이 하신 대회 말씀 중에서 영감적인 가르침을 몇가지 들려 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는 이 대회에서 훌륭한 말씀들을 듣고 커다란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교사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며, 우리가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면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에 충분한 진리의 말씀과 지침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산으로 인도되어 위대한 영광의 시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그곳에 거할 곳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은 분은 얼마나 됩니까?(대회 보고, 1954년, 132~133쪽).

"주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상기시키시기 위해 교회 역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전해 주신 복음 원리와 실행 원리들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연차 대회를 통해 영을 축적하게 됩니다. 주님은 왜 주님이 이 대회에서 말씀하신 총관리 역원들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영감을 주셨는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면 말씀하실 것을 이분들을 통해서 듣는다는 것은 커다란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대회 보고, 1950년 10월, 126~127쪽).

"오늘날 주님은 대관장님을 필두로 살아 계신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 시대의 문제에 관해 지상의 모든 주민과 특별히 교회 회원들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대관장단에서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이곳에 몸소 계신다면 하실 말씀입니다. 이것이 물론이즘의 굳건한 토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거듭 대관장단에서 대관장단의 자격으로 하시는 말씀은 주님을 대표해서 하시는 말씀이며 따라서 곧 경전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마치 교리와 성약이나 다른 경전에 있는 계시의 말씀처럼 공부하고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 과정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정치적 편견이나 이기심에서 영감받은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들의



회중 찬송을 부르고 있는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권고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처지에 대해 아는 것이 없거나,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라는 인용문으로 그 권고가 시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경전을 탐구하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예언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알 수 있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며, 또한 주님의 영의 방문을 받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말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대회 보고, 1945년 4월, 90쪽)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에스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의 많은 가르침을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50년 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성직에 봉사하면서 모세처럼 다소 팔에 무거움을 느꼈지만 영감에 찬 모든 봉사 기간 동안 이 연단으로부터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은 충실한 자들의 생활을 계속 축복해줄 것입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님은 일찌기 영감을 받은 말씀에서 교회의 머리되시는 분의 말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언자가 예언의 권능으로 말을 할 때는 교회의 계시로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분들은 모반의 세력이 형성한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언자는 각기 현 시대의 백성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과거 및 현재의 계시를 사용합니다. 이 분들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과 기쁨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영감받은 말씀으로 읽혀지고 지켜져야 합니다."(윌포드 우드럽 설교집, 슬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46년 11~12쪽).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예언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거듭 호소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말씀을 읽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연단으로부터 전해진 살아계신 예언자와 지도자들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써 구원을 얻는 일에 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과 그분의 두 보좌들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은 하나님의 어린양의 사도들이며 예언자임을 증거합니다. 또한 이 교회와 인간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는 교회의 사업은 오로지 선행과 신앙과 살아계신 예언자들과 하나가 되는 기초 위에 놓여 있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고 이 구원의 사업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약속도 잊지 말지니

제이 이 젠슨 장로
철심인 정원희

주님은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승영입니다. 놀랍게도 가장 큰 약속들은 필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아내와 자녀들에 대해 매우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들의 사랑과 신뢰와 지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며 복음 안에서 생활하시는 부모님과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저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마음속에서 우리나라 오는 감사를 표합니다. 총관리 직원들의 친절과 온화한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해 동안 함께 일해 온 분들과 이 새로운 부름에서 저에게 사랑과 지지를 표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름을 받도록 예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부름을 받을 수 없다는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면서 주님과 주님의 지도자들은 믿는 신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시도해 봄

저는 경전을 사랑합니다. 경전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엘마서의 한 절을 저의 인생과

연관시켰습니다. 경전은 저에게 정당한 일을 하게 하는 데 큰 힘이 된 것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겹이나 그 밖에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큰 영향을 저에게 미침을 알았으니 이로써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엘마서 31:5 참조).

벤슨 대관장님은 “매일 경전을 상고함으로써 성신의 권세를 지니도록 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엘사인 1986년 5월, 82쪽).

킴블 대관장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관심할 때 그리고 듣는 신성한 귀가 없고 말하는 신성한 음성이 없는 것같이 시작될 때 저는 자신이 멀리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경전을 상고한다면 거리가 좁혀지고 영성이 돌아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블의 가르침, 에드워드 엘 킴블 판, 슬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82년, 135쪽).

약속도 잊지 말지니

남미의 한 선교부를 관리하고 있는 동안, 저는 선교 본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접견하고 선교 지역 대회를 개최하고 지방부 대회를 관리하기 위하여 여행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들 가운데 약간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지방부 대회에서 회원들과 지도자들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선교사들과 회원들에 대하여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더 컸고 저는 좌절감과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나흘 간의 접견과 모임을 마친 후에 저는 슬픔과 실망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는 여행하는 동안 자주 경전을 읽는데 위안과 인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몇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곳 저곳을 펼쳐 보다가 교리와 성약 3편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저의 관심 사항에 들어맞는 처음 다섯 절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 구절을 읽을 때 가끔 제 이름을 그 구절에 삽입시켰습니다. 5절도 그렇게 읽어서 저의 우울한 기분을 없애는 데 필요한 도움을 얻었습니다. “보라, 이 일이 너 제이 젠슨에게 위임되었으나 네가 받은 명령은 얼마나 엄격하더냐, 그 명령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너 제이 젠슨에게 하신 약속도 잊지 말지니...”

“약속도 잊지 말지니”라는 말씀은 진기한 힘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었을 때 그의 느낌이 어떠했을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을 잊지 말지니”라는 말이 “나의 가슴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 번 생각하였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12) 지난 나흘 동안 온통 저는 문제점들만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어서 단 한마디 약속을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비행기에서 저는 축복사의 축복문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몇 가지 놀라운 약속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부장으로 성별될 때 저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마음에 되새겨 보았습니다. 저는 경전 구절을 더 읽으면서 각 구절마다 나온 약속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경전을 상고할 때 “이는 참되고 신실하며 그 가운데 있는 예언과 약속은 모두 성취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37)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 이라는 것을 그때 배웠으며 저를 거듭 거듭 강화시켰습니다.

두가지 종류의 약속

주님은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종이 한 장을 두 난으로 나누어 한 쪽 난의 맨 위에 “이 생을 위한 약속”이라고 쓰고 다른 난에는 “다음 생을 위한 약속”이라고 썼습니다. 한 가지 약속을 찾으면 두 난 중 한 난 밑에 그 구절과 약속을 썼습니다.

저는 경전의 자기 다른 부분에서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것에 대한 다음

생에 관련된 두 가지 주요한 약속을 여러 차례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승영이고 또 하나는 영생입니다. 예를 들면 니파이는 “그러므로 너희가 힘차게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며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 . .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니파이서 31 : 20)라고 말씀했습니다.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약속들은 이 세상에서의 육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약속은 힘에 관한 약속, 증가에 관한 약속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약속들입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힘에 관한 약속

힘에 관한 다음의 다섯 가지 약속을 생각해 봅시다.

1. **악을 극복하는 힘**-니파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를 굳게 지킬진대 멸망당하지 아니하며, 유혹이나 원수의 불길 같은 창도 이러한 자들을 사로잡아 눈멀게 하거나 멸망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니파이서 15 : 24; 또한 시편 17 : 4; 119 : 98~101, 104; 힐라맨서 3 : 29~30 참조).

2. **의롭게 사는 힘**-엘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쳐 저들의 임무를 깨닫게”(엘마서 4 : 19) 하였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시편 119 : 105, 또한 디모데후서 3 : 15~17; 힐라맨서 15 : 7~8 참조).

3.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는 힘**-엘마와 모사이아의 아들들은 “열심으로 복음을 연구하였으며...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엘마서 17 : 2~3; 또한 디모데후서 3 : 16 참조)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하이람 스미스에게 “먼저 나의 말을 얻으려 힘쓰라, 그런 연후에야 내가 원하면 나의 영과 나의 말 곧 인간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11 : 21; 또한 디모데후서 3 : 15~17; 엘마서 4 : 19; 31 : 5; 교리와 성약 84 : 85 참조)고 말씀하셨습니다.

4. **하늘의 권세를 불러 내릴 수 있는 힘**-야곱은 “우리는 예언자에게 구하며...



우리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나무를 명하여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며, 산이나 대양의 물을 명할 수 있게 되리라”(야곱서 4 : 6; 힐라맨서 10 : 4~5)고 말했습니다.

5. **마음과 성격을 변화시키는 힘**-사무엘은 니파이인들에게 레이맨인들이 “기록된 성스러운 경전을 믿게 되어 저들의 마음에 큰 변화를 일케 한 주를 믿는 신앙과 회개로 안내된 자들이 되었다”(힐라맨서 15 : 7; 또한 니파이서 15 : 20 참조)고 가르쳤습니다.

증가에 관한 약속

이제 증가에 관한 다음의 약속을 생각해 봅시다.

1. **희망과 기쁨의 증가**-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경전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로마서 15 : 4; 또한 니파이서 11 : 25; 야곱서 2 : 8; 4 : 6; 엘마서 44 : 5; 교리와 성약 19 : 23 참조)고 가르쳤습니다.

2. **영성의 증가**-“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당한 일을 하게 하는 데 큰 힘이다”(엘마서 31 : 5; 또한 니파이서 4 : 15~16; 모로 6 : 4 참조) 되었습니다.

3. **지식과 이해의 증가**-니파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심이라.”(니파이서 32 : 3)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요셉 스미스에게 “경전은 너희 교훈을 위하여 내가 주는 것이라”(교리와 성약 33 : 16; 또한 시편 19 : 7; 119 : 98~101; 디모데후서 3 : 15~17; 엘마서 12 : 10; 17 : 2~3; 교리와 성약 18 : 34~36 참조)고 하셨습니다.

4. **분별력의 증가**-“권세로

가득하시어 온갖 마귀의 간사와 교활과 간계를 파하시어 하나님의 말씀”(힐라맨서 3 : 29) “나의 말을 간직하는 자는 미혹을 받지 아니할지니”(요셉 스미스서 1 : 37; 또한 히브리서 12 : 4 참조).

5. **간증의 증가**-교리와 성약에는 “너희는 나의 음성을 들었고 나의 말을 알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18 : 36; 또한 시편 19 : 7 참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약속들

힘에 관한 약속과 증가에 관한 약속 등 일반적인 약속 이외에도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여호수아 1 : 8)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온다”(요셉 스미스, *교회 정사*, 3 : 379)와 같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은 “우리가 경전을 읽고 공부할 때 많은 종류의 축복과 이익이 우리에게 옵니다. 경전 공부는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것보다도 더욱 가치있는 일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엘사인* 1979년 11월호, 64쪽).

우리 모두 그러한 약속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경전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경전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셉 스미스가 말씀한 것처럼 두 분은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입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예언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필리핀에서의 선교 사업

아우구스토우 에이 림장로
철심인 정원회

“신앙심 있고 헌신적이며 올바른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한 [필리핀] 회원들은 그들의 생활에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향상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회원이 된 이래 한평생을 손색없이 지지해 주고 사랑을 보여준 제 영원한 동반자에게 사랑과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인구가 6천 7백만 명에 달하며 한 때 동양의 진주라 불리웠으나 지금은 지진과 태풍과 홍수와 심지어는 화산 폭발 때문에 황폐되어 가고 있는 땅인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역경을 겪게 하고 우리 백성들의 신앙을 시험한 재난에 대하여서보다는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됨으로써 경험해 온 많은 위대한 영적인 축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된 복음은 말일성도 군인 형제 자매들이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날 무렵 필리핀에서 복무하는 동안 그들에 의해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교 사업이 필리핀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남극동 선교부의 기록으로 볼 때) 1961년 4월 28일부터로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고든 비힝클리 부대관장님이 필리핀에서 선교사업에 관한 주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마닐라 교외에서 일단의 회원들과 모임을 가졌을 때부터였습니다.

힝클리 부대관장님은 기도를 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곳에서 시작하는 일이 이 섬나라에 사는 수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영향은 영원히 자손 대대로 지속될 것입니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간략하게 하셨습니다. (필리핀군도 지역 대회, 1975년 8월, 20쪽).

간단한 말씀을 하신 후, 힝클리 부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시여 이 땅에 오는 선교사들 위에 아버지의 축복이 임하시어, 아버지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생활이 깨끗하고 유덕하게 되며, 그들이 이 백성들 앞에 훌륭한 모범이 되며, 방언의 은사의 축복을 받아 이 백성들의 언어로 말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에 영예와 영광을 가져 오도록 오로지 하나의 목적으로 일하게 하시어 그들이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시어 아무 것도 그들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어 가르침과 간증으로 그들이 아버지의 자녀들의 축복을 위하여 아버지의 거룩한 사업의 회복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시여, 그들이 봉사함에 있어서 기쁨과 용기와 신앙과 만족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훌륭한 많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축복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이곳으로 오는

선교사들에게 다정하고 관대하며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축복받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저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잘 받아들이는 마음 가짐과 이해력 있는 가슴과 받아들이고자 하는 신앙과 복음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고자 하는 용기와 그리고 그들이 받을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충실하고 선하고 유덕하고 진실한 남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권의 축복을 받고 지도자가 되어 성장하게 하시어서 참된 교회의 율법과 반차에 따라 이 시대에 열쇠를 지닌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 이곳 지도자들에 의해 아버지의 사업이 이 땅에 널리 퍼지기를 간구드립니다.” (고든 비 힝클리, “필리핀에서 선교 사업의 시작”)

이 역사적인 모임이 있던 지 며칠 후에 최초의 복음 선교사 네 명이 홍콩에 본부를 둔 극동 선교부에서 왔습니다. 1961년에 몇 안되는 회원으로 시작한 필리핀의 교회는 그 이래로 괄목할만하게 성장하였으며 현재는 한 달에 2,000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음 선교사들과 회원들의 긴밀한 상호 협력의 결과로 현재 48개 스테이크와 65개 지방부 그리고 13개의 선교부에 300,0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13명의 선교부장 가운데 다섯 명의 선교부장과 여덟 명의 지역 대표 전원과 스테이크 지방부 부장들이 모두 필리핀인 말일성도입니다. 2,000명 이상의 복음 선교사들 가운데 60~70퍼센트가 또한 자국인 말일성도입니다. 현재 필리핀 마닐라 성전이 메트로 마닐라의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땅에 장엄하게 서 있습니다.

힝클리 부대관장님의 기도는 “너는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도시에서 도시로 참으로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나의 뜻이니라.” (교리와 성약 66:5)라는 주님의 부름의 나팔 소리에, 수 천의 청년 청년들 뿐만 아니라 연로한 부부들이 응답하고 있으므로 분명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선교부장으로서의 삼 년 동안 헌신적이며 끈고 유덕한 젊은 선교사들과 가까이 봉사했던 때를 돌아보며 그들이 행하는 선에 대하여 겸손해지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젊은

주님의 사절들은 그들 가정의 안락함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정을 떠나 멀리 타향 또는 타국으로 와 구세주에 대한 강한 간증을 나누고 복음이 참됨을 믿는 신앙과 확실한 지식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자 하는 숭고한 열망으로 향수를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과 관습, 배워야만 하는 새로운 언어 및 집에서 어머니가 만들어 준 음식과는 전혀 다른 음식에 적응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저의 간증은 강화되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이 사람을 기진 맥진케 하는 작열하는 태양의 열기 속에서 혹은 으슬으슬한 몬순 비 속에서 수 킬로미터를 건너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과 같은 고초와 약속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울퉁불퉁하고 먼지가 날리는 시골 길을 짐을 가득 실은 차를 타고 전속력으로 달려야 하는 불편을 즐겁게 건너 내면서 희생을 마다 않는 모습을 매일마다 보았습니다.

진실로, 필리핀과 다른 나라에서 수고하는 현대의 진리의 사자들은 회개와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모든 이에게 간증하고 도전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합당한 도구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복음 28:20)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사이야의 아들들처럼...“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열심히 복음을 연구한 사람들”(엘마서 17:2)이었으며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여 예언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었고,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가르쳤”(엘마서 17:3)고 “많은 고난을 겪었으니, 때로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피로하여 심신의 고통이 컸으며 영적으로도 많은 괴로움을 받았”(엘마서 17:5)습니다.

영광스러운 선교 사업을 마친 후 모사이야의 아들 중 하나인 암몬처럼 이 선교사들도 “나의 기쁨이 차고 넘치나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려 함이니라”(엘마서 26:11)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1961년 그 아름다운 4월의 아침에 헝클리 부대관장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해주신 기도와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목격하고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음악 순서를 맡은 물론 청소년 합창단.

있었습니다. 교회의 회원이 된 축복을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회원들의 도움과 함께 헌신적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많은 가정에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됨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에 의해 감동됩니다. 가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회원이 크게 증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맨 먼저 이 나라가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기독교 국가였으므로 다가올 복음에 대해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굳이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핀이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영어권 국가라는 것이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해주었고 회원들이 빨리 지도자의 자질을 개발하게 된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나라 사람들의 겸손한 마음과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하여 주님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영의 속삭임을 받아들일도록 해준 것입니다. 필리핀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틀림없이 복음은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복음에 기초를 둔 많은 말인성도들의 생활의 결과로서 그들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생활의 변화가 일고나고 있음을 봅니다. 많은 회원들이 아직도 흙이나 대나무 바닥과 벽으로 된 누추한 집에서 살지라도 복음의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약속된 축복을 받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 결과로 이제 보다 청결한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더 건강하고,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남을 돕기 위하여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 기쁘게 돕는 그리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대체적으로 더욱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 가족들 속에서의 변화를 봅니다. 그들은 “내게서 배우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영의 부드러운 길을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리라”(교리와 성약 19:23)라고 하신 주님의 권고에 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신앙심 있고 헌신적이며 올바른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한 회원들은 그들의 생활에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향상되었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하고자 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는 이 말일에 시온의 땅의 좋은 것을 먹으리라”(교리와 성약 64:34)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계명과 우리 지도자들의 권고에 순종할 때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갖도록 주님이 우리 백성들을 계속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말씀드립니다. 아멘. □

값진 유산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마음이 상했거나 흥미를 잃었거나 혹은 그의 어떤 이유에서건 교회를 멀리하셨던 분들에게, 우리와 함께 다시 온전한 우정을 나누도록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 시대를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값진 유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도왔던 충실한 개척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 중에서 처음 개종한 회원들은 진정한 개척자입니다. 그들은 깊은 신앙과 헌신에 찬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모든 개척자들의 후손들, 특히 이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들어와서 유타주와 다른 미국 서부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속한 값진 유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개척자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와이오밍 리버튼 스테이크의 성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로버트 로리머 스테이크 부장과 그의 보좌들의 지시에 따라 그 스테이크의 청소년들과 청소년 지도자들은 1856년에 손수레 대대가 여행했던 그 길의 일부를 손수레를 끌고 여행했습니다. 우리는 일찍 트럭을 타고 출발하여 먼저 인디펜던스 록으로 가서 그곳에서 물론 개척자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킬로미터 못 가서 악마의 문이란

곳을 보았습니다. 마틴 손수레 대대가 살을 에는 추위와 아사 상태에서 시달리며 솔트레이크시티로부터 오는 구조 마차를 기다리던 장소인 마틴스 코브 성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숙연해졌습니다. 약 56명의 마틴 손수레 대대의 일행이 그곳에서 기아와 추위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위트위터 강을 건너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감격스러운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강은 용감한 세 명의 젊은이가 500명의 대원 대부분을 업어서 얼음 조각으로 가득찬 그 강을 건너게 했던 곳입니다. 그 후 그 세 청년은 모두 강을 건널 때의 극심한 긴장과 극도의 추위의 후유증으로 모두 숨지고 말았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 영웅적인 행동에 대하여 듣고 어린애와 같이 우셨으며 후에 "시 앨런 헌팅턴과 조지 더블류 그랜트와 데이비드 피 킴볼은 이 행위 하나만으로 끝이 없는 세상인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은 것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공표하였습니다. (솔로몬 에프 킴볼, "1856년의 뒤늦은 이주민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14년 2월호, 288쪽)

우리는 더 멀리 윌리 손수레 대대가 구조된 장소로 개척자의 길을 따라 갔습니다. 성지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대원중 21명이 굶주림과 추위로 숨졌습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서 2.2km 높이의 로키 리지에 닿았습니다. 그곳이 물론 개척자의 길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었습니다. 3km 더 가면 고도가 210m 가량 높아집니다. 로키 리지를 넘는 것은 모든 개척자들에게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1856년 가을 심한 눈보라 속에서 그 능선을 오르며 고군 분투한 윌리 손수레 대원들에게 그것은 특히 고통스런 일이었습니다. 다 닳아 떨어진

신을 신은 많은 대원들은 돌뿌리에 발을 다쳐 눈 위에 핏자국을 남기며 갔습니다.

우리는 로키 리지를 넘어가면서 가로막 두 개와 구식 단추 하나를 주웠습니다. 이것들은 험한 바위를 넘어가면서 흘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 역사적인 장소에 있으면서 저의 영혼은 경의심과 경건함으로 찻습니다. 비록 그 손수레 일행 가운데 있지는 않았지만 저의 조상들도 이곳을 넘어가셨습니다. 그 위대한 서부 이주를 시작한 저의 조상들 가운데는 로키 리지까지도 못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분이 윈터 쿼터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몇 킬로미터 더 가 레이디엄 스프링스에서 손수레 대원들이 갔던 길을 손수레를 끌며 그 당시를 재현하고 있는 리버튼 스테이크에서 온 185명의 청소년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136년 전에 그 여행길에서 고통 속에서 투쟁한 사람들의 신앙과 영웅적인 행동에 대하여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윌리 손수레 일행이 아영했던 록 크리크 할로우에 도착했습니다. 추위와 피로와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은 윌리 대원 13명이 록 크리크 할로우에서 한 무덤에 함께 묻혔습니다. 또 밤사이에 숨진 다른 두 명은 그 근처에 묻혔습니다. 록 크리크 할로우에 묻힌 사람 들은 나이 어린 영웅으로 그 이름은 덴마크에서 온 아홉 살 난 보달 모틴슨과 스코트랜드에서 온 열 한 살 난 제임스 커크우드였습니다.

보달은 그들이 로키 리지를 넘을 때 어린 아이들을 돌보라는 임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영지에 도착했을 때 보달은 땀감을 모으러 나갔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소녀는 불을 지피기 위하여 모은 잡초들을 손에 쥔 채 손수레 바퀴에 기대어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제임스 커크우드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임스는 스코트랜드 글래스고우에서 왔습니다. 서부로 가는 여행에서 제임스는 홀어머니와 다른 세 형제와 동행하였는데, 19살 먹은 형 토마스는 불구라서 손수레를 타고 가하였습니다. 여행에서 제임스의 주된 책임은 어머니와 말형 로버트가 손수레를 끄는 동안 네 살 난 동생 조셉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로키 리지에 올랐을 때 눈보라가 치고 있었고 살을 에는 듯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일행 모두가 24km 전진하는 데 27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린 조셉이 너무 지쳐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형 제임스는 동생을 안고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행 뒤에 처져서 제임스와 조셉은 야영지를 향해 천천히 갔습니다. 이 두 형제가 야영지에 지퍼 놓은 모닥불가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임무를 그토록 충실히 행한 제임스는 심한 추위와 극심한 괴로로 쓰러져 숨졌습니다.”(돈 에이치 스미스가 로리머 스테이크 부장에게 보낸 개인 서한, 1990년 2월 20일 돈 커스렛의 기사 인용)

1856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브리감 영 대관장의 부름을 받아들이는 구조대원들 또한 영웅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그때 대평원에 있던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40명의 젊은이와 노새나 말 60 내지 65필과 10톤의 밀가루를 실은 짐차를 하루나 이틀 안에 떠나게 하였습니다.(트로이 해핀, 시온으로 가는 손수레,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 아서 에이치 클라크사, 1960년, 121쪽) 이 구조대원들은 고통받은 여행자들을 돕기 위하여 속히 갔습니다.

구조된 그 여행자들이 솔트레이크 계곡 가까이 왔을 때 브리감 영 대관장은 바로 이곳에서 모임을 소집하여 그들을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는 솔트레이크 계곡에 사는 성도들에게 고통스런 여행길에서 온 성도들을 집으로 맞아들여서 편히 쉬게 하고 음식과 옷을 나누어 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발목까지 동상에 걸렸거나 무릎 혹은 손에 동상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친자식처럼 맞아들이고 친자식에게 갖는 그런 똑같은 감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헤이픈, 시온으로 가는 손수레, 139쪽)

구조대가 윌리 손수레 개척자들을 그 계곡으로 데려왔을 때 대장 윌리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여러 감독들은 집이 제공되지 않은 모든 사람을 편안한 막사로 데리고 갔습니다. 일부는 손과 발이 심한 동상에 걸려 있었지만 그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행해졌습니다. 그 도시를 통과할 때 수 백 명의 시민들이

손수레 옆으로 몰려들어 산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우리를 진심으로 환영하여 맞아 들였습니다.”(제임스 지 윌리, 여행 역사, 1856년 11월 9일)

이러한 참혹한 경험들을 함으로써 이 개척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대평원을 건넌 사람들은 신앙의 유산 이외에 위대한 사랑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류에 대한 사랑의 유산을 남겨 주었습니다. 그것은 절제, 독립심, 근면, 높은 도덕적 가치 그리고 협력의 유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이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대한 충성의 상속권입니다. 그것은 악을 버린 마음의 유산입니다. 성적 부도덕, 동성 연애, 도박, 이기심, 부정직, 불친절, 술과 마약 중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곳 유타에서는 몇 주 안에 도박을 합법화하는 것에 관한 투표가 있습니다. 교회는 도박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결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논쟁이 격렬해짐에 따라 우리는 교회의 회원들에게 관대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도록 권고합니다. 우리 모두는 도덕에 관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2세 부대관장님은 “우리는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그 결과로서 오는 형벌을 치러야 합니다.”(교회 복지 계획의 원리, 감독 모임에서의 말씀, 1944년 10월 6일)

저는 왜 이 용감한 개척자들이 그들의 신앙의 대가로 참혹한 고통과 고난의 값을 치러야 했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심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여건이 좋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들의 생명이 고통을 통해 더 높은 목적을 위하여 헌납되었다고 믿습니다. 구세주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영혼 속 깊은 곳에서 불타 올랐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 자녀들의 영혼 속 깊은 곳에서도 불타올랐습니다. 그들 영혼 속에서의 진정한 개종을 통해 그들은 삶에 대한 동기 부여를 받았습니다.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은 “말일성도 개개인의 가슴 속에 이

사업이 참되다는 위대하고 힘찬 간증이 있을 때 그 말일성도는 교회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앤사인, 1984년 5월호, 99쪽)

그 개척자들은 그 영웅적인 역사적 사건들에 참여한 이외에도 개인적인 생활을 위한 지침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실체와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여행에서 마틴과 윌리 손수레 대대 대원들은 교회를 배도하고 서부로부터 발걸음을 돌려 동부로 돌아가는 일부 사람들을 접하였습니다. 이 배도자들은 대원들 안에 있는 일부 사람들을 설득하여 함께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몇몇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개척자들은 이 생에서의 영웅적인 성취와 내세에서의 영생을 위하여 전진해 갔습니다. 마틴 대대의 일원이었던 프랜시스 웹스터는 “우리 모두는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절대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케이, “여성 개척자”, 상호부조회지, 1948년 1월, 8쪽) 저는 이 개척자들이 남긴 신앙의 값진 유산이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어 “모든 사람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구세주의 사업에 더욱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숭고한 개척자들의 자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여러분은 신앙과 용기의 값진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정을 나누고 있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과연 무엇이 여러분 조상들의 가슴에 그토록 위대한 신앙을 심어 주었으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회원으로 남기 위해 그러한 참혹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도록 했는지 알기 위하여 노력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마음이 상했거나 흥미를 잃었거나 혹은 그 외의 어떤 이유에서건 교회를 멀리 하셨던 분들에게, 우리와 함께 다시 온전한 우정을 나누도록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충실한 회원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잘못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 만연된 암흑의 세력에 대항하는 위대한 투쟁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의 일부가 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의 깊은 갈망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성하고 거룩한 것들을 추구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개인적인 위안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에서 집행되는 축복과 성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속된 세상에 살지라도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에서 위대한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요를 받지 않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강건한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니파이서서 2:26 참조)

몇 년 전에 교회의 대관장단은 모든 사람에게 돌아오라는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비활동인 회원, 비판적이 되었거나 쉽게 남의 허물을 캐는 사람, 그리고 심각한 방법으로 인해 회원 자격 정지나 파문을 당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는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거나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노라’(교리와 성약 64:10)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대로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교회 회원들에게 권고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비활동이 되었거나 비판적이 된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돌아 오십시오. 돌아오셔서 주님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여 성도들과 함께 달콤하고 충족감을 주는 우정의 열매를 다시 맛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면서도 어색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 줄 사랑과 기꺼이 도와 줄 손길을 여러분이 찾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훌륭한 연차 대회를 마치며 총관리 역원을 대신하여 저는 진심으로 그리고 겸손히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의 두 팔을 벌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헤어지면서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벤슨 대관장님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하며 우리의 생활을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전 통적으로는 주님의 예언자이자 선견자, 계시자인 교회의 대관장이 연차 대회의 폐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대관장님을 대신하여 말씀드리라는 지명을 겸손하고 정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연차 대회는 영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바친 기도는 진실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었으며 음악과 찬송가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도록 고양시켜 주었고 우리가 이를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 지점까지 들어올려 주었습니다. 연사로 나오신 형제님들과 젊은 자매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으며 그분들의 영감받은 메시지는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습니다. 대회에 참석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더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벤슨 대관장님의 자리는 줄곧 비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감화를 주는 대관장님의 미소와

손을 흔들어 인사하시는 모습과 진리를 전하는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없어서 서운합니다. 하지만 벤슨 대관장님, 우리는 대관장님이 텔레비전을 통해 연차 대회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기쁘고 또 그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랑하는 영원한 동반자, 플로라를 먼저 떠나 보낸 대관장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관장님과 자매님, 두분을 영원히 함께 묶어주는 거룩한 성약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 교회 회원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관장님을 보호해 주시고 대관장님의 필요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목적에 따라 대관장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관장님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대관장님을 따릅니다. 우리는 대관장님 즉, 우리의 예언자를 사랑합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을 무척 존경하셨는데 맥케이 대관장님은 오래 전에 대영제국에서 벤슨 대관장님의 선교 사업을 관리하셨습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이러한 말씀으로 연차 대회를 마치셨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헤어져야 할 이 시간에 저는 주님의 생애와 그 가르침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전의 어느 때보다 더 아름답고 더 필요하며 더 적절한 행복의 수단처럼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저의 구속주와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서 저는 그분의 복음을 구원의 계획으로서, 인간이 행복과 평화에 이르는 유일하게 완전한 길로서 받아들였습니다.”(1965년 10월 3일 연차 대회 보고, 144쪽).

벤슨 대관장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연차 대회의 폐회사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아주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과 압력에 대해 굳건하게 서며 하나님 왕국의 일을 우선 순위에 두고 모든 책임에 진실하며 모든 성약을 지키기를 간구합니다.”(1971년 4월 연차 대회).

벤슨 대관장님의 소년 시절의 친구였으며 후에는 주님의 사업에서 존경하는 동료였던 해럴드 비 리 대관장님은 “저는 연차 대회를 마치면서 주님께서 이 연차 대회에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분은 부재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기를 원하십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1972년 10월 연차 대회).

벤슨 대관장님과 같은 시기에 사도와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지지받았던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연차 대회를 마치셨습니다. “저는 낚을 잃고 그 모든

훌륭한 말씀들을 귀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말씀들로 인하여 저는 집으로 가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1976년 10월 연차 대회).

벤슨 대관장님, 이 말씀들은 대관장님의 생애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네 분의 동료들의 말씀이었습니다. 대관장님 자신도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연차 대회의 폐회사를 하셨습니다. “이 대회 모임에서 훌륭하게 이야기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교리와 성약 20:59)하여 ‘참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도록’(모로나이사 10:32)해야 하는 교회의 거룩한 사명에 재헌신할 결심을 하며 우리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1988년 7월호 성도의 빛,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91쪽).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벤슨 대관장님이 여러분과 주님과 주님의 사업에 대해 품고 있는 사랑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하며 우리의 생활을 온전하게 하도록 권고 하십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결속하여 이 세 가지 목표를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의 영은 기쁨을 누리고 우리 예언자는 마음에 평화를 얻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미소로 우리의 노력을 인정해주실 것입니다.

*헤어지며 찬송 하나 더하세
하늘 아버지께
즐거운 노래
사랑과 보호하심
감사의 찬송
안식일의 하늘에 울리게 하세
(찬송가 82장)*

이 사업은 참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하나님의 예언자이십니다. 저는 하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개심을 통한 확신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모세가 시현을 통해 보았듯이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동시에 위대한 존재이기도 하다는 역설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 많은 상호부조회 자매님들과 청녀, 그리고 초등협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이 훌륭한 모임을 갖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핑클리 부대관장님, 몬슨 부대관장님, 헌터 회장님, 그리고 다른 신권 지도자 형제님들께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신권의 동반자 관계를 보여 주시기 위해 오늘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욱 기쁩니다.

저는 우리가 참으로 훌륭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훌륭한 시대라 부르는 이유는 우리 개개인이 자신감에 넘치고 의로우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복잡하고 다양하며 때로는 부패한 환경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회복된 복음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확신시켜 주며 나아가 조화있는 삶과 발전을 위협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음을 확신시켜 줄 지식을 갖고 있으며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래 전 모세는 산 위에 올라 서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사는 이 세상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읽었던 것과는 다른 아주 진기한 시현이었습니다. “모세가 보니,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끝과 지음을 받고 있고 또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의 자녀가 있어” 경전은 모세가 “이 일을 심히 놀라며 기이하게 여겼더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모세서 1:8) 여러분은 과거에 존재했으며 앞으로 올 지구상의 만인과 만물을 보는 것이 어떠한지 상상이라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시현으로 인해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된 모세는 “이로써 나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도다. 이 일은 전에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도다”(모세서 1:10)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3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절에 모든 남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광대한 우주와 비교할 때 사실 보잘것없지만 바로 우리를 위해 이 우주와 지구가 창조 되었다는 사실은 모세나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모세가 시현을 통해 보았듯이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동시에 위대한 존재이기도 하다는 역설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유일 무이하며 영원한 주체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오기 전부터 개개인으로서 존재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으며 이 세상에는 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세상에 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매우 자신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고, 나쁜 것을 피하고 좋은 것을 구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도와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변형을 거쳐 모세가 본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며 거대한 전경의 일부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 한때 인식하고 있었던 우리의 동일성과 또 한때 갖고 있었던 인생의 목표와 소속감을 찾기 위해 아직도 힘들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이곳 지상에서 복음의 지식을 얻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전세에서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도자로 선택했었다는 값진 권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역할을 하시고, 우리 개개인은 성약을 맺고 그리스도와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는 물몬경의 베나민왕에 의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맺은 이 언약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니, 곧 그의 아들과 딸이라 이르리라. 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너희를 영으로 낳으셨음이라. 너희는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너희 마음이 변화되었다 말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나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며.

“그를 머리로 하며 너희가 자유롭게 되었으며 너희를 자유롭게 할 자가 다시 없느니라.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이 있지 아니하니, 생애가 끝날 때까지 순종하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를 내가 원하노라.”(모사이아서 5:7-8).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구세주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는 복음의 지식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저는 복음의 지식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훌륭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강하고 권위있는 음성을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위협스러운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정확히 이야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브리감 영 대학교의 한 노년의 모임에서 델린 옥스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의사 결정은 이 생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성장의 근원 중 하나입니다. 모든 의사 결정을 주님께 미루고 무슨 선택을 하든 계시를 간청하는 사람들은 단지 인도받기 위해 기도드리면서도 그 응답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로, 이것은 선택의 내용이 대수롭지 않거나 또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상황에서 생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께서 주신 추리력을 이용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어떤 일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인도를 간구하고 응답을 받는다면 그 응답대로 따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자신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판단력을 이용해 일을 행해야 합니다.(델린 에이치 옥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과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와이유 스테이크 노년의 모임, 1992년 6월 7일, 3~4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심할 때 우리는 겸손하고 용감하게 됩니다. 개심은 의사 결정에 있어서 우리를 크게 강화시킵니다. 이 생에서 선한 사람들이 실제로 겪는 그러한 상황에 관한 좋은 예를 구약성서에 있는 아주 짧은 6쪽의 룯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은 저는 룯기를 개심과 용기와 의사 결정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대와 문화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의 시대와 문화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오미와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들의 두아들은 고향인 이스라엘에 닥친 극심한 기근 때문에 그곳을 떠나 적국인 모압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 두아들은 오르바와 룯이라는 모압 처녀들과 결혼했습니다. 그후 십년의 기간 동안, 아버지와 두 아들은 사망했습니다. 나오미는 유대에 기근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의 민족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녀는 두 며느리에게 그들의 친정으로 돌아가도록 타일러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미는 그녀의 며느리들을 딸이라 부르며 입맞추자 두 며느리는 떠나가는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이 대목이 주목할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명확하고 잘 알려진 기록이 왜 온 세상에 가득찬 시어머니에 대한 웃지 못할 농담에 더 많이 영향을 끼치지 못했는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르바만이 모압에 남겠다고 하자, 나오미는 며느리인 룯에게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룯기 1:15) 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때 룯은 장엄한 히브리 시어로 결심을 이야기하고 개심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룯기 1:16).

무척 현실적이며 현명한 나오미는 룯의 건실함을 보았을 때, 그녀는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룯기 1:18 참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룯과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 두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이야기로 룯을 설득시키기를 그만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모압 사람인 룯은 편협, 가난, 그리고 위협에 직면할지 모르지만 그녀는 이미 개심했고 결심을 했습니다. 룯과 나오미는 그들 앞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한 다가올 기회에 대해서도 함께 힘을 모아 훌륭하게 대처해 나갔습니다.

멀지 않아서 룯은 보아스와 재혼했으며 그들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라도...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인 이새의 아버였더라”(룯기 4:14~17).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종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여성이 지도자가 되는 것에 적대감을 갖는 문화에서 이 나오미와 룯은 경전의 저자가 주의를 기울여 강조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부친 오벳의 계보에서 마태복음 1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가 나온 것입니다. 얼마되지 않는 양의 룯기에서 그토록 위대한 사건을 예언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룯은 우리 시대에 적지 않게 일어나는 역경 곧 사랑하는 이의 죽음, 외지에서 의 외로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의무 등의 어려움에 대담하게 대처하였습니다. 훗날 위대한 일에 중요히 관련된 그녀의 작은 노력을 보고 저는 우리들도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할 때 우리의 일상 생활과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밤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저의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저는 자유의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가르침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가올 위협에 대해 완전히 알고 계셨으면서도 속죄하셨던 구세주께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제 영혼을 채우고 참으로 우리가 훌륭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신앙과 사랑의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두려움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자매
본부 청녀 회장단 제1보좌

“우리는 두려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져 가기로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로 선택해야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특히 청녀 여러분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사랑을 지니고 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열의를 갖고 말씀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특별한 시기에 여러분 각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아무리 딱딱하다고 해도 저는 우리가 음악이나 말씀이나 단순히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우정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답을 찾고 격려를 받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러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활과 어느 정도 결부시켜 보려고 저는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것으로 대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 특히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만큼 고통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을 이겨 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단순히 경험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저는 많은 청녀들에게 어떤 것을 두려워하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그들이 제게 이야기해 준 것의 일부입니다.

“전 다른 학교로 전학했을 때, 친구들을 사귀지 못할 것이라 생각으로 두려워했어요.”

“작년에 제 남동생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동생이 죽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전 부모님이 다투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혼하실까봐 두려웠어요.”

“전 매우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 일이 탄로나서 가족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부끄러워 할까봐 두려움에 떨며 생활했어요, 전 수치심이 너무도 두려워 낙태를 생각하기도 했어요.”

“전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어떤 옷을 입지? 하는 따위의 걱정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전 언제나 남들이 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재미있게 지내지도 못하고 친구도 못사귀는 것 같아요.”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할까 두려워요.”

“전 결혼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요.”

“저는 부모님이 제가 학교에 입고 다닐 교복을 사주지 못하지 않을까 두려워요.”

무서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경전을 보면 우리는 두려움이 세상의 창조 이래 사람의 역사의 일부였음을 알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두 가지 계획이 제시되었을 때 어떤 영은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이 아버지의

면전을 떠나야 하는 것이 두려워 루시퍼의 계획을 택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루시퍼는 자신의 계획대로만 하면 모두가 다시 돌아온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러한 두려움들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동물들과 친하게 지내고 먹을 것도 풍부하며 자연의 위해도 전혀 없이 완전히 안전하게 살다가 생존 그 자체가 두려움의 연속임이 틀림없는 세상으로 갑자기 쫓겨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지상 생활의 일부가 될까요?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통하여 아버지께 향하기로 선택할 수 있기를 가장 바라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상 생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가 아버지께 의존해야 할 존재임을 상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상기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수반합니다. 우리는 두려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져 가기로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로 선택해야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우리 자신의 세속적이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생각에 자꾸 의지하려고 할 때 이러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생활하고 그분께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종종 큰 용기와 성신의 지시가 요구됩니다. 우리는 성신을 통해 언제 또 누구와 함께 우리의 두려움을 나눌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신은 우리가 두려움에 직면하여 전에는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를 도와 줄 것입니다.

제가 두려움을 느꼈을 때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두 가지 제언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첫번째는 본부 초등학교 회장인 미셸린 그래스리 자매님의 충고였습니다. 저는 본부 초등학교 위원회에서 그래스리 자매님의 지시하에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훈련 모임을 갖고 있었을 때입니다. 한 지역 지도자 자매님이 전해에 그

지역에 왔었던 보조 조직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열성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님이 보조 조직 지도자들이 행했던 훌륭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 마음에는 불편한 느낌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밤 그 자매님이 떠나신 뒤에, 저는 그레슬리 자매님께 저의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전해에 오셨다던 분들보다 훨씬 못할 것 같고, 분명히 모든 분들께, 실망감을 안겨 줄 것이며 어쩌면 그레슬리 자매님과 교회를 당혹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레슬리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전 단지 내가 행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만을 염려해야 한다는 생각에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제 마음은 이내 평안해졌으며 이후로 어떤 상황에서든 그 말씀을 거둬들여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여성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를 몹시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인정받기를 너무나 바라다 보니 주위 사람들의 상충하는 욕구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혼돈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는 일에만 매달리면 평안 곧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의 휴식이 깃듭니다. 청녀 여러분, 다음부터 여러분이 교회에서 임무를 수행하거나 여러분이 속한 반의 비활동 회원을 방문하거나 활동을 계획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만 염려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두려움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자 다윗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시편 27:1)

세계 도움이 되었던 두번째는 유명한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의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할 줄 모르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기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다.” 일상적인 두려움을 정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어떻게 해야할 지



9월 26일 솔트레이크 태버나클에서 열린 여성 대회에서 총관리 역원들과 본부 회장단, 보조 조직 암원회 회원들이 단상에 앉아 있다.

알지 못하는 일을 단순하게 행하는 것이다.

아직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면서 어떻게든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매우 어색하겠지만 상향회에서 청남과 대화를 나눠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비록 낙담할지라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우리 본부 청녀회 회장인 재니트 헤일즈 자매님이 청소년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권고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헤일즈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부함으로써 우리의 능력은 향상될 것이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때 더욱 더 안전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엘리너 루즈벨트의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 미국 대통령의 부인이었으나, 그녀의 영향력은 정치나 직위를 훨씬 넘어서까지 발휘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훌륭하게 발전시킨 사람으로서 모든 여성들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이 여성도 어려서는 두려움과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매력없이 키만 크고 치아는 앞으로 튀어 나온데다 웃은 아무리 잘 입어도 어울리지 않는 청소년기를 보냈으며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과 파티를 하거나 춤을 추는 일이 있을 때는 매우 거북하여 정말 불안하기 그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녀는 그러한

상태에서 자신감을 갖고 그토록 폭넓게 공헌할 수 있는 상태로 변모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멈춰 서서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서는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힘과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커렌 맥콜리, 엘리너 루즈벨트, 뉴욕: 웰시 하우스 출판사, 1987년, 105쪽)

다른 사람들보다는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데 중점을 두고 아직은 할 줄 모르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계속하여 일할 때 우리는 개인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중국에 가서는 살아남게 될 뿐만 아니라 큰 기쁨과 행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망 후에 바울은 개심하여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후임 동반자가 있었는데, 바울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그들은 봉사에 있어서 구별이 됩니다. 디모데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선교사가 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디모데후서 1:2~4)

참으로 온화한 편지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눈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이러한 편지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장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5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외조모와 모친 둘 다 믿음을 가진 여성들이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의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여러분에게 물려주신 장점들에 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신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권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6절)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손이 놓여져 은사를 받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을 그 은사를 이용하여 극복하십시오!

다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울의 편지의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7절)

바로 그 권능과 사랑과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낄 때 원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 지어다”(디도서 3:15)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신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신앙으로 이겨 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미셸린 피 그래스리 회장
본부 초등협회 회장

“교회 안의 어떤 사람들도 어린 아이들보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배움의 효율성과 놀라운 기억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감독님은 저에게 자신의 와드에 있는 어느 자매에게 부름을 주었던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은 함께 물론경의 니파이삼서 17장부터 읽어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구세주께서 니파이인들에게 그들의 자녀를 주님 앞에 데려오도록 권유하셨으며, 어떻게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축복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린 아이들을 둘러싼 불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었습니다. 그 잘 알려진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는 시적인 구절입니다.

감독님은 재미있게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브랜홀트 자매님, 구세주께서는 매주일 우리 와드를 개인적으로 참석하지는 못하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감을 받아 구세주께서 만약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면 우리 와드 어린이들을 위해 하실 일들을 자매님께서 대신 해주시도록 부름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자매님을 초등협회 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줍니다!”

그 특별한 경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구세주께서 니파이인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행하셨고, 또 구세주께서 만약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의 어린이들을 위해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구절을 다시 연구하고 싶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이웃이나 친구로서든 교회에서든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는 구세주의 모범과 그 감독님의 가르침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어린이들은 우리 모두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니파이삼서 17장에 있는 몇 구절을 함께 살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모범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에 있는 주님의 권유는 형식적이지도 비논리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라 명하시니”(11절) 그리고 11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 구절은 이 작은 아이들은 아직 어려 책임이 없으니 신경쓰지 말라거나 모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다른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구절은 어린이들도 왕국의 중요한 것들에 관해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이들은 영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신성한 권리를 우리 모두와 똑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 와 그 둘레에 앉게하는지라. 예수께서 그 한 가운데 서시었고”(12절) 우리들 가운데 누구든 어린이에게 봉사하면 체면이



까인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분명히 구세주께서는 그 니파이인 어린
아이들이 그의 면전에 있어도 될 뿐만
아니라, 구세주의 시간과 관심을 받을만
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주님이 필요했고 주님은
그들의 바로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12절에는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모두 데려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대표로
어린 이 한 명만을 찾거나 단지 몇 명의
어린 아이들에만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아이들이 그곳으로
오기를 바라셨고, 그 어린이 모두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아무도
이를 말하거나 기록할 자가 없었고,
우리가 친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보았으나 심히 크고 놀라웠던지라,
아무도 이를 감당치 못”(17절)할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강한 힘을
가진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 기도를 들었고, 그
놀라운 일을 보았으며, 그로 인해 감명
받았습니다. 어린이들도 신권 축복, 와드
및 가족의 특별 금식, 부모와
지도자들의 간증과 기도,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복음 토론과 같은
대단하며 놀라운 일을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차례대로 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었고”(21절)
예수님은 2,500여명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위해 “차례대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겠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 여럿을 한꺼번에
안거나 무릎 위에 올리셨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넘치는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하시매”(23절) 예수께서는 무리의
시선을 정확히 어린 아이들에게
돌리셨습니다. 저에게는 보라라는 단어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지
‘보는 것’ 이상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니파이인들에게 어린 아이들을
보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주의를 기울여 살피고
현재의 상태 뿐 아니라 그 자녀들의
영원한 가능성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저들이 ...우러러보니,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마치 불에 싸인 형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 와 어린 아이들을
애위싸매, 어린 아이들도 불로
둘러싸였으며 천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더라.”(24절) 저는 무리들이 단지
쳐다볼 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하는
의문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강림한 천사들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불로 둘러
싸인 모습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지켜 볼 수 있었겠습니까? 후에
구세주께서 가장 성스러운 가르침을
어린아이들에게만 주시고 곧 이어 그
어린 아이들의 혀를 풀어 백성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한 일은 참으로
중요하기 그지 없습니다.(니파이삼서 26
:14 참조).

구세주께서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신
후 그들이 이백년 동안 평화를 누리며
의롭게 살았다는 사실이 조금이라도
이상한니까? 놀라운 가르침, 축복,
그리고 니파이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받았던 관심 때문에 여러 세대 동안



자자 손손이 정직함이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지속할 오늘날의 아이들의 능력과 잠재적인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안의 어떤 사람들도 어린 아이들보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배움의 효율성과 놀라운 기억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릇된 가르침에 그들보다 더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으며 무지와 학대로 더 고통받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스스로 자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세상의 성인들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온 세상의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되어 이를 바르게 지”(모로니아서 6:4)킬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따라야 할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과거 니파이인 때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목표는 니파이인들의 목표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구세주의 방법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에는 다른 방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보여 주셨듯이 *우리의* 외적인 태도와 관심은 우리 가정, 교회 그리고 지역 사회의 어린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알게 되며 그들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그들의 영원하고 올바른 견해로 바라볼 수 있고, 그들 모두가 구세주에 대해 알고 있으며 주님의

복음의 중요한 진리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놀랍고 영적인 경험을 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모범을 따른다면 우리는 지상에서 어린 아이들의 구원의 천사가 됩니다.

어느 분주한 일요일, 사람들로 가득 찬 예배당 복도에서 감독님은 한 작은 어린 아이가 바닥에 앉은 채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독님은 바쁜 일정을 뒤로한 채 울고 있는 아이에게 즉시 그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감독님은 이내 바닥에 앉아 그 어린 아이가 진정되어 무슨 일인지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꼭 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은 그 아이는 지상의 구원의 천사의 손을 잡고 복도를 떠났습니다.

저는 구세주께서도 역시 이와 같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러시아에서 잠시 살았던 알래스카 출신의 한 젊은 말일성도 어머니는 어린 두 아들과 함께 회원 가족의 집을 방문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또 아주 좋아하며 더 알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그녀는 작은 지부에 참석했으며, 그곳에는 교회가 처음이어서 일요일에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을 가진 회원들이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저는 어린이들이 무엇을 갈망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덧붙여 “제가 하지 않는다면 문책을 당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아 하였고, 머지 않아 지역 초등학교 회장의 부름을 받아 그 어린 아이들의 지상의 구원의 천사가 되었습니다.

저의 한 가까운 친구는 자신이 초등학교에서 가르쳤던 젊은이의 성전 결혼에 초대를 받았었습니다. 그녀는 그 초대에 답하면서 “데이빗, 네가 멀리 이시간 뒤로 너를 오랫동안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나를 생각했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맥밀린 자매님, 자매님은 저희에게 깨끗이 되는 것과 신권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또 자매님은 우리가

성찬을 전달할 때 손을 깨끗이 닦고, 깨끗한 옷을 입을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을 깨끗이 할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데이트하는 동안 유혹과 결정의 순간을 맞았을 때 ‘집사는 걸모습과 마음속이 깨끗합니다’라는 자매님의 목소리가 제 마음속에 울리곤 했습니다. 저는 자매님 덕분에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매님께서 우리와 함께 성전에 가셨으면 하는 이유입니다.”

뉴기니아의 어느 자매 선교사와 그녀의 남편은 커다란 코코넛 농장의 나무 밑에서 작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친다는 내용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 왔습니다. 공과 후에 아이들은 이 지상의 구원의 천사들이 아이들이 오기 전에 플라스틱 주전자에 채워 얼린 그 땅에서는 귀한 차가운 물을 마시기 위해 줄을 선다고 합니다.

저는 구세주께서도 이를 좋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각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특별하고 중요한 방법으로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물, 음식, 사랑, 위로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생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10~14 참조).

우리가 구세주께서 보여주신 것과 똑같은 헌신과 결의로 어린 아이들을 보살필 때 우리는 그들을 사랑, 보호, 신앙, 간증 그리고 사탄에 맞서 대응할 용기를 배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부도덕의 사나운 조수를 막는 방파제입니다. 복음은 오늘날 어린이들에게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날 우리 어린이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준다면 훗날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살핌으로써 우리 또한 복음이 많은 세대에게 전해지도록 도울 수 있으며, 이는 가장 고귀하며 가장 상처받기 쉬운 자원인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 드립니다. 아멘. □

교회의 여성들에게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십이사도 장원회

“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의 물결을 막고 구세주의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형제들 곁에 서서 그들을 지지해 줄 교회의 여성들을 결집시킬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 랑하는 자매 여러분, 사랑과 존경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딸들이며 각자 자신이 되고자 하는 바대로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총관리 직원들을 대신하여 여러분이 교회와 가족과 이웃과 지역 사회에 베풀어 주신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비이기적이고 사랑에 가득찬 많은 선행이 잘 알려지지 않고 때로는 사례받지도 못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권고나 나와 있습니다.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교리와 성약 64:33) 남이 알지 못하게 행한 선행은 어느날엔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게 된다는 구세주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마태복음 6:3~6, 16~18 참조) 주님은 결코 여러분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시며, 저희는 또한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며 아름답고 고상한 것을 추구함으로써 이 세상에 훌륭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품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욱 더 훌륭하게 된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를 추구하는 여러분의 꾸준한 모범은 이 세상의 방법과는 상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혼란이 극심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사고 방식을 따르라고 주장하거나 어떤 주의를 지지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오늘의 상황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 그 당시에 묘사하셨던 혼란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누군가가 “여기를 보라”고 외치면 또 어떤 사람이 “저기를 보라”고 외쳐왔다고 했습니다.(요셉 스미스서 1:5)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문제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혼란과 악이 우리의 주변에 들끓고 있는데 도와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여성들은 마음을 위로해 주고 상처를 싸매 주며 어디로 가야할지 정확한 길을 모를 때 그 길을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는 지식을 주는 영감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위로받지 못할 상태에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전은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최우선 순위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영원 불변의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말씀 외에도 우리에게는 얼마가 기록했듯이 구세주가 계십니다.

“그가 세상에 나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온갖 시험을 당하시리니, 그가 이렇게 하심은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

“또한 그는 그의 백성을 얻어 맨 죽음의 사슬을 푸시려 죽음을 당하실 것이요, 육신을 입은 인간의 연약함을 취하시어 자비로 가득차게 하시리니, 육신을 입은 인간들의 연약함을 육신을 가지고 구해내는 길을 아시려 함이었느니라.”(앨마서 7:11~12)

바로 이분이 속죄를 통해 당시의 여성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셨던 구세주 예수님임을 기억할 때 그분의 교회에 속하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은 분명히 큰 위안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많은 여성들이 모여들었으며 그중에는 매우 절친한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매우 훌륭한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린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렙돈의 헌금을 바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가르치시고 그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일곱 마귀를 쫓으셨으며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또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았던 희랍 여인의 딸을 고쳐 주셨으며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모친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진 아들을 살려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내 주셨으며 아이로의 딸을 살려 그 부모에게 돌려보내 주시고 나사로를 살려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하셨던 비탄에 잠긴 누이들에게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 모친을 불쌍히 여겨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보살피 주도록 맡기셨습니다. 여성들은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했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본 자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이 세우셨던 제자들에게 영광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위임받은 사람도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의 여성들에게는 다소 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할만한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단 왼쪽부터: 지에코 앤 오개사끼 자매(제1보좌); 엘레인 앨 잭 자매(회장);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자매(제2보좌)

이유라도 있습니까?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요한복음 14:16, 18) 주님의 여제자들인 바로 여러분도 다른 보혜사 곧 성신의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구세주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교회와 왕국의 일을 수행하고 그분의 아들 딸들이 지상의 어느 곳에 있던 그들을 보살피라는 커다란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증거하고 통치하며 다스리라는 부름을 받은 그 이유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나이나 약점이나 피곤함이나 함당하지 않다는 느낌같은 것에 개의치 말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맡겨진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구세주께서 그 당시 심지어는 굴욕을 당하시고 고뇌를 겪으시며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여성들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손과 남의 말을 들어주는 귀와 믿는 마음과 친절함 눈과 격려해주는 말과 충실함을 갖기를 원하셨듯이, 바로 전세계 교회에 있는 우리 주님의,

종들은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악의 물결을 막는 것을 지지해 줄 교회의 여성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우리보다 훨씬 수가 많은 사악한 자들에 맞서 신앙심을 갖고 끝까지 충실하고 굳건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의 물결을 막고 구세주의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형제들 곁에 서서 그들을 지지해 줄 교회의 여성들을 결집시킬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니파이서 31:20).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수는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함께 힘을 합칠 때에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수할 수 있으며 주님을 만날 그 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당시의 궁핍한 여인들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온 힘을 다해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피듯이, 저희는 여러분들도 가정과 교회와 지역 사회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크게 떨침으로써 주님의 사업을 수행하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손길을 내미는 개인이나 조직을 통해 많은 선이 행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교회와 이웃과 지역 사회와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훌륭한 대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경전의 가르침을 따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고리와 성약 58:27 참조)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활 속에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은 채 그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은 사람은 현재나 내세에서 자신에게 허용된 참된 가능성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단언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곧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와 단점과 슬픔과 연약함을 대신하여 당하신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우리도 똑같이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 조직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상호부조의 모토가 바로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할 나위없이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하여 찾으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마십시오. “상석”과 “상좌”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관해 구세주께서 주신 권고를 기억하십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태복음 23:6, 11)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을 받는 것보다는 의로움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현 상황이 아니라 봉사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매달 자신의 임무를 조용히 수행하는 성실한 가정 복음 교사는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에서 더 중요한 직책이라고 생각되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큼 주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분들입니다.

과거 교회의 여성 대회에서 스펠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함으로써 여러분이 받는 축복은 여느

축복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인으로 알려지는 것보다 더 크게 이 세상에서 알려질 수는 없습니다. 참다운 자매애나 아내, 어머니 혹은 삶에 영원한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임무 등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신분을 부여받을 수는 없습니다.”(엔사인, 1972년 11월호, 102쪽).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의 충실한 여인으로 선택된 분들이며, 소심함이나 소문, 이기심, 저속함, 기타 훌륭한 하지 못한 모든 형태의 것들을 초월하도록 선택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딸로 태어난 거룩한 권능을 지닌 분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며 매우 훌륭한 본보기였던 마리아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누가복음 1:38).

마지막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시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다음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인의 우주를 이야기 한다.
무슨 한계라도 있는 양
하늘이나 땅에 자리는 없다
인간에게 주어진 임무도 없다
축복도 재앙도 없다
예, 아니오 속삭임도 없고
삶도 죽음도 탄생도 없다
그 우주엔 깃털만큼의 가치도 없다...
여인이 없는 그 우주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저는 하나님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분의 독생자요.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머리에 계십니다. 또한 여성으로서의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자리는 참되고 영원한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를 통해 계속하여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때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참된 사랑은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있으며 인간의 본성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딸들이신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말씀을 새겨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온전히 유지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 행복한 곳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먼저 행복에 관한 모범을 보이셔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과 정신적인 힘과 영적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어쩌면 한 젊은 여성께서는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갖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진실로 그리고 참으로 필요한 것은 덜 비판하고 더 많은 모범을 보이는 일입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히 비난하고, 너무 쉽게 비판하며, 돕고, 들어 올리며, 구원까지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서둘러 포기해 버리고 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멋대로이고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며 조롱하는 어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자는 결코 변화될 수 없을거야. 언제나 나쁜 짓만 골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야.” 겉으로 나타나는 것 너머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 또한 극히 적습니다. 외양 너머의 내면까지도 바라보고 인간의 영혼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게 될 때 바로 기적은 일어납니다. 언제나 짓밟히고 낙담해 있고 무기력해 있던 사람들이 “이제부터...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에베소 2:19)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있으며 인간의 본성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나의 아름다운 숙녀

참으로 아름답고 보람찬 모임이었습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님께서 주신 조언과 자매님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신 조언이 참으로 울음을 지시합니다. 오늘밤에 모인 많은 청중 여러분을 보면서 저는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랜트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종종 지성적이고 하나님같은 얼굴을 가진 우리의 사랑하는 자매님들을 한 장의 사진으로 찍어서 보면 우리의 회원들이 얼마나 온전한가를 세상에 알리는 간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¹

여러분 모두를 한 장의 사진에 담으려면 각도가 가장 큰 광각 렌즈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진을 찍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은 무한하신 시야로 말 그대로 우리 모두를 보실 수 있으며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은 주님께서 주신 계명에 충실할 때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하는 것입니다.

라는 연극에서 매우 아름답게 묘사된 바 있습니다. 꽃파는 아가씨인 엘리자 둘리들은 자신이 돌보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어느 누구든 습득할 수 있는 일, 이를 테면 옷을 차려 입고 말을 고상하게 하는 방법 따위는 제쳐 놓고라도 숙녀와 꽃파는 여자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대우받느냐 하는 데 있지요. 저는 히긴스 교수님께는 언제나 꽃파는 아가씨에 불과하답니다. 그분은 언제나 저를 꽃파는 아가씨로 대하시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당신 앞에서는 숙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언제나 나를 숙녀로 대해 주시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동반자인 디모테에게 서한을 썼습니다. 그의 영감에 찬 조언은 디모테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속에 있는 은사[를]... 조심없이 말며”,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디모테전서 4:14, 12)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천재 지변, 다시 말해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본보기 즉 모범이 되어달라는 특별한 부탁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우리 앞에는 도처에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들은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러한 기회들은 우리의 가정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취하는 행동에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사도행전 10:38) 주님은 바로 행동으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서로가 진실로 존중해 줄 때 행복은 충만하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로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이며 남편은 아내에게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들도 똑같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자녀 또한 행복하게 됩니다. 서로를 존중해주는 가정의 자녀들은 관심도 받지 못하고 부모님의

적절한 지도도 받지 못하는 그 두렵기 그지없는 불모지에 팽개쳐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직 미혼이신 분들께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원한 부부 관계를 맺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기술과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서로간의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서로 가까이 양보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망 대신에 배우자의 소망을 먼저 생각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이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수년 전 저는 졸업생들에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휴비 브라운 부대관장님 덕으로 갔습니다. 브라운 부대관장님은 그 대학에서 졸업식을 감리하시기로 되어 있었으며 저는 또 말씀을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브라운 부대관장님은 제 차에 타시려다 말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분의 아름다운 집의 커다란 창을 바라 보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분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커튼이 열리더니 5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살아온 그분의 사랑하는 아내인 지나 브라운 자매님이 보였습니다. 브라운 자매님은 휠체어에 기대 앉아 작고 하얀 손수건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브라운 부대관장님은 코트 안쪽 호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자매님께 역시 흔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러고는 웃음지으시면서 “이제 가지지요”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 저는 브라운 부대관장님께 그 하얀 손수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매와 결혼을 한 다음 날 제가 출근하려고 하는데 창문을 툭툭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봤더니 아내가 하얀 손수건을 흔들며 서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손수건을 찾아 꺼내 같이 흔들었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번도 거르지 않고 집을 나설 때는 반드시 아내와 함께 서로 손수건을 흔들며 인사를 나누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또 저녁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든게 잘 될 거라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말로 모두가 따라야 할 모범이며 “믿는 자의 본”인 것입니다.

오늘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녀 여러분도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미덕을 조롱하고 문화 예술이라는 미명하에 음란물을 배포하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고상한 율법에 눈멀고 귀멀고 냉담해지게 하려는 자들이 활개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이끌려 들어가고 있으며 세상의 최악에 가담하게 하려는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젊은이들이 진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의 힘을 애타게 갈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롭게 생활하고 도움을 손길과 이해의 마음을 넓힘으로써 그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기쁨은 그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배풀어주게 될 그 축복은 참으로 영원할 것입니다.

병이나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들이 있는가 하면 병석에서 떠나지 못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고통을 딛고 일어설 수 있고 신앙과 사랑과 봉사의 참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경우를 버지니아와 그녀의 남편인 유진 켈리스닉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전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군인들과 여성 및 청중들에게 함께 노래의 선물과 음악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병에 걸리는 바람에 버지니아는 병실 네 귀퉁이 안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정신은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여 함께 갇혀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남편을 격려하고 영감을 주며 지지했습니다. 유진이 방만한 지역에서 갖는 음악회에 참석했거나 그가 배운 봉사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그의 원기와 정열과 친절함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가 많은 일을 해나가는 동안에 버지니아는 늘 그의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가르치는 한편 우리가 봉사해야 하거나 영향력을 끼쳐야 할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7월에 저는 아내와 함께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어서 봉사하고 비이기적인 희생을 보이며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과시하려거나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고 숨어서 헌신한 분들을 표창하고 그분들의 공로를 기리는 영광스런 축하 연회장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의 한평생을 자신과 같은 인디언 소년, 소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데 보내신 인디언 여성 한분이 있었습니다. 표창을 받은 뒤 그분은 겸손하게 “감사합니다.”라는 단 한 마디 말씀만 하셨습니다. 참으로 조용하고도 진지한 모습이었습시다.

또 다른 아름다운 여성 한분은 사람들을 보살피고 봉사하며 이들을 앞서서 이끌어간 공로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2차 대전중에 간호원으로서 부상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또 한 남자의 아내이자 반려자로서 그분은 세계 굴지의 기업을 세우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제 미망인이신 그분은 아직도 자신의 주와 지역 사회를 위해 매일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웃음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행복의 열쇠를 찾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늘 계셨습니다.

또 학대받는 어린이들의 권리가 경시되거나 무시되지 않도록 사랑을 가지고 조용히 그러나 효과적으로 노력해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형태로 헌신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모두가 개척자의 정의, 즉 “앞서나가며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사람”이라는 정의에 걸맞은 분들이었습니다.

연회 및 식순 중에 저는 유명 인사인 플립 하먼 형제님과 그분의 아내인 로이스 자매님 옆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플립 형제님은 지금도 솔트레이크에서 매년마다 7월 24일에 열리고 있는 '47년 경축일 책임자로 계신 분입니다. 플립 형제님이 일어나 연회장안을 다니며 자신이 맡은 일을 수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로이스 자매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로이스 자매님은 자신의 가족은 모두 '47년 경축일의 행사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행사의 하나인 그 유명한 로테오 경기장에 빠짐없이 참석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현재 로테오가 이따금씩은 재미있지만, 과연 매일마다 그렇게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로이스 자매님께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실 수 있었느냐고 여쭙 보았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그야말로 마음에서 우리나라에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인생입니다. 저도 그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저를 믿고 있지요.” 그날밤 저는 아내와 블렌취 숙모님(95세)과 손자녀들과 함께 로테오 경기장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는 로이스 자매님이 자녀들과 귀여운 손자녀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행복의 화신이었습니다. 오찬을 들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로이스 자매님은 자진해서 그분의 남편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로이스 자매님은 플립 형제님에게는 전쟁 중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아들들을 위해 열렬히 기도하셨던 천사같은 어머니가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플립이 귀향한 뒤에 그와 로이스는 결혼했다고 합니다. 생활은 몹시 바빴으며 귀여운 자녀들도 태어났습니다. 매년 결혼 기념일이 다가올 때마다 플립은 로이스에게 “결혼 기념일 선물로 어떤 것을 받고 싶으요?”하고 묻곤 했습니다. 매년 그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성전 인봉이요.’ 하지만 그 선물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였습니다. 매년 그렇듯이 로이스는 “우리 결혼 기념일을 맞아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역시 그 대답은 똑같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선물을 받고 싶어요.” 플립의 대답은 전혀 예상되었습니다. “중소 내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라.” 그들은 29주년 결혼 기념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받았습니다. 후에 플립은 감독으로 봉사하였으며, 각자 다른 사람들과 늘 성실한 관계를 맺었으며 주님께 충실하였습니다.

저는 로이스 자매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이스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카우보이 구두를 신고 계세요.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은 벽난로 앞의 의자에 앉아 그 구두를 벗고 신문을 읽으신답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남편은 절대 그 구두를 버리지 않으세요. 몇년 전 까지만 해도 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저도 그 구두를 좋아해요. 매일 저녁마다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구두를 치워 놓을 때면 기분이 편안해지고 마음엔 기쁨이 넘칩니다.”

이번에 제 눈에 눈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로이스 하면 자매님은 언단으로 나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매님은 그곳에서 숨은 봉사를 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장미 꽃다발이 그녀에게 주어졌습니다. 플립 형제님이 답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큰 호텔 만찬장에 그 두 분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 삶의 등불입니다. 아내는 저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동반자라는 말은 카우보이 구두에도 꼭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참으로 인내가 상을 받고 사랑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젊었거나 연세가 들었거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다르고 주어지는 기회가 다양할지라도 여러분은 모범 곧 “믿는 자에게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솔트레이크 템플 스퀘어의 태버넌클 동편에 있는 거룩한 성전의 어린이 보호실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자매님들 가운데 두 분이 아름다운 찬사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그날밤 자신의 부모에게 인봉되었던 어린이들처럼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들이 어린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어린 소녀 하나가 신앙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 자매님들께 “안녕히 계세요. 천사님”하고 인사했습니다. 저도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빌려 전세계의 자매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천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복음의 표준, 저 호머 더럼 편(솔트레이크시티: 임프트브먼트 이라, 1941년), 15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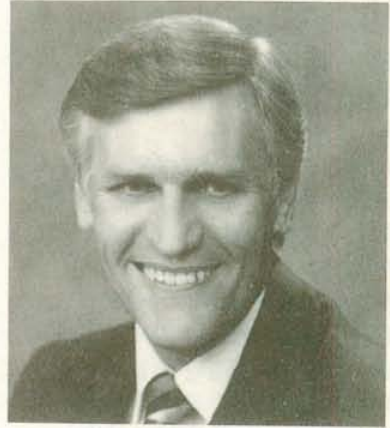
칠십인, 관리 감독단 변경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역원과 관리 감독단에서 새로이 봉사할 보좌들을 발표했으며, 그들은 제162차 반연차 대회에서 지지받았다.

또한 칠십인 제일 정원에서 두 명이 명예 총관리 역원이 되었으며, 칠십인 제이 정원에서 여섯 명이 오년간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해임되었다. 대관장단은 본부 주일학교 및 청남 회장단의 개편도 발표하였다. 한편 이전에 발표된 바 있던,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의 두 명의 새 역원이 지지받았으며 역시 이전에 부름이 발표되었던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 15명도



글렌 엘 페이스 장로

지지받았다.

관리 감독단의 제1, 제2보좌로 봉사해

온 헨리 비 아이어링 감독과 글렌 엘 페이스 감독은 칠십인 제일 정원에서

대 관장단은 칠십인 제일 정원에서 봉사하게 될 두 명의 새로운



매리온 디 헨스 장로



로버트 엘 백맨 장로



조지 알 힐 3세 장로



존 알 라스터 장로



더글라스 제이 마틴 장로



글렌 엘 러드 장로



더글라스 에이치 스미스 장로



린 에이 소렌슨 장로

부름받았다.

아이어링 장로가 교회 교육 기구 교육감으로 임명되었음이 발표되었다.

그는 계속 이 직책을 맡게 된다.

아이어링 장로는 1985년 4월 6일 자로 관리 감독단에 부름받았다. 그는 앞서 교회 교육 기구 부교육감 및 교육감 그리고 리스 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페이스 장로 역시 1985년 4월 6일 관리 감독단에 부름받았다. 그는 선교사 집행 평의회에서 봉사했으며, 관리 감독에 부름받기 전 9년간 교회 복지 사업부에서 재직한 바 있다.

로버트 디 헤일즈 관리 감독의 새로운 두 보좌로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형제와 리차드 시 에즐리 형제가 부름받았다.

매리온 디 행스 장로와 로버트 엘 백맨 장로는 명예 총관리 역원에 추대되었다. 행스 장로는 31세의 나이로 1953년 10월 4일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 부름받았다. 그는 솔트레이크 성전장 및 영국 선교부장으로 봉사했고, 칠십인 회장단에서 두 차례 봉사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신권부의 집행 책임자로 재직했다.

백맨 장로는 1978년 4월 1일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 지지받았다. 그가 칠십인 회장단에 부름받은 것은 1985년 10월이었다. 그는 앞서 본부 청남회장 및 보좌 그리고 노스웨스턴 스테이트 선교부장으로 봉사했다. 최근에는 선교사부의 집행 책임자로 재직한 바 있다.

조지 알 힐 3세 장로, 존 알 라스터 장로, 더글러스 제이 마틴 장로, 글렌 엘러드 장로, 더글러스 에이치 스미스 장로 및 린 에이 소렌슨 장로는 임기를 마치고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해임되었다. 이 여섯 명의 형제들은 모두 1987년 4월 4일 칠십인 정원회에 부름받았다. 마틴 형제는 현재 뉴질랜드 성전장으로 봉사중이다.

찰스 디디에이 장로와 엘 알든 포터 장로는 행스 장로와 백맨 장로의 후임으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에 지지받았다.

또한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지지된 장로들은 다음과 같다. 리노 알바레스 장로, 델러스 앤 아치볼드 장로,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 시 맥스 콜드웰 장로, 게리 제이 콜먼 장로, 존 비 덕슨 장로, 존 이 파울러 장로, 제이

이 쟌슨 장로, 아우구스토우 에이 림 장로, 존 엠 매드슨 장로, 브이 델러스 메릴 장로,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 에프 데이비드 스탠리 장로, 태킵 유엔 장로 로웰 디 우드 장로

휴 더블류 피녹크 장로, 하트만 렉터 이세 장로 및 클린튼 엘 커틀러 장로가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에서 해임되었다. 멀린 알 리버트 장로가 새로운 회장으로 부름받았으며 그와 함께 엘 커틀러 장로와 로널드 이 포올맨 장로가 각각 제1보좌 및 제2보좌로 봉사하게 된다.

본부 청남 회장단 제1보좌였던 로버트 케이 텔러바흐 장로와 제2보좌 스티븐 디 네이돌드 장로 역시 해임되었다. 한편 스티븐 디 네이돌드 장로와 엘 리오넬 캔드릭 장로가 본부 청남 회장인 잭 에이치 고슬린드 장로의 제1보좌 및 제2보좌로 각각 부름받았다. □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버튼 가족에게 있어 교회 봉사란 하나의 삶의 방편이다.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은 수년간 지도자 위치에서 봉사하던 자신의 부친과 조부를 기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고조부인 로버트 테일러 버튼은 관리 감독단의 일원이었다. 새로이 관리

감독단 제1보좌로 부름받은 버튼 감독은 가풍을 실천하고 있으며 자신의 고조부의 족적을 뒤따르고 있다. “제 삶에는 오직 두 가지 우선 순위만이 있을 뿐입니다.”라고 버튼 감독은 설명한다. “가족과 교회, 그 둘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1938년 4월 25일 솔트레이크 시에서 출생한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이 신부감인 바바라 매디슨을 만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다. 두 사람은 버튼이 호주 남 선교부에서 2년간 선교사로 봉사하고 귀환한 뒤 1960년 9월에 결혼했다. 이들 부부에게는 다섯 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중 셋은 이미 결혼했다. 한편 그들은 여섯 명의 손자 손녀를 두고 있다.

버튼 감독은 유타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주 세무청에서 근무하다 솔트레이크시티의 케니코트 동판 주식 회사로 전직했다. 버튼 형제가 석사 학위 과정을 마치기 위해 미시간 주에서 잠시 체류했던 것을 빼고는 버튼 가족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계속 살았다. 1977년 버튼 감독은 교회 회계보가 되었다. 1년 반 뒤 그는 관리 감독단 서기의 부름을 받아, 그후 그 직에서 계속 봉사했다.

버튼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저의 간증을 강화시킨 데는 저의 선교 사업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8주만에 선임 동반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성패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로 힘에 부치기도 했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간증을 하는 것이 선교 사업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간증을 하시고 영이 사람들을 개심하게 하십시오.”

버튼 감독은 복음 교리반 교사, 성전 인봉자, 감독 및 고등 평의회원으로 봉사하는 동안 계속하여 영에 의지했다. 그는 또한 지난 14년간 관리 감독단 집행 서기로 종사는 동안 영의 인도를 받았다.

관리 감독단에 부름 받기전 스테이크 부장으로 재직하던 그는 종종 자신의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영에 가까이 머물고 성전에 참여하라고 권고했다. “성전은 결혼을 유지시키고, 간증을 키우며 여러분은 신앙을 강화시켜 주는 놀라운 열쇠를 지닌 곳입니다.”라고 버튼 감독을 말한다. □

리차드 시 에즐리 감독



11년전, 리차드 시 에즐리는 제너럴 밀즈 주식회사의 부사장 및 스테이크 부장단 일원으로 있었다. 교회로부터 재정 기록부의 관리 책임자로 봉사하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당황하였다.

관리 감독단의 새로운 제2보좌인 그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결정을 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결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일로 무엇이 진정 중요한가를 마음 가운데 구체화시킬 수 있었으며 일의 우선 순위를 재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에즐리 형제가 19년 동안이나 제너럴 밀즈사를 위해 일했기 때문이다.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정치학 및 역사학 학위를 받은 후 그는 인디애나 주립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그후 제너럴 밀즈사에 입사했다.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본사에서 봉직하기 전 그는 4년간 캐나다 온타리오 주 토론토에서 근무했으며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시에서도 4년간 근무했다.

솔트레이크 시티로의 이주는 우선 순위를 설정해 강화시키는 일 외에도 에즐리 형제와 아내 폴린 닐슨 및 여섯 자녀(두 자녀는 기혼)에게 다른 유익을 안겨 주었다. “우리는 아주 훌륭한 친구들을 얻었습니다.”라고 에즐리

감독은 말한다. 그는 또한 친구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있다. 그는 10대 시절의 어느 여름을 아이다호의 목장에서 일하면서 보냈는데 자신의 가치관을 함께 이야기할 친구를 거의 찾지 못했다.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편안한 시간은 못되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커다란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경전을 읽으면서 지냈습니다. 바로 그때에 저는 복음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동부 주에서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아이다호 주 프레스톤에서 1936년 2월 6일 출생해 성장한 에즐리 감독은 자신의 부모인 피노이 에즐리와 오나 크로케트 에즐리를 생애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꼽는다. “그분들이 작고하신 지 10년이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 영향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아버님은 제게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에즐리 감독의 생애 영향을 미친 그밖의 인물로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 지난 10년간 총관리 역원과 함께 일하면서 그는 지도자를 따르는 일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으며, 주님의 사업이 진실로 얼마나 영감적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은 이래 제게 특별히 의미있는 성구가 된 부분은 교리와 성약 84편 88절입니다.”라고 에즐리 감독은 이야기한다. “이 구절은 주님이 자신의 종을 보냄에 그들의 오른편이나 왼편에 계시겠으며, 그분의 영은 저희 마음 가운데 있겠고, 천사가 저들을 감싸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그와 같은 약속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

몽골리아의 선교사들

몽골리아 정부의 요청으로 교회는 이 나라의 고등 교육 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열 두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여섯 쌍의 부부 선교사를 몽골리아에 보내기로 선택한 것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경험과 교육적 준비를 감안한 것이라고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이자 아시아 지역 회장인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가 전했다. 그들은 몽고 정부와 다섯 개 대학 및 전문 공업 학교의 지도자들을 도와 정책 개발, 입안, 교육 과정 개발 및 기타 관련 사항들을 시행하게 된다. 브러프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저희가 아는 바로는 그분들이 몽골리아에 들어가는 첫 선교사들이 것입니다. 물론 선교사 자격으로 가며 우리의 신앙에 대해 가르치고 교회 모임도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부 선교사들은 모두 몽골리아의 수도 울란바타르에 주재하면서 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지시하에 일하게 된다. 몽골리아의 면적은 알래스카 주만하고 인구는 2백 10만 명인데 그 가운데 반은 18세 미만이다. 문맹률은 90%로서 세계 최고 가운데 하나이다.

소련 붕괴 이후 몽고 정부는 구소련이 제공했었던 재분야에서의 도움을 구해 왔다. 이에는 고등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도 해당된다.

몽골리아 파견을 위해 임명된 부부 선교사들은 잘 훈련된 교육가들로서, 이에는 전직 경영대학 총장, 대학병원에서 대학원 학생들을 맡고 있는 의학 박사, 컴퓨터 공학 교수, 경영학 교수, 교육 과정 개발 및 교육 행정 담당 교수 및 교육 행정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프리카 4개국 헌납됨

5일에 걸쳐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벨슨 장로와 리차드 지 스크트

장로가 아프리카의 잠비아, 보츠와나, 나미비아 및 콩고를 헌납했다.

넬슨 장로는 맨 먼저 잠비아를 8월 20일 수도 루사카 소재 어느 대학 운동장에 있는 호숫가 언덕의 한적한 곳에서 잠비아를 헌납했다.

8월 21일 스코트 장로는 가보롱 수렵 금지구역 내 조그만 공터에서 보츠와나 헌납 기도를 올렸다.

다음 날 넬슨 장로가 드리는 나미비아 헌납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 일단의 사람들이 윈드훅 소재 타워힐에 모였다. 한편 스코트 장로는 8월 24일 콩고 수도 브라자빌로부터 콩고 강을 따라 약 10마일 떨어져 있는 구릉지의 한적한 곳에서 콩고를 헌납했다.

잠비아의 교회 회원 거의 모두가 헌납식에 참여했다. 잠비아의 교회는 키위키위에서 일을 하고 있던 추방민들을 위해 설립된 지부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그해 4월 첫 부부 선교사가 이곳에 도착했으며, 교회는 1992년 6월 10일 공식 등록을 마쳤다. 4월 이래 26명이 침례받았으며 54명이 성찬식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에서 침례받고 이 사막 국가로 다시 돌아간 회원들을 찾아보라는 임명을 받고 1990년 6월 부부 선교사가 보츠와나에 도착했다. 그들은 다섯 명의 회원을 찾아냈으며, 그해 9월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 되었다. 교회는 이 나라에서 1991년 8월에 등록되었다. 1992년 3월에는 첫 지부가 두 개의 단위 조직으로 분리되었다. 회원수는 160명으로 늘어났다. 나미비아는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선교부에 속해 있다. 일단의 회원들이 국가 헌납을 위해 모였다. 블레인 허드슨 선교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님께서 이 나라 관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기에, 이분들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이 신생국에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이 작은 무리들 가운데 있는 영은 그들이 잊혀진 백성이 아니며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심오한 느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인구 밀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이 광활한 땅에 꽃피어날 준비가 된 셈입니다."

콩고의 경우, 약 65명의 회원과 교회 지도자들이 헌납식에 참여했다. 나중에 약 250명의 회원 및 방문객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특별 노년의 모임이 브라자빌에서 개최되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두 회원들 또한 선교부 및 지역 지도자들과 더불어 그 모임에 참석했다. □

1900번째 스테이크를 조직함

간추린 소식

싱가포르-존 헌츠먼 이세가 이곳 주재 신임 미국 대사로 취임했다. 헌츠먼 형제는(당 32세) 솔트레이크 마운트 올림프스 스테이크 관할의 마운트 올림프스 제2와드 회원으로서 최연소 미국 대사이다. 그는 대만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표준 중국어(북경어)는 물론이고 기타 몇몇 방언도 구사한다. 그는 또한 미상무성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로도 근무해 왔다.

워싱턴 디시-브리검 영 대학교 농구 선수 및 유고 슬라비아 올림픽 농구 국가 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크레스미르 코지크가 신생 독립국 크로아티아의 미국 주재 부대사로 임명되었다. 코지크 형제는 비와이유 재학 시절 교회 회원이 되었는데 미국에 대한 식견이 넓어 워싱턴 디시로 파견되었다. □

플로리다 주 올랜드 주재 교회 회원들을 위한 특별 스테이크 대회는 참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대회였다. 즉 교회의 1900번째 스테이크가 올랜드 플로리다 스테이크에서 분리되어 탄생한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올랜드 플로리다 남 스테이크를 조직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의 지역 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를 위한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교회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갖게 되면 이는 형제 자매님들 및 교회의 자녀들 모두에게 경이롭고 위대한 순간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께 축배드리듯 저는 그분들께도 축하해 하지않습니다."

1985년 2월 23일 조직된 올랜드 플로리다 스테이크는 플로리다에서는 두번째 스테이크였다. 이번에 새로 탄생된 스테이크는 플로리다 주 최초의

교회가 구호품을 보냄

교회는 소말리아와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기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구호의 일환으로 백만 파운드의 주요 식량을 제공했다. 식량과 물자는 전세계 회원들의 자발적인 헌금과 이와 유사한 기부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몇몇 식수 및 농업 개발 사업에도 재정적 후원을 할 것이라고 교회 복지 사업부 산하의 인도주의 사업과 직원들은 전했다.

엄선된 구호 기관들을 통해 식량과 자원을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보내는 사업은 교회의 아프리카 지역 회장단의 원조 요청이 승인된 1992년 6월 이래 계속 진행되고 있다.

선적된 식량은 주로 분유, 밀가루, 제분 옥수수, 콩 등이었다. 식량은 만 5세까지의 영양 실조에 걸린 어린이와 어린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 및 임산부들을 위한 식량 보조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현재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식량은 3개월간 13,000명의 어린이들의 식량을 보충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데 쓰일 것으로 추정된다.

전달된 모든 식품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 및 포장되었다. 이들은 현재 10개 지역에서 배포되고 있다. 한편 의료 장비, 운반대, 비누 제품 및 16만 파운드 상당의 의복도 제공하고 있다.

교회는 케냐 동북부 소재 인터에이드 인터네셔널 등과 같은 구호 기관을 통해 원조 물자를 전하고 있는데, 이 기구에는 수십만 명의 소말리아 난민들이 모여 있다. 뿐만 아니라 모잠비크 및 짐바브웨 소재 아동 구호 유에스에이, 그리고 짐바브웨에 있는 흑인 여성 국가 평의회(유에스에이) 등을 통해서도 이를 전달하고 있다. □

어린이에 관한 총관리 역원의 말씀

1992년 10월 3~4일에 개최된 제162차 반연차 대회 말씀 중에서 발췌함.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대관장단 제1보좌이신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님이 대독하셨음)

지금은... 마지막 위대한 경륜의 시대로 주님께서 악이 성취하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신 유일한 경륜의 시대입니다. 교회가 이 지상으로부터 다시는 거두어지지 않고 이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으며, 여러분은 그 교회와 왕국의 일부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이 건물(테버내클)을 지은 사람들이 전하는 영속적이고 강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강하게 만드시오!**입니다... **강하게 되십시오...** 옳은 것을 강하게 지키십시오... 자비로운 성품을 갖추어서 강하게 되십시오... 완전한 정직을 통해 얻은 힘을 갖추어 강하게 되십시오... 강한 신앙을 갖고 행하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저는 여러분에게(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간증을 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자녀들이 어디에서건 자신들을 교육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참으로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교리와 성약 88:118)라고 명하셨으며, 이 세상에서 얻은 지식이 모두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30:18~19)

델린 에이치 옥스,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조롱하고

적대하는 사람들과 대치해야 합니다. 그들 중에는 골리앗처럼 강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다윗의 용기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는 신앙을 가지고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의를 위해 나아갔기 때문에 힘이 있었습니다.

조셉 비 워스런,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는 어떠한 조건 아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은 이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하고 자문을 해보고 난 후에 이에 따라 진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딘 엘 라슨 장로, 칠십인 회장단

세상이 계속하여 더욱 사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우리보다 더욱 나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복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면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리노 알바레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매일 매일 자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들을 공경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델러스 앤 아치볼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항상 개개인의 좋은 점을 보고 복돋아 주고 말과 행동으로 장점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사기를 꺾는 말, 예를 들면, “바보”, “멍청이”, 혹은 “넌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없어!”와 같은 말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므로 결코 써서는 안됩니다.

베티 조 켈슨 자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1보좌

경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와 세상에 빛이 되며, 우리는 경전의 말씀을 마치 우리를 안내하는 별인 것같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스러운 숲, 그래그 케이 올슨 그림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서 2:17)